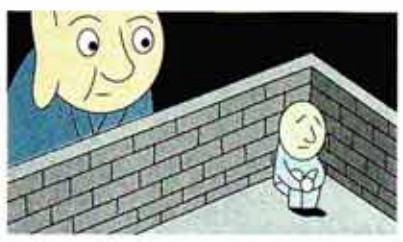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6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5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인권문제 소홀

5월19일 조계사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현상현하 유아독존'이라는 인권사상의 황금률을 제시했던 부처님 가르침에 어울리게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가 개최돼 사회적 관심을 끈 것이다. 그동안 인권문제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불교계가 소외되고 고통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인권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보인다. 97년부터 불교계는 몇몇 불교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운동, 윤이상가족 귀국추진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운동 등을 벌이며 불교인권운동을 사회 이슈화 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타종교인이지만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온 故 계훈제 선생의 극락왕생을 위해 49재를 지내기도 했다.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자들의 천막도 10여 개월째 조계사 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인권운동 활성
중생교화 방편으로

70~80년대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인권단체를 결성해 사회의 저소득층과 노동자·농민들의 인권확립에 적극적이었던데 비해 불교는 농성장 제공조차 여의치 않았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과 비교하면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인권문제에 아직도 소극적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소속 21개 인권단체중 개신교가 12개 천주교가 5개임에 비해 불교는 1개뿐인 것이 그러한 현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동참의식에서 인권문제를 제기는 하지만 각 단체의 활동은 몇 달을 못가 흐지부지돼 버리곤 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불교는 초기불교이래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일찌감한 인권존중의 입장에 서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스트제도를 부정한 것에서부터 역대조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라'고 일깨워왔다.

따라서 불교계는 과거 투쟁지향적이고 선언적 인권운동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불교인권운동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국민 84% "종교문제 심각"

'광신으로 가정파탄' '사이비종교 확산' 등 이유꼽아

종교법인법 제정 54.6% 찬성

코리아리서치, 5대 도시 거주 성인 5백명 설문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교육방송(EBS)의 의뢰를 받아 5월 25일 실시한 '종교문제 및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서울 등 5대 도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했다.

우리 사회의 종교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83.6%)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같은 반응은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신적 신앙생활로 인한 가정파탄에 대한 지적이 4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이단교리 확산(34.8%), 성직자들의 부정부패(10.0%)였다.

종교문제 발생의 주원인으로는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지적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직자들의 사리사욕(29.4%),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는 종교의 특성(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민중앙교회 사건으로 재정논란이 일고있는 종교법인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4.6%로 반대한다는 응답률(4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무종교인과 불교신자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신자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 종교별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종교단체의 자격이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4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종교자유 침해 우려(49.5%)와 사이비 종교단체의 합법화 우려(50.0%)가 비슷하게 지적됐다. 종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교법인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사회교육의 필요성(55.8%)을 꼽았다. 다음으로 종교계의 자정 노력(24.8%), 종교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13.0%),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불교와 천주교신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지적률은 개신교신자에서, 법적 처벌 강화는 무종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법인법 관련기사 3면



◇불교계 각 종단의 스님·신도등 1천1백여명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출항에 앞서 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대표단. 동해항=고영배 기자

반세기만에 금강산 성지순례

불교도 1천1백여명 신계사터서 '민족화합 법회'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범불교도 금강산 순례단이 2일 오후 동해항에서 현대금강호에 승선,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분단이후 최초인 이번 금강산 순례에는 조계종립 방장 보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진각종 성초통리권장 등 소속 각 종단 대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스님 4백여명과 신도 7백여명 등 총 1천1백여명이 동참했다. 첫날인 2일 동해항 출항후 금강호 선상에서 영산재 의식으로 봉행된 방생대법회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참가자 전원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 노래를 합창했다.

5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되는 이번 금강산 순례는 3일과 4일 두조로 나눠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법회를 갖고 구룡폭포와 만물상에 이르는 코스를 돌아보게 된다. 불교계는 이번 금강산 순례가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을 돕고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불교계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북한의 사찰문화재 복원 등 남북불교 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차주상보〉 한편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5월31일 금강산 법회에 모실 불상과 괘불을 금강산 순례단에 전달했다.

정성운 기자

지선스님등 5명
8일간 첫 공식방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의 초청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분단이후 내국인 불교계인사의 최초 공식방문이다.

이번 방북에 초청받은 인사는 지선(전 백양사 주지), 명진, 성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과 유지원 김기창씨 등이다.

김원우 기자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인생 건강 교육 세무 법률 교리 종교

전문 상담실 운영합니다

세상살이 답답하고 궁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교육 부부관계 세금 건강 법률문제 등… 나아가 불교를 제대로 신행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순간순간 만나는 의문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어디를 두드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는 가상공간 인터넷에서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며, 각 분야의 전문가 불자들의 지혜로운 답이 여러분의고민을 확 풀어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인생(대행스님) ▲건강(이근후 이화의대 신경정신과 교수·이만성 영재한의원장) ▲교육(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세무(한국세무사불자회) ▲법률(수원지역법조인불자회) ▲교리(조계종포교원 이재열법사) ▲종교(이경우 새종교연구원장)

*상담문의 : 부다피아(www.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6월 : 사굴산문(굴산사지)·등명낙가사·보현사

6월에는 범일국사에 의해 개창된 사굴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굴산사지를 찾아갑니다. 현재 절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부도탑(보물 제85호),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을 통해 당시 번창했던 산문의 규모와 선사들의 향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에서 참선 정진의 시간도 갖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범일국사 최초 창건 가람인 보현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6월 26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김홍술(강릉시청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3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현대불교신문사
협찬: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생명나눔 6월 대법회 현혈·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1차: 6월5일(토) 오전 11시 부산 내원정사
◇2차: 6월14일(월) 오전 9시 서울 화계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

통도사 성보지키는 문화봉사단 23면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20세기를 빛낸 큰스님들!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경쟁력으로 뭉친 조폐인
세계로 뛰는 한국조폐공사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한국조폐공사는
21세기 세계조폐산업을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규격
-소 재 : 황동(금도금)
-지 름 : 80mm
-케이스 : 고급 우단

■화폐를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조각하여 주화제조 방식과 동일한 압인(壓印)방식으로 제조한 고품위메달입니다. 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집가치가 높습니다.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E-mail kbus6ev@komsep.com
http://www.komsep.com

문의:현대불교신문사
TEL 02)722-4162

사 설

불교도 금강산 순례

각 종단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요 직책을 맡은 스님들 4백여명과 연예인을 포함한 신도 7백여명 등 총 1천 1백여 불자들이 금강호를 전세 내어 3박4일간 금강산 순례 길에 올랐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펼쳐지는 남북화해의 해빙무드를 탄 행사라곤 하겠으나 불교계로서는 분단이후 반세기만에 처음 있는 의미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불자들에게 금강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명산이란 차원을 넘어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연지란 인식이 앞선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금강산은 법기보살이 항상 1천2백명의 보살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곳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많은 고승들이 금강산에서 수행하였으니 금강산은 그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요 부처님의 상주도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순례 길에 오른 불자들이야말로 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연의 땅을 누구보다도 먼저 밟게 되는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과거생에 선근을 많이 쌓은 공덕의 덕분이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더 굳게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오늘 이 땅의 불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케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안 우리 불교계는 타종교에 비해 통일운동이나 남북교류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전개하는데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순례 길을 계기로 불교계내에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 이제까지 침체되고 도외시되었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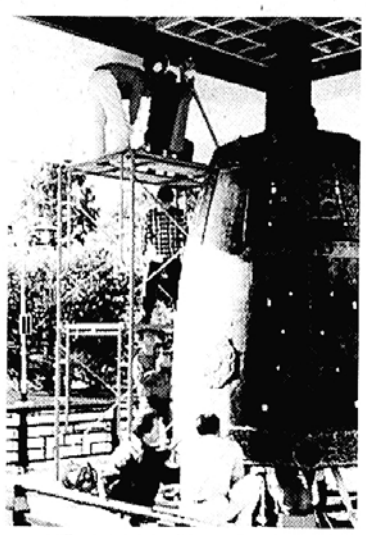
그러자면 먼저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금강산 순례 길에 올랐던 이들이 남북민간교류의 길을 넓히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의 금강산 순례행사가 단순히 금강산을 참배하는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화합을 다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행히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터 복원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 순례 길에 신계사터에 참배도 하고 법회도 가질 것이라 하니 복원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계사터 하나의 복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산재한 고사찰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로 나아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넓히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게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게 된다는 역사적 의미도 가질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 탄생성지인 룸비니 동산에 한국사찰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던 점을 거울삼아 신계사의 복원사업은 선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번 행사는 어느 종단이 독자적으로 펼치는 행사가 아니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펼치는 행사인 만큼 이번 순례 길에 동참한 각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 금강산 순례 길을 계기로 해서 북녘 땅의 사찰들도 침묵의 벽을 깨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올려퍼지는, 살아 움직이고 생명있는 도량으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96년 10월 성덕대왕신종을 정밀 실측하고 있는 모습.

에밀레종 신비의소리 빠르면 가을 다시 듣는다

경주박물관 과학적 검증 정기타종 건의
3년간 정밀조사 종합보고서 2권 펴내

빠르면 올 가을부터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29호)의 신비한 종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은 박물관 경내 성덕대왕신종의 타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성덕대왕신종의 안전진단을 위해 실시한 종합적인 학술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종합조사보고서〉와 〈종합논문집〉에 따른 것.

국립경주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종의 보존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종 위쪽 천관(천장 부분)에 기포가 있는 것 외에는 타종을 중단할 결정적 결함은 없다"며 "금속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겨울철을 피해 매년 봄·가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타종할 것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종시 종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학계 주장에 따라 92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이후 지금까지 치지 않았던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종합조사보고서〉에는 황수영(한국미술사·前 동국대총장), 정양모(도자사·국립중앙박물관장), 이장무(기계설계·서울공대 학장)박사 등이 3년간 실시한 '실측' '음향' '중량측정' 등의 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이 조사에는 총 3억8백만원이 소요됐으며 〈종합논문집〉에는 역사·미술사·과학기술 세 분야에 걸쳐 성덕대왕신종과 관련된 논문 13편 등이 수록됐다.

이번 조사 결과 성덕대왕신종의 무게는 18.908㎏이고 구리와 주석이 85:15 정도의 혼합된 청동주물이며, 고유진동수는 60㎐ 이상으로 측정됐다. 또 종의 성분분석 결과 '인'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를 넣어 신종을 주조했다'는 설화는 전설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기본-전문-지도자과정 구분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

포교원-종회 포교분과, 신도법 개정원칙 합의

98년 '조계종 신도교육의 해'를 계기로 본격화 된 신도의 교육과 조직화를 위한 조계종의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1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신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신도교육과정을 기본·전문·지도자과정으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에 앞서 처음 절을 방문하는 초심자를 위한 입교과정을 반드시 두기로 하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입교용 소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신도등록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찰단위로 한정된 중앙신도회 조직에 지역 신도단체와 전국조직의 연합신도단체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도의 입문교육과 수계, 심화교육과 조직화, 정기적 신행과 사회활동 전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돼 호불호법의 건강한 신도조직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원은 6월 중에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공개간담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폭 보완된 신도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26일 제141회 중앙종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씨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57) 前 청와대 공보수석이 임명됐다. 문화부 차관에는 김순규(52)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초대 문화재청장 서정배씨



5월 3일 승격된 문화재청의 초대 청장에 서정배(57) 前 예술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불교정신 구현위해 일치단결"

한·일불교교류 20돌 공동선언문 채택

5월25일부터 시작한 한-일불교문화교류 20주년 대회가 5월 27일 기념법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첫날인 5월25일 일본 대표단 80여명과 한국 대표단 1백60여명은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을 참배하고 대구 파크호텔에서 환영만찬을 가졌다. 이틀째인 26일에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명'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한-중-일 3국이 보조를 하나로 하여 승가의 교류와 대중복리증진을 추진하려는 기운이 실현된 것은 시대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어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면서 "자리이타불이의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몸바칠 것을 서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한-일불교문화교류 20주년 기념법회에는 고산(조계종) 인곡(태고종) 운덕(천태종)스님 등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석재 (국민회의) 박철언(자민련) 함종한(한나라당) 불자 의원, 송석구 동국대 총장, 김순규 문화부차관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9백만원을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에게 전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민기초생활법' 촉구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과 대한성공회 정철범 대주교, 기독교장로회 강만원 총회장 등 7개 종교 지도자들은 5월 26일 새 내각 출범에 맞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빈부격차와 소외 등 분열이 심화돼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서둘러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존과 공생, 화합과 평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신도위계 정해 교육세분화 필요"

동국대교육硏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 학술대회

조계종이 신도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교육연구원(원장 유시규)이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이란 주제로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의 재가교육에 대한 둔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학술대회를 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탁선영 교수(동국대)는 신도 역시 위계를 정하고 그 위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정한 후 제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현각스님(동국대 교수)=재가교육에 대한 종법상의 규정과 각지에서 이를 이행케하는 통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교학에 치우치지 않고 신행생활과 연계되도록 입문교육 기초교육 심화교육 지도자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학과정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신행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신자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진각종-효봉정사(진각종 중앙교육원 교법부장)=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 개방화,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정보화, 경전 등을 쉽게 한글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가교육을 위해 범종단의 차원에서 〈통합불교성전〉이 나와야 한다.

◇천태종-도원스님(천태종 교육부장)=금강불교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정규대학 설립을 통한 자체 교수 확보, 총동문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력관리, 불교학과의 수업년한 연장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포교소책자 9권 완간

전법도량 모범사례집도

조계종 포교원이 계층별 포교강화를 위해 발간해 온 포교소책자 1차분 9권 시리즈가 완간됐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최근 일반인과 청소년, 재소자, 대학생 등 4개 계층에 대한 포교소책자를 추가 발간함으로써 군인과 실직자, 환자 등 대부분의 계층에 대해 소책자를 활용한 현장포교를 할 수 있게 됐다.

포교원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전법도량 포교시범사찰로 지정된 서울 봉은사와 화성 신흥사, 광주 향림사, 전주 전북불교회관, 상주 남장사, 거창포교당 등 6개 사찰의 포교활동 사례와 활성화 과정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담은 〈전법도량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02)720-7064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믿음이 갑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조계종 기묘년 하안거 결제 법어

마음씻고 생각씻어 날로 새로워라

불기 2543년 기묘년 하안거 결제법요식이 5월 29일(음력 4월 15일) 조계 해인 덕숭 고불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돼 2천여 스님들이 3개월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과 4대 총림 방장스님들의 결제 법어 요지를 싣는다.



◇혜암스님 ◇서옹스님 ◇원담스님 ◇법전스님 ◇보성스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雲水衲衣重七斤
九旬結制樂萬端
釋迦彌陀入地獄
波旬調達坐金坮
韓足踢破地獄門
揮手截斷强鐵筋
山景綠林浮雲白
松栢森森風月淸
猛虎雄飛大地闊
獅子哮吼天門開
會麼
一二三四五六七 遠山無限碧層層

운수납자 옷 무게가 일곱 근이요
석달결제 적멸락이 한량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지옥에 들어가고
파순과 조달은 금대에 앉는다
발을 굴러 지옥문 차 부수고
손을 휘둘러 철봉을 끊어버린다
산은 푸르고 뜬구름은 희도다
송백은 무성한데 풍월이 맑도다
사나운 범이 힘차게 날으니 광야가 드넓고
사자가 고함치니 하늘문이 열리도다
알겠는가?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이여
먼산이 층층으로 한없이 푸르도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黑山前倒壓銀山
乾坤盛衰從自然
石火光中任殺活
淸風溪溪拂乾坤
喝

검은 산이 거꾸로 무너져 은산을 누름이라
하늘과 땅이 성하고 쇠함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다
돌과 돌이 부딪쳐 불 번쩍이는 사이에 자유자재하게 죽이고 살림이라
청풍이 늠름하여 건곤을 떨침이로다
아-악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結時結無結
解時解無解
結解本無空
一物本無終
?

맺을 때에는 맺음이 없이 맺었고
풀 때에는 풀림이 없이 풀었네
맺고 푸는 것이 본래 공하여 없는데
한 물건도 본래 해제와 결제가 없다
(?)그 한 물건은 무엇인고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洗心滌慮 日新又新
何以報德 忽悟水因
了事納僧 消一箇
長連牀上 展脚臥
夢中 曾說悟圓通
香水洗來驀面唾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어서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하라.
무엇으로 이 덕을 갚을꼬?
홀연히 수인(水因)을 깨달음이라.
생사의 일을 마친 납승은 한사람만이 필요하니
길다란 평상 위에 다리를 뻗고 누웠네.
꿈 속에서 원통을 깨쳤다고 말하니
향수를 뿌리다가 낯에 침을 뱉는 꼴이 되었네.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泥牛更不見 須彌在何處
月明山下路 松風振納衣
飢食無粒飯 渴飮不濕水
高風毘盧頂 鼻息動乾坤

진흙소를 다시 볼 수 없으니
수미산이 어디 있는고
달 밝은 산아래 길에
솔바람이 누더기 날리네
배고프면 쌀알 없는 밥을 먹고
목마르면 젖지 않는 물을 마시네
높이 비로자나 이마 위에서 잠이 드니
코고는 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네

종교법인법 제정 찬-반 팽팽

최근 발생한 만민중앙교회의 MBC 난입사건을 계기로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감시와 현황 파악의 대안으로 종교법인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방송(EBS)이 29일 밤 2시간에 걸쳐 종교법인법 필요성 여부와 종교문제 해결책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윤승용씨(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는 발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단체가 7만6천여개에 이르고 종교인구는 전체국민의 43%에 달해 국민은 종교문제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단체는 3백60여개에 불과해 종교단체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종교법인법 제정이 한국종교단체의 건실한 활동에 도움을 주어 종교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필요한 법제정으로 종교활동의 제약을 가져올지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 5월29일 EBS-TV가 개최한 '종교법인법-문제해결의 열쇠인가' 난상토론 모습.

찬 성

기성종교 보호·육성 길열려

혜 담(각화사 주지)

기성종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유사종교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양성화할 것인지 또는 차단할 것인지의 장치가 필요하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신흥종교, 소수종교에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해 건전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등록 또는 허가하는 것이므로 종교행위에 대한 억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용 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법 제정의 취지가 종교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건전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키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 재정투명성 확보

김종서(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종교법인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너무 폐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종교법인법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재정과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교단체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종교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보다 더 큰 조직은 없다. 재산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 수많은 종교조직의 재산은 교단 사회 국가의 공공자산이다. 그런데 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종교단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이비종교 법적 검증 가능

용태영(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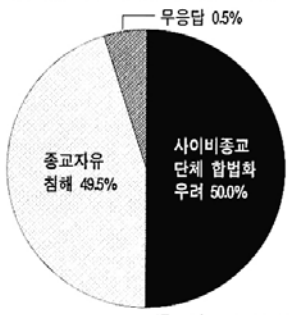
종교가 공해중에서도 대형공해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교역자가 신흥귀족이 되고 있으므로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종교는 계속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다. 종교가 제기능을 다하려면 종교단체의 재산, 시설물등이 투명화되어야 하므로 종교법인법에 의해 투명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형사법에 저촉된 종교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교단의 돈을 개인돈으로 여기는 교역자는 신성할 수 없다. 사이비 종교도 등록하여 국가가 충분히 검증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백화제방현상을 보이고 있다. 암자하나 지어놓은 교주가 있는가 하면 종교가 만능으로 오인되고 있어 국민이 엉뚱한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여과가 필요하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유



종교법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여론조사/코리아 리서치

외국의 종교법인법

일본은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18만4천여개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95년 12월 현재). 종교법인의 설립은 관할관청에 법정의 형식과 인증요건을 구비하면 가능하다. 관할청은 종교법인이 공익사업 이외의 위법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인의 활동이 반공익적일 경우 활동정지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뉴욕주 등 서구에서도 종교법인법이 있지만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 종교청이 있어 따로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법인제도를 두지 않고 민법상(한국)의 '(재단 또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준용해 종교단체의 헌법상 '종교(활동)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반 대

국가의 종교단체 간섭 우려

류종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법이 갖는 위험성 즉,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해 해산한 곳은 옴진리교 1곳뿐이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지 모른다는 우려로 적용하지 않았다.

종교법인법을 시행할 경우 종교단체를 국가가 인증 또는 허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종교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종교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이비종교 합법화에 악용

박찬성(기독교총연 사이비대책위 총무)

한 종교가 지배종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중요시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는 기독교문화, 일본은 불교가 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종교법인법 시행이 가능하다. 자칫 사이비종교의 합법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각 종교는 내부의 법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종교단체를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종교계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종교계의 자정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법의 철저한 적용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회문제가 되는 종교문제는 기본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종교문화 급선무

김형성(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기존종교를 보호하자"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없애자"

이런 뜻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두가지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종교를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람직한 종교문화를 이룰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이비 척결을 위해서라면 종교법인법을 새로 정할 필요없이 기존의 민법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광신으로 인한 가정파괴도 마찬가지다. 민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국민의식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스캅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안될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 신국판 | 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선 8명 당선


◇지운스님


◇혜정스님


◇장주스님


◇지광스님


◇탄우스님


◇원우스님


◇동욱스님


◇지광스님

5월27일 실시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지운, 혜정스님 등이 당선됐다.

범어사는 문중내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를 연기했으며, 법주사는 교구선관위가 원담스님(청주불방 전 운영위원장)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후보등록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당선자 교구·직능분야 및 약력은 다음과 같다.

▲지운스님(7교구 수덕사):69년 수덕사에서 혜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5년 석암스님을 은사로 구족계 수지, 정혜사에서 5하안거 성만, 수덕사 총무국장, 11대 종회의원 역임, 현 수덕사 총무국장.

▲혜정스님(9교구 동화사):72년 은해사에서 의현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6년 영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88년 동화사 강원 대교과 졸업, 현 대구 안일사 주지.

▲장주스님(11교구 불국사):60년 법주사에서 월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법주사에서 9하안거 성만, 11대 종회의원, 오어사 주지 역임, 현 불국사 총무국장, 법보신문 사장.

▲지광스님(17교구 금산사):월주스님을 은사로 득도, 69년 금산사에서 용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6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 강원 사집과 수료, 82년 종립학교 교법사 역임 금산사 포교국장 교무국장 역임, 현 익산 숭림사 주지, 익산사암연합회장.

▲탄우스님(23교구 관음사):76년 백양사에서 서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9년 서옹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백양사에서 5하안거 성만, 총무원 정보국장 역임, 현 논산 관촉사 주지.

▲원우스님(행정):68년 범어사에서 흥교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74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10대 종회의원 역임, 현 창원 성주사 주지.

▲동욱스님(율원):61년 해인사에서 도원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67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범어사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 해인총림 율원 졸업, 해인사 재무국장, 쌍계사 총무국장, 남해 보리암 주지 역임.

▲지광스님(율원):82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96년 청하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현 능인선원 주지, 불교TV 이사.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차로

전남대 자랑스런 동문에



법정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주 스님은 8일 전남대 개교 47주년 기념식에서 전남대가 학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게 시상하는 '자랑스런 용봉인' 상을 수상했다.

안양교도소 재소자에 수계



현성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스님은 5월31일 재소자 3천7백여명이 참석한 도선사(주지 광복) 주최 안양교도소 위문 및 수계법회에 수계법사로 참석, 270명의 재소자에게 5계를 수계했다.

3사 군승후보생 위문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2일 군승단 운영위원들과 함께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입소교육중인 군승후보생들을 위문했다.

청송 2감호소서 위문공연

혜철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장(청련사 주지) 스님은 5월26일 청송 제2감호소에서



재소자 6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봉축법회와 연예인 위문공연을 함께 했다.

정토회관서 '육조단경' 강연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9일부터 18일까지 매일(토, 일요일 제외) 오전 11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서초3동 정토회관에서 〈육조단경〉에 대해 강의한다.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에



정호 용인 대각사 주지(조계사 재무국장)는 5월14일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임시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혜명불교 양로원장에



종호 前 도선사 교무스님이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원장 임명을 받고 5월20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화 찬불가 발표회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원장 스님은 5월30일 서울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자비의 수화교실〉 출판기념회'와 '수화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했다.

택시기사·공무원에 설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0일 오후 3시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16일 오후 5시 강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아인식에 대해 강의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최규철 동국대교수는 지난 1일자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임명됐다. 최교수는 88년 서울올림픽 공로 은장과 96년 국제레슬링 공로 금장을 수상했다.

정신세계원서 금강경 특강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과 14일 오후 7시 서울 정신세계원에서 '〈금강경〉 공관(空觀) 수행법'에 대해 특강한다.

운제당 영무스님 49재 봉행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의 49재가 3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49재에서 혜초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제스님이 남기신 불교포교의 원력을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49재에는 혜초(법륜사 주지) 이두(청주 관음사 주지) 도암(대승종 종정) 혜경(봉원사 전 주지) 동환(태고종 전남종무원장) 대은(태고종 인천종무원장) 무공(대륜문도회 前회장)스님을 비롯한 스님 30여명과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바른법연구원장 김원수교수, 동국대 연기영 박경준교수, 달마회 김경복회장, 월간불교 송금엽주간, 현대불교 최정희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이진형씨 대전시 불상조각 무형문화재



이진형 불교조각원장(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은 5월26일 대전시로부터 불상조각 부문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았다. '불상조각'으로는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진형원장은 68년 조각가의 길에 들어선 후 30여년동안 전국 사찰에 3천여구의 불상을 조성한, 대표적인 불모(佛母)중 한 사람. 1995년에는 불교조각가로서는 처음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그동안 불교미술영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종교라는 영역속에 굳게 갇혀 있어 불교미술 분야에서 활동한 작가들은 일반 전통문화에서 지정받아왔다. 따라서 이진형 원장의 '불교조각匠' 지정은 불교전통미술의 영역을 한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원정사 조실 석암스님으로부터 교리와 신심을 배웠고, 불모 석정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성상 표현법을 배웠다"는 이원장은 "민족전통의 불교조각을 계승하고 현대불교 조각의 전형창출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위원장에 고병익박사 재임

부위원장·분과위원장 9명 선출



5월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병익(75·사진) 전 서울대총장이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장에 재임됐다.

지난 2년 동안 문화재위원장을 맡았던 고위원장은 "문화계 38년 숙원이던 문화재청 설립 직후 새로 맡게 된 위원장이어서 더욱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 역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성덕대왕신종 타종 등 성보문화재에 대한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 "불교문화재는 국가의 자산이면서 민족의 정신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학적 보존'과 '대중적 향유'라는 두 가지 원칙에 맞춰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신임 문화재위원 59명이 위촉됨에 따라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도 선출됐다. ▲부위원장=정영호(65·한국교원대 교수) ▲제1분과(건조물)=정영호(65·한국교원대 교수) ▲제2분과(동산)=고병익 ▲제3분과(사적)=최영희(73·전 국사편찬위원장) ▲제4분과(무형문화재)=이성천(63·전 국립국악원장) ▲제5분과(천연기념물)=윤일병(64·고려대 교수) ▲제6분과(매장문화재)=한병삼 ▲박물관분과위원장=정양모(65·국립중앙박물관장)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와 기독교 폭넓게 연구"

하바드대학원서 '비교종교학' 연구 일미스님



"하바드에서 불교학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부디즘'이 아니라 '화엄학', '천태학' '불교교단' 계율' 등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더군요. 한국불교를 전공한 한국 승려로서 불교와 기독교를 폭넓게 비교 연구하고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인다는 미국 하바드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일미스님이 일시 귀국했다. 동국대를 조기졸업하고 일본 용곡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수재로 이름난 일미스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범어 독일어 등 6개국어에 능통하다. 히브리어까지 마스터할 계획. 미국과 유럽에 가보니 기독교에 한계를 느낀 많은 서구인들이 내적인 자아를 찾는 선불교에 관심을 갖고 참선 요가 붐이 굉장하다고 소개하는 스님은 석 박사 과정의,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스터디그룹도 만들어 연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갈 예정이다. 일미스님은 15일 출국한다.

이경숙 기자



北 돕기 '자비의 쌀' 성금 명성여고, 평불협 전달

동국학원 명성여고(교장 우하수)는 1일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전교생 2천여명이 자비의 쌀을 모아 마련한 성금 1백74만8천7백원을 평불협 북한금강국수공장후원회에 기탁했다. 모금운동을 펼친 불교학생회 회장 송지영(2년)양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호소

김봉준 화백 혈액암과 사투 불자 배호성씨 기업 자금난



불자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두 불자가 있다.

80년대 들어 감로탱화에서 볼 수 있는 민중의 전반적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명성을 날렸던 김봉준 화백(45·사진)이 최근 혈액암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막대한 병원비는 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96년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했다가 한국불교종단협 소비자보호위와 총지종의 후원으로 재기했던 배호성씨(56)도 자금난으로 또다시 곤경에 처해있다.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출물량을 댈 수 없는 딱한 처지. 연락처는 김봉준 화백 (02)428-6775, 배호성씨 (0581)555-1153.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 '禪修練會'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는 '99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선불교 특강 및 선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다 음 ·

◆ **참가대상** : 선불교와 선수행에 관심있는 분. (불교의 기초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함)
◆ **일 시** : 1차 1999년 7월12일 13:00 - 7월15일 14:00 (3박4일) 80명
2차 1999년 7월19일 13:00 - 7월22일 14:00 (3박4일) 80명
◆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정각원 법당 및 기숙사
◆ **접수기간** : 1999년 6월1일 - 6월30일까지 (선착순)
◆ **접수 및 연락처** :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정각원**
◆ **전 화** : (0561)770-2016, 2017 **팩스** (0561)770-2015
◆ **신 청 비** : 100,000원
◆ **우체국 예금주** : 정각원, 계좌번호 : 703538-0097937-11
◆ **준 비 물** : 법복바지, 세면도구, 필기도구
◆ **선불교 특강** : ①불교사상의 이해(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발행, 불교시대사 보급)
②반야심경 강의 ③선의기원과 역사, 선의 風土
④선불교 개설 ⑤선수행의 의미와 목적
⑥조사선, 묵조선,간화선의 수행방법
⑦禪文化, 禪文學, 坐禪儀
◆ **강 사** : 정 성본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이 만 교수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정 유진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강사)
◆ **인 례** : **석림회 (선학과 스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정 성본 합장

투고환영

오는 8월에 창간하는 월간 '불교저널'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불교종합잡지입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불교시사논평,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2.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글
3.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
4.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5.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6.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필명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명과 주소 전화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모집

새로운 불교종합잡지 월간 '불교저널'은 불교문학·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성·신인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불교를 소재로한 시, 소설, 동화, 동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만화 등
2. 불교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의 평론
3. 글의 분량과 마감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4. 필명인 경우는 본명과 전화, 주소를 명기해 주십시오
5.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우)100-380 서울시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전화 02)2285-2421/2 FAX 02)2285-2420

탐방 경북도청불자회



◇ 지난해 7월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센터 자원봉사에 참여해 회원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성보 · 사찰환경 '지킴이'

도청 첫 불자회…회원 4백명
무료급식 · 결식아동 후원

3백만 도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는 경상북도청에 불자들의 모임이 생긴 것은 97년 1월. 전국 9개 도청 중 최초의 불자회가 되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대로 경북도청불자회(회장 오장홍)는 개별신앙을 넘어 좀더 조직적이고 폭넓은 신행활동을 하기 위해 발족됐다.

현재 4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도청불자회는 경북 각자에 산재한 성보문화재를 보전하고 사찰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보 52점 보물 250점, 사적 92점 등 전국 최대의 문화재 보고(寶庫). 해인골프장과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으로 홍역을 치른 일, 세계최초의 문화엑스포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일 모두가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성을 짐작케 한다.

경북도청불자회는 문화재 지킴이로서 뿐만 아니라 목민관이자 호법신장으로서 위민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결식아동과 1구좌 결연맺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무료급식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다. 또 년1~2회 하루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4월에는 경북도의회 정각회와 합동법회를 여는 등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올 초에는 은해사에서 7개 정부부처 합동법회를 개최해 전국 규모의 공무원불자회 모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기도 했다.

다른 도청불자회 창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경북도청불자회는 앞으로 도내 중소 시군에도 불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

얼마전 도의회 총무국장에서 영양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 오장홍회장은 "경북이 우리나라 불교의 발상지이듯 경북도청불자회가 전국 공무원불자회 태동의 중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정당 초월 불교권익 옹호 한마음"

새 회장 추대이후 정각회

회장선출 세칙마련…회원 화합 과제

제15대 후반기 국회 정각회장 자리를 놓고 불자의원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비춰져 왔던 정각회 알력이 5월10일 서석재 의원이 재추대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를 계기로 교계에서는 정각회가 소속정당의식보다는 초당적 불자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신행활동 활성화와 불교계 권익옹호 및 중흥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정각회는 85년 결성된 불자 국회의원 모임으로 현재 한나라당 20명, 국민회의 12명, 자민련 8명, 무소속 3명 등 총 4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사찰관리법, 농지법과 같은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정부, 정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각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장 선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해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사왔다. 서 의원이 재추대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의원들간 화합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그동안 집권여당에서 회장직을 맡아왔던 관례에서 탈피해 회칙에 회장선출에 대한 세칙마련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계는 "정치논리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초당적 차원에서 정각회를 여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각회가 교계와 정부, 정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불교계 권익옹호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계승·발전에 앞장서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교계는 국회 정각회가 당파를 초월해 불교권익 옹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97년 정각회 신년법회 장면.



부산 자비콜택시 창립

친절 서비스로 '거리포교사' 다짐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2일 코모도호텔에서 자비콜택시(회장 고영호)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정각 미룡사 주지,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자비콜택시 회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안전운전이 또다른 불사임을 안다' '한국 최고의 택시를 만든다' '친절과 미소가 서비스의 전부임을 안다' '손님을 일어서서 합장하며 맞는다'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각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11년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을 토대로 안으로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을, 밖으로는 중생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대상

봉축위원회가 5월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대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상금 1백만원). 장엄등상은 조계사와 천태종·동국대, 연희팀상은 불광사와 능인선원, 예쁜상은 청룡사와 개화산 미타사 및 옥수동 미타사가 각각 수상했다. 불교문화체험상은 진각종과 대한불교연화회, 행진상에는 보문종과 청소년협회가 수상했다.



평화위한 국회 종교의원모임 창립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교를 믿는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의원 모임'이 창립했다. 이날 초대회장에는 국회 조찬기도회의 회장이기도 한 김영진 의원(국민희의, 전남 강진 완도)이 선출됐다. 이 자리에는 정각회장 서석재 의원(국민회의)과 천주교신우회장 김현욱 의원(자민련), 원불교도인 김정수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36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보문화관 상록원 준공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5월27일 서울캠퍼스에서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준공식을 가졌다. 정보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종합민원실과 역경원 및 정보산업대학이 들어서고, 상록원은 지상3층 규모의 식당전용 건물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녹원스님, 도원스님, 송석구 총장, 서돈각 이사장, 황명수 총동창회 전회장, 류시열 제일은행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승가원 소쩍새마을 후원 바자회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은 소쩍새마을 후원 및 종합복지타운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5월26~27일 이틀간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품의 의류와 생활도자기, 불교용품, 음식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 모임에선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가 6월10일과 11일 이틀동안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관광가이드 연수는 한국 불교문화의 특색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사찰문화와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팔만대장경 강의, 그리고 불교문화 답사와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02)720-7060

금융단불교련 운영회의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9일 오후 7시30분 명동에서 제21차 합동법회(5월19일)에서 모인 보시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7월초 합천 해인사에서 실시할 예정인 전국금융단 불자 합동수계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02)398-6464

제주경찰서 법우회 창립

제주경찰서 법우회(회장 양대현, 경무계)가 창립됐다.

제주경찰서 법우회는 5월20일 홍법정사에서 제주경찰서 경승실장 상허스님과 관효스님을 비롯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수원교도소 지장보살 점안

수원교도소 지장보살 점안식(사진)이 5월20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락 성무 장운 성수 태현스님을 비롯한



종교위원 10여명과 이종화 교도소장, 오희창 전국교정불자연합회 회장 등 내외인사 1백여명과 재소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0331)213-8893

분다클럽 아가의집 위문

분다제주중앙클럽 백록회 부녀회(회장 고순자)는 5월26일 함덕 아가의집을 방문, 점심공양과 진입로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064)48-0108



불교언론인회 창립 1돌 기념식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5월27일 불교방송2층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신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간 성과는 적었지만 지방조직 등 토대를 다지고 있다"며 "불교외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언론인회 고문 김종서 박사(前 교육개혁위원장)는 "불교언론인들은 국민을 계도하는 교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박사는 저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1백권을 법공양 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성낙승 BBS 사장, 김성호 카톨릭언론인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Reiki, 靈氣)는 인류의 건강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귀중한 우주 생명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레이키법 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고유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시일내에 氣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공법에도 없고 오직 레이키법에만 있는 어튜먼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비법중의 비법입니다. 여러해 동안 기공을 지도해 온 한 기공사는 나(박희준)에게 레이키를 전수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여러 해 동안 피 나는 수련을 해야 氣치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알고 있다. 그래서 레이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면서 두 손을 내저었다. 손에서 자유롭게 氣치료 에너지가 흐르게 되려면 얼마나 힘든 수련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나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한 번 레이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평범한 가정 주부 마저도 그 자리에서 氣치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는 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레이키법은 모든 기공인이 노심초사해 추구하던 바로 그 기적의 속성식 기공법임이 틀림없다. 모든 수련자가 레이키를 전수받아 자신들의 수련력을 촉진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레이키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지식 수준에 달려 있지도 않고 명상을 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지도 않으며, 여러 해 동안 기공을 수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가 어튜먼트를 해 드리는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계시기만하면 됩니다. 레이키 에너지는 레이키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간 치유 경험, 비젼이 보이는 경험, 전생 경험, 메시지(계시)를 받는 경험 같은 신비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눈이 열린다. 투시 능력이 생긴다, 직관 능력이 생겨난다 등의 심령 능력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레이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레이키마스터 박희준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氣와 정신세계 분야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저술가이고 기공 연구가입니다. 환경과의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갈수록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공이 필요한 것임을 절감하고 바른 현대인이 적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속성식 기공법을 찾아 헤메던 끝에 1990년에 들어와 갑자기 세계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레이키와 만났습니다. 도합 9-10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계의 레이키 지도자, 영국계의 레이키 지도자, 오스트랄리아계의 레이키 지도자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현대식 레이키법, 1995년에 미국의 레이키 마스터 윌리암 랜드가 새로이 개발한 카루나 레이키(일부 질환의 치료와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법을 두루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기술」을 죽 넘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와 카루나 레이키 다스터를 겸하고 다채롭게 레이키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

레이키는 미국 유럽 등의 여러나라에서 효과성이 높음이 이미 증명되어 있으며 아주 대중적인 힐링(요법)의 기법으로서 널리 일반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래로는 미국 종합 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이 레이키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이키법의 전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제1단계 : 2 일**
이 단계는 레이키를 처음으로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6월 16-17일, 23-24일, 6월30-7월1일

▶**제 2단계 + 제 3단계** : 2일, 이 단계는 레이키의 파워를 훨씬 높이고 생활의 각 방면에 레이키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6월19일-20일, 6월26일-27일, 7월3-4일.

▶ **전문임상응용단계:** 도합4일 정도. 이 단계는 전문적 레이키 요법가가 되려는 분을 위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2-3일 전에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하며, 시간 사정이 맞지 않는 분에게는 개별지도도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2-942-1127~8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이렇게 들었다 — 합리적인 소비

多欲은 바로 괴로움이니라

과연 우리사회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IMF구제금융의 한파는 사라진 걸까? 요즘 우리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급옷 로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각종 사치성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이 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8.9%나 증가한 사실은 작금의 소비증가가 바람직한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아님을 보여준다. 적절한 소비는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계속되는 소득 감소와 수출 부진속에서 횡행하는 과소비는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한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해 새겨둬야 할 부처님 말씀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과욕(寡欲)해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 많은 것을 탐구(貪求)치 않고 많은 것을 축적(蓄積)하지 않는다면, 축적함이 없으므로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고,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므로 온갖 우뇌(憂惱)에서 멀어지고, 우뇌에서 멀어지므로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멀어지고,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덜어지므로 애욕(愛欲)이 없어지고, 애욕이 없어지므로 능히 온갖 번뇌(煩惱)를 다 끊게 된다. 〈보운경〉

▨"이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無明)의 전도심(顚倒心)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니건자경〉

▨"비구(比丘)야, 다욕(多欲)은 바로 괴로움이니라. 생사피로(生死疲勞)도 탐욕(貪欲)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욕(少欲)해 담담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자재(自在)할 수 있을 것이다." 〈팔대인각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禪定)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 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한다. 〈법구경〉

▨보살은 세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라 할 지라도 정욕(情欲)에 집착하지 않고, 온갖 욕망의 대상에 애요(愛樂)의 정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설사 여러 욕구를 느끼는 때라 할 지라도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마치 사람이 있어 도둑이 들끓는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 경우, 그곳에 비록 마시고 먹을 것이 있다해도 항상 두려워해서, 오직 언제면 이 위험한 고장을 벗어날까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세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욕망을 느껴야 할 처지에 있기는 해도, 늘 이런 욕망들로 하여 저지르는 과실이야말로 온갖 괴로움의 근본임을 깨달아, 애요의 정을 일으키지 말고, 이를 두려워하여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불모출생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왕후의 자리를 보되 틉새를 지나는 티끌쯤으로 여기고, 금옥(金玉)의 보물은 기와나 조약돌, 비단옷은 누더기, 대천계(大千界)는 한 알의 하리륵(訶梨勒)열매, 아뇩지(阿耨池)의 물은 발에 바르는 기름, 방편(方便)의 가르침은 신통력으로 만들어 낸 보배 무더기, 열반(涅槃)은 대낮이나 저녁때에 깨어있는 일 같이 여기느니라." 〈사십이장경〉

목탁소리

록 페스티벌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지난달 21일 신세대 청소년들을 한층 불교와 가깝게 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됐던 봉축 특집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 불교 가르침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또 국악류나 기존에 많이 행해지는 찬불가 발표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록 페스티벌'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는 1천여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썰렁했다.

관중 동원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홍보 부족일까.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선기획은 공연 한달전부터 교계 언론을 비롯한 중앙 일간지와 SBS-TV의 5차례 광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행사를 알렸다. 또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대불련 등 청소년 교계 단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나 공연 내용도 시나위, 김경호, 카르마 등 국내 록 정상급이 출연했고 관중들도 무대위의 가수들과 함께 열광하는 등 반응도 좋았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관중 동원 실패의 원인은 교계의 무관심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툭툭튀고 재기발랄한 청소년들을 불교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포교방편만으로는 힘들 수 밖에 없다. '록페스티벌' 같은 신세대 감각의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도 급변하는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포교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록 페스티벌'이 관중 동원에 실패했다고 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횟수를 더해갈수록 알찬 프로그램과 매끄러운 진행 등 관록있는 운영으로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불자들을 키워내는데 교계가 합심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jikim@byddhapia.com)

열린마당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창설 10주년
'자원봉사 활성화' 심포지엄

"종교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은 종교적 특성을 살리면서 독자적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과 종교인들의 인식 및 조직과 인력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는 창설 10주년을 맞아 5월28일 '종교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는 물론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에 이르는 4대 종교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으며, 이들 방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개진됐다. 각 종교별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보살도 실천=사회봉사' 인식제고 필요

불교 ◇발제: 박경일(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교자원봉사활동의 사상적 기반은 인간존엄성으로서의 생명존중사상, 자발성으로서의 보살도, 무보수성으로서의 무주상보시관, 이타성으로서 사무량심(四無量心)에 의한 자비관, 사회연대성으로서의 연기관, 실천성으로서의 사섭법, 계속성으로서의 복전관의 7가지이다.

불교자원봉사활동의 의의는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한 보살도정신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적 역할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 인류전체의 복지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에 있다.

불교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단차원에서 현재 활동자와 잠재적봉사자 그리고 공급주체들에 대해 인재, 활동사업, 정보, 법세제, 재정면의 자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첫째 조계종단 산하의 학교법인과 자원봉사 협력교를 지정하고, 둘째 1사찰 1봉사단, 1신도회 1봉사단 조직화 운동을 활성화, 셋째 사찰내 자원봉사부 스님의 임명과 승가대학이나 포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사회복지강좌나 자원봉사과목 개설, 넷째 불교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증액과 보시함 Ten-Ten운동(보시함 보시물의 10%를 자원봉사 예산으로 투입), 여섯째 프로그램 및 불교적 용어의 프로그램명 개발 보급, 아홉째 심리적 보상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봉사자 기념품(훈장) 수계증 형식의 수료증 제작 배포, 열째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정보교환과 명확한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불교사회공헌활동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

◇토론: 혜도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처 혹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와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봉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교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불교계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봉사처 확보 및 봉사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개 등의 과정이 이어지기 위해 인식 제고는 필수적이다.

봉사를 문화활동으로 정착

가톨릭 ◇발제: 권복순(대구효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대상자 중심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라는 봉사자의 정신적 자세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동정심에 치우친 봉사자의 자세와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설중심의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심단체와 교구차원에서 설치된 전담기구 두 가지 경로로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21세기를 대희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과 함께 구체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적 활동으로 정착시키고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토론: 류기형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힘의 분산을 의미하고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교회내, 또는 교회들간, 그리고 지역간, 전국차원의 '네트웍 시스템'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쟁점이 되고 있는 '내부대상자 중심'의 경향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교회시설의 사회화 급선무

기독교 ◇발제: 전광현(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교회는 '하늘 신앙'만 강조해 왔지 '이웃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것은 곧바로 사회봉사를 가로 막는 요인이 돼왔다. 또 전도에 치우친 나머지 적극적인 사회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별교회의 발전구조로 인해 교회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해 온 경향도 사회봉사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 개인주의, 개인구원주의 등에 대한 바른 신앙관·교회관의 정립, 사회봉사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 전략과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이 있어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내용의 확립과 예산 책정, 교회시설 자원들에 대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화, 교회들간의 이해와 협동 등도 수반돼야 할 조건들이다. 교회를 사회봉사의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시설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봉사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지역민들의 기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갖는 권위가 사회봉사에 대한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교회의 사회복지 전망은 밝다고 말할 수 있다.

교단차원 봉사교육 다양화

원불교 ◇발제: 원석조(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불교 자원봉사는 원불교 봉공회와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 활동으로 대별된다. 전자가 교도들의 조직이 주체가 된다면, 후자는 교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봉공회의 경우 자체 시설 기관이 없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원불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확보와 실효성있는 자원봉사 교육,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본질과 의의에 대한 교육, 가정주부 직능자 원봉사자의 경우 복지관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또 원불교 교단이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총부에서 자원봉사 총괄기구 역할과 자원봉사 교육 실시, 원불교 봉공회의 사회봉사기관으로 성장 지원 등을 답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

◇토론: 박광준(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각 종교는 독자적인 자원봉사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봉사로서의 자원봉사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사회참가로서의 자원봉사나 공동체형성의 교육으로서의 자원봉사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과학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과학화의 핵심은 '대상자선정의 과학화'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자원봉사의 차원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소리없이 팔리는 책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입문편 —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쥬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201 - 생활불교편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502 - 문화·학술편 —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102 - 교리·입문편 — 법수로 배우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1 - 문화·학술편 — 불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401 - 문학편 — 허공의 딸꾹질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301 - 선(禪) —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303 - 선(禪)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손재현무용단 창단기념 무용극 '넋의 소리'가 3·4일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됐다. 사진은 종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인 장면.

불교무용극 '넋의 소리'

에밀레종의 불심 몸짓언어 형상화

손재현 불교무용단 창단공연 갈채
6월30일부터 네덜란드 등 공연

창작 발레와 연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불교 무용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을 표방한 '손재현 무용단'이 창단을 기념해 3·4일 양일간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넋의 소리'가 바로 그것. 김흥우교수(동국대 연영과)의 원작에 신영섭교수(동국대 연영과)와 손재현교수(동국대 체육학과)가 각각 연출과 안무를 맡은 '넋의 소리'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작품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넋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정아의 인신공양으로 종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몸놀림이 돋보인 이번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종불사에 딸을 바친 정아 어머니의 불심과 모성애 사이의 갈등을 애절한 몸짓으로 형상화한 장면. 이 대목에선 청중들도 함께 괴로워 하는 듯 객석에선 적막이 감돌았다.

이번 공연에는 교사와 무용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20명의 '손재현 무용단' 단원외에 탈춤 동아리 회원, 연극영화과 학생 등 총 30여명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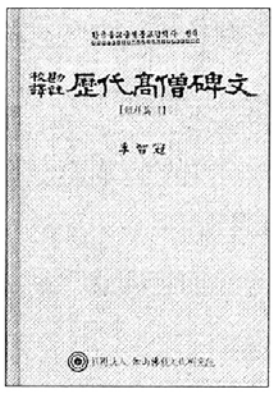
특히 손교수가 이번 작품에 대사가 있는 연극을 삽입한 것은 신체언어인 무용만으로는 관객들이 기획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교수는 또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무용극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공연후 찬반의 양극화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재현무용단'은 이번 창단 공연에 이어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넋의 소리'를 부분 각색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고승비문 조선편' 처음 나왔다

보각국사-무학왕사-사명대사 비문등 23기 담아
가산불교문화硏 '한국불교 금석문 시리즈' 완결



학계 최초로 고승비문을 교감역주해 관심을 끌었던 한국불교금석문시리즈의 완결편인 〈조선편Ⅰ〉이 나왔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등 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찾는 책이 된 금석문시리즈 중에 이번에 발간한 조선편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의 고승비문을 정리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금석문시리즈 〈조선편Ⅰ〉의 출간은 침체되어 있던 조선조 불교연구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펴낸 〈조선편Ⅰ〉에는 청룡사 보각국사 환암 정혜원응탑비문, 회암사 무학왕사 묘엄존자탑비문, 해인사 사명대사석장비문, 백화암 청허당 휴정대사비문, 표충사 서산대사비문, 보현사 편양당 언기대사비문 등 조선조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비문 23기가 실려있다. 연구원은 자료화 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조의 고승비문을 문헌자료는 물론 직접 비문을 찾아 탁본까지 하면서 수집해왔다. 이에 따르면 비편을 제외한 조선시대 고승비문은 200여기에 달한다. 고려시대 비문과 비교해 볼 때 조선조의 고승비문은 크기나 화려함은 물론 비문의 내용이나 문장 역시 유생들이 몰래 작성하는 등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관스님은 조선편시리즈의 나머지 편들을 내기 이전에 조선시대 고승비문 200여기의 전문을 전부 모아 〈조선시대 스님비문〉 총람을 만들고 나서 2~3년 간에 걸쳐 교감역주 작업을 추진해 조선편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일로 개원 8주년을 맞는 가산불교 연구원이 93년부터 발간해온 한국불교금석문시리즈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에는 신라편-11기, 고려편Ⅰ-15기, 고려편Ⅱ-17기, 고려편Ⅲ-26기, 고려편Ⅳ-25기, 조선편Ⅰ-23기 등 총 117기의 고승비문 원문과 해석 등이 실려있다.

〈조선편Ⅰ〉과 함께 故 최원식 연구위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의 유고인 '조선시대 승려 비명 및 행장 일람'이 실린 〈가산학보〉 7집도 출간됐다.

개원후 8년간 연구원이 주력해온 불교대사림 편찬, 학술연구, 교육, 출판, 교화의 5대 사업 가운데 금석문시리즈는 학술연구 출판분야의 성과물이다.

"한국불교사상 체계화 정지작업으로 역대고승비문 자료정리를 마친 것이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라는 지관스님은 "'삼장의 본격연찬도량'으로 나가기 위해 20여명 안팎인 연구자들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불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포럼과 국학세미나,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도 주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직지사 성보박물관 재개관

수장고 보관유물 130여점 전시실 공개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성보박물관(관장 홍선스님)으로 재개관했다.

직지사는 96년에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전시실과 보존실을 개설하지 않아 유물 대부분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지난 1년여동안 특수조명과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1백여평 규모의 전시실을 신설하는 등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 기념전'을 개최한 것.

'박물관 재개관기념전'에는 국보 208호인 통일신라시대 금동 육각사리함과 보물인 신라말기의 금동자물쇠, 석조 약사여래불상, 예념미타 도량참법, 경북도 유형문화재인 석조나한상 등을 비롯 130여점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금동 육각사리함. 74년 선산 도리사에서 발굴돼 국보로 지정된 이 사리 함은 대개 4각 형태의 사리함과 달리 6각이며, 각면에는 6명의 보살, 사천왕상 등이 정교하게 선각돼 있어 미술사상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또 금속·석조예술을 가늠할 수 있는 상원사·실상사 동종의 비천상과 상주 남산 석각 천인상 등의 탑본 코너와 지광국사현묘탑·난공대사백월서운탑·낭혜화상백월보광탑 등의 비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탑본 코너도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재개관한 직지사 성보박물관 전시실 전경.

이상규 학예연구실장은 "직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보는 대부분 석탑, 비석 등 석조물"이라며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금석문' 전문박물관으로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맹란자씨등 수필가 9명 중국문학기행첩 출간

허세욱, 맹란자씨 등 9인의 수필가가 중국 문학기행을 하고 쓴 기행첩이 나왔다. 문학동인 충인회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중국 상해, 남경, 황산 등 강남지역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쓴 〈서호로 가자스라〉(생명의나무)가 바로 그것. 기행은 120년전 서구의 문명이 들어와 동방의 진주로 개발됐던 상해의 외탄과 함께 80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로 한민족 수난의 현장인 상해에서 부터 시작된다.

중국 최고의 고전소설 〈홍루몽〉의 요람인 우룽탄공원, 중국 최고의 화선지 산지 선주,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쌓았다는 소제를 비롯 송나라 시인 임포의 방학정 등이 유려한 필치로 그렸다. 전문가의 사진솜씨가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숙현씨 15년만에 펴낸 희곡집 '새는 동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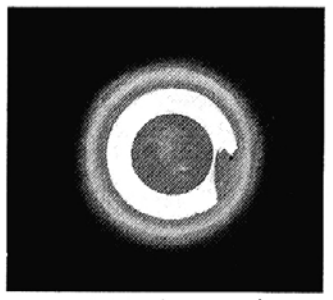
김숙현씨가 15년만에 희곡집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부산일보사기획출판국)를 펴냈다. 이 희곡집에는 88년 제33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젊은왕자의 무덤'을 비롯 11편의 희곡들이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환하여 환하여'는 원효대사의 득도와 파계를 뛰어넘어 해탈과정을 극화한 작품이다. '나팔소리는 계속되고'와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는 정치인을 가장으로 둔 가정, 그 권세의 허상 아래 희생되는 두 여인을 모티브로 한 연작 형식이다. '나팔소리는…'는 정치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딸이 직접적인 희생물이라면 '새는 동굴에서…'는 헌신적인 내조와 자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가 희생자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문화 단신

장성진 '내면의 풍경展'

무명(無名)한 생명들이 사는, 불가사의와 침묵의 세계를 상상케 하는 장성진 회화전이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장성진作 '내면의 풍경'.

'내면의 풍경-내 허무속에서 자라는 바람기'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묘사보다는 감정의 이입을 강조한 선과 면으로 명상이미지를 담은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박주화 '암자로 가는 마음展'

암자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신을 서정시를 읽는 것처럼 포근하고 아름답게 형상화한 박주화씨의 '암자로 가는 마음' 전이 4~15일 부산 영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가와 차꽃과 하나가 된 초의선사의 혼이 남아있는 대흥사 일지암 등 전국 30곳의 유명암자들이 시화처럼 화폭에 펼쳐지고 있다.

김광부교수 '인도 사진전'

인도의 자연과 참영혼을 담은 김광부교수(서울예전 사진과)의 사진전 '영원의 세계, 인도'가 9~23일 서울 중구 코닥포토살롱에서 열린다.

김교수는 9일 사진전 오프닝 행사로 사진집 〈영원의 세계, 인도〉 출판기념회도 마련한다. 사진집에는 작품사진 172점이 수록됐다. (02)708-5633

김한용 사진집 '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보수하기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집 〈석굴암〉(눈빛출판사)이 출간됐다. 석굴암을 개·보수하기 전인 1953년에 촬영된 사진 45점이 수록된 이 사진집은 원로 사진작가 김한용씨가 발간 한 것. 석굴암 전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흑백사진에서 본존불과 사대천왕 등이 섬세한 명암의 대조를 통해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김창배 선화집 '한국의 달마'

선종의 초조 달마선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한국의 달마〉(이화문화출판사)가 발간됐다. 독특한 필치로 그린 달마도로 명성이 높은 김창배 화백의 작품 180여점이 수록된 이 책에는 서역인의 모습이 아닌 친근한 한국적 달마의 수행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또 김화백은 우리의 정서와 맞는 '한국의 달마도법'도 설명해 놓았다.

작명
韓國人의 作名寶鑑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름이 사람에 미치는 5대 원칙의 진수 수록
★작명비법의 원리를 배우고 싶은 분,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 스님,일반인, 누구나 필요한 책
★초보자도 각 성씨별로 작명의 5대 원칙에 맞추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금농 선생이 35년 연구한 비법(수리 배열 등식)을 수록 공개!
★저자에게 작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작명우대권 증정
★불자 신도 작명 우대

·저자 : 金農 김 관 희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온세 감평 ※동양철학 개인지도

等身 金串禧(김환희) 이야기
철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인생을 보다 멋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야기 !

◐ 심신건강 비법! ◐ 공부 승진 입학 비법!
◐ 기 흡수 비법! ◐ 사업 성공 비법!
◐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스트레스 해소 비법!
◐ 한을 푸는 비법 ◐ 후회 없이 사는 비법!
◐ 현세와 내세를 다 잘살수 있는 비법 수록

·저자 : 金農 김 관 희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판매처
(주)금농기획 0502)755-7700, 753-8482
053)753-8482 팩스 053)815-6729

국민은행 618-24-0095-319
농 협 720-02-217381 예금주 : 김 관 희

솔잎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옹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솔잎양조식초 ◎영업허가:여주제20호
◎원료명:솔잎 100% ◎총산도:4° ◎용량:1.5ℓ
▶온라인 :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삼경

♣제조원 : 삼 송 식 품
♣문 의 :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명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융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탁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시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청림 산악회 결성
에 대하여… (가칭)

회원스님 여러분 법체는 건안 하십니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순수한 모임을 갖고저 몇몇회원 스님들의 제의로 (가칭)청림 산악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좋아 산으로 출가한 마음으로 등산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들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날짜 ;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통도사 입구 알프스 관광 호텔 커피숍
T. 0523)382-6161
◎ 회비 : 3만원
◎ 차림 간단한 등산차림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청림 산악회 결성 발기인 공동 준비위원
(명칭생략)
영하 상덕 현대 대우 도각 무애
법민 관우 세연 각현 산제 동하 이상

새로나온 책



▲금강경 연구= 〈산스크리트 금강경〉 〈몽고본 금강경〉 현장의 한역본 〈금강경〉 등을 번역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진오 스님이 10년만에 내놓은 완전 개정판. 1부에서는 금강경의 모든 판본에 대한 금강경의 변천사와 이유를, 2부에서는 금강경의 모든 주석서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다루고 있다. 진오스님 지음 〈출판시대 刊, 값 1만2천원〉



▲이것이 불교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의 기초상식을 한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개괄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에서부터 대승불교의 흥기와 확립, 선불교의 탄생과 확립,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전개 등이 설명되어 있다.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로서 충분하다. 김성규 지음 〈이사금 刊, 값 8천원〉



▲일본의 정토사상= 일본 불교사상, 그중에서도 신란(1173-1262)에 의해 이루어진 정토사상에 대한 연구서. 영어로 출간한 〈신란의 이해-대화적 접근〉을 수정 보완해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중국불교 한국불교와 결정적으로 구분해 주는 일본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일본의 정토불교가 갖는 기독교와의 공통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길희성 지음 〈민음사 刊, 값 1만원〉

"고통이란 어떤 것이냐" "자아위협 불만족 상태"

장프랑수아 - 마티유 父子대담집 '승려와 철학자'

서양인들이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최근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승려와 철학자〉가 해답을 제시한다. 철학자 아버지 장프랑수아 르벨(75)이 출가한 아들 마티유 리카르(53)와 20년만에 만나 열흘간에 걸친 삶, 죽음 등 인생 본질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불교의 진수를 전한다.

96년 네팔 카투만두에서 철학자인 아버지 장 프랑수아 르벨과 생물학자로서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험난한 수행의 길로 들어선 스님인 아들 마티유 리카르의 대답으로 이뤄진 이 책을 '왜 출가했느냐'로 시작된다. 〈승려와 철학자〉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장-프랑수아: 최고 수준의 과학문명을 공부한 네가 갑자기 동양사상으로 인생을 선회한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마티유: 과학적 경력은 '발견'에 대한 정열의 소산이다. 과학에 제 삶을 나눌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이상 제 삶을 몽땅 연구에 바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새장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고 '나에게 자유를'이라는 한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건강, 권력, 성공, 돈, 감각적 쾌락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서도 외적인 평화의 원천이 되는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장-프랑수아: 고통이란 어떤 것이냐.

마티유: 고통은 심원한 불만족의 상태로서, 육체적 고통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진적 체험이다. 고통은 자아가 위협 받거나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가장 강렬한 육체적 고통도 정신자세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다. 권력, 부, 쾌락, 명예 따위는 일시적 만족을 가져다 줄 뿐 곧 불만으로 바뀐다.

장-프랑수아: 공(空)과 무(無)는 무엇을 뜻하는가.

마티유: 무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 공은 그렇지 않다. 공은 곧 보편적인 가능성, 우주, 존재들, 운동, 의식 등을 의미한다. 만약 궁극적인 본성이 공이 아니라면 발현은 전혀 이뤄질 수 없다. 공간이 없으면 가시적 세계가 전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경전에서 '공이 있으므로 곧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장-프랑수아: 죽음은 두려운 것이냐.

마티유: 죽음은 상당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초심자에게는 두려운 원인이다. 하지만 전생애를 바친 수도자는 평온하게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은 친구같은 존재, 삶의 한 단계, 단순한 옮겨감일 뿐이다.



◇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와 티베트 스님이 만나 열흘간의 대화를 통해 동양불교와 서양철학, 행복과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책.

이 책은 '불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서부터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애덕은 어떤 관계인가',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닌가' '폭력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등 이야기마다 흥미진진하다.

아버지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떠난 마티유의 선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서히 터득하게 된다. 마티유가 심도있는 불교수행을 통해 모든 형이상학이 공허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 아버지의 생각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이 대담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아버지는 지혜로서의 불교에 대해 감탄을 하고, 최근 서양에서 불교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게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승려 마티유는 "아무리 분명한 대화라 할지라도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개인적 체험의 침묵을 대신할 수 없다. 체험은 곧 길을 뜻한다.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창작시대 刊,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황수영 전집 여섯째권

불교문화재 가치 역설

인도일기



한국미술사학계의 원로인 황수영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50년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전집(전6권)이 완간됐다.

황수영전집 제6권으로 출간된 〈인도일기〉는 인도일기, 미국기행, 민족문화와 불교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인도일기는 저자가 석굴암 수리공사를 맡으면서 석굴사원의 발생지인 인도의 사원을 참고하기 위해 62년 12월부터 63년 5월까지 인도와 실론, 파키스탄, 네팔 등을 돌아본 여행기로 불교유적지와 풍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2부 미국기행은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우리 불교문화재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모든 사람이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애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미국 박물관에 대한 부러움도 서려 있다. 3부는 민족문화와 불교미술은 국보·보물등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단상을 담은 '국보와 보물의 관리' '민족문화와 문화유산' '동양미술과 불교' 등 한국 미술사 전반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다. 〈혜안 刊, 값 3만5천원〉

"북녘 밟고 있는 나는 꿈속의 사람이었구나"

고은 '산하여 나의 산하여'



보지도 않은 백두산을 7권의 서사시로 노래했던 고은시인이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북한을 보고와서 순례기 〈산하여 나의 산하여〉를 썼다.

서두부터 "꿈이었다. 조국의 절반인 휴전선 이북의 땅 여기 저기를 실컷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꿈속의 사람이었구나"고 운을 뗀 저자는 처음 접한 조국의 참모습을 시종일관 시적인 어조로 노래한다. 3천5백km에 이르는 고은시인의 북한순례는 굉양을 출발점으로 백두산 천지를 보고, 금강산에 입문한다. 신계사, 만물상, 장안사 표훈사에서 저자는 "금강산은 자연이 아니라 예술이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천강을 거쳐 조선불교의 큰 스승인 서산대사의 묘향산에서 순례는 끝난다.

백두산과 금강산이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본문 사이사이 '백두산' 등 9편의 시가 수록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북한의 풍경과 거리 모습을 담은 70여장의 컬러사진도 볼거리다. 이 책은 '고은의 북한탐험'이란 제목으로 98년 8월 12일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됐다.〈중앙M&B 刊, 값 8천원〉

불교출판협 불서전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스님)는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도서전시회를 개최한다.

1천여권의 불서가 전시 판매될 이번 전시회에는 민족사, 운주사 등 40개사가 참여하며 저자와의 대화 및 사인회, 강연회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10% 할인판매되는 이번 전시회의 전 수익금과 각 출판사의 법보시를 받아 약 5천여권의 불서를 마련, 사찰 10여곳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교출판협의회는 불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본사가 결치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매년 연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99 서울 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책잔치인 99서울국제도서전이 1일부터 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COEX)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책으로 열자, 새로운 천년'이란 주제로 열린 도서전에서 18개국 191출판사가 참가, 20여만권의 책이 선보였다.

화제의 책

용성 | 김광식 지음



대각교 운동 제창한 용성스님의 삶

일제치하란 척박한 시대상황속에서 꿋꿋이 불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고자 했던 근대불교의 상징인 용성스님을 재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용성〉은 스님 삶의 궤적을 담고 있다.

일제치하 식민불교를 극복하고자 민족불교를 내세워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던 스님. 대각교를 표방해 불교를 재해석 재창조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교단의 정화운동을 전개했던 스님, 사찰경제의 활성화와 농촌포교의 대중화를 위해 선농불교를 제창한 스님의 발자취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 책은 구도자로서의 삶과 민중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로서의 용성스님이 한 순간도 불교와 시대적 고민을 놓지 않고 살아갔음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민족사 刊, 값 7천원〉

오직 모를뿐 | 은석준 옮김

불교적 해법담은 숭산스님 서한집



28년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편지를 통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숭산스님 영문 서한집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담긴 질문 폰지와 그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들이 담긴 답신이 실려 있다. 숭산스님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프로비던스선원에서는 스님에게 온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공개를 꺼리지 않는 한 답신과 함께 세계 각처 선원에 정기적으로 배부되고, 편지 내용을 읽는 것이 조석수련의 일과로 되어 있다. 이 편지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수록한 서한집은 외국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선수행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불병자리 刊,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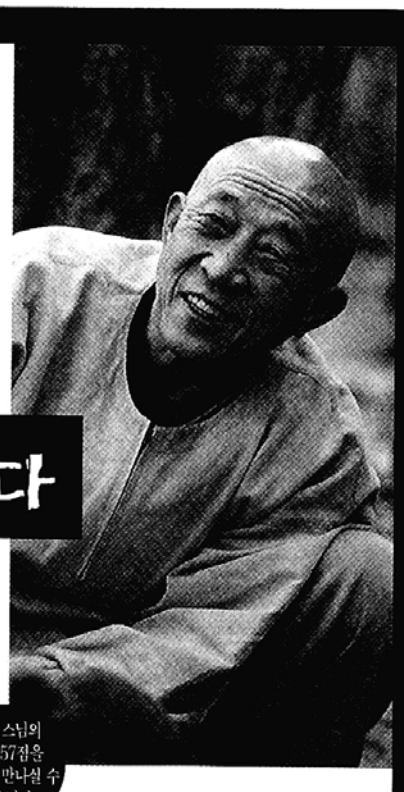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승려와 철학자	이 용 철	창작시대
3	타래	보 현	찬 섬
4	선문촬요	이 철 교	민 족 사
5	파란눈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김 종 명	예문서원
6	한국의 불교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7	인연이야기	삼 중	문학수첩
8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9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10	밀린다왕문경	청 안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곁에 왔습니다



국판/264면/8,500원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 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수안 스님의 작품 57점을 컬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도 평생을 만족해하며 살아온 지체 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의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솜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돋아나는 쑥 한 뿌리….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깊은 심상을 그리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글과 그림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저자의 말 중에서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사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1-3 남산빌딩 2층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

종교학회·교불련 세미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가 한창인 요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20세기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세미나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정치경제·사회복지·전통사상적 측면으로 접근해 5월31일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를 대주제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5월29일 오전에는 공동주제 발표회를 오후에는 불교 유교 도교 등 각 분과별 발표회를 가졌다.

"인류공생의 길은 팔정도 실천"


◇박경준 교수


◇이재헌 박사

종교학회 불교분과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모색-박경준 교수=열반이 불교의 최고 선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둔명적 대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 탈직한 인류문명은 '열반 지향의 둔명' 또는 '열반문명'이라 할 수 있다. 팔정도에 대한 분석은 열반 둔명의 큰 방향을 가늠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열반문명은 오늘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및 우리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열반문화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각종 대중매체와 소비지향적인 대중문화, 보는 스포츠 열풍을 적절히 통제하는 대신 들뜬 사회를 진정시켜줄 명상문화(또는 선정문화)와 심성문화의 흐름을 만들고 명상산업 또는 심성사업이라 이름해도 좋은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시켜야 한다. 또 교육 문제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열반지향의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첫째 대중의 삶과 사회현실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참여불교로 거듭나야 하며, 응용 실천 불교학 분야를 강화하고, 둘째 사찰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백팔보시'(자신의 수입 중 100분의 8을 재적사찰이나 불교단체에 정례적으로 헌납하는 것)제도 확립, 셋째 〈통일불교성전〉 발간, 넷째 불교도 환경 실천 지침 제정, 다섯째 출가자의 계율 정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불교인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확대되고 공고해져야 한다. 불교가 새로운 불교적 문명의 흐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적 조직과 연대가 더욱 절실히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 불교개혁 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이재헌 박사(정신문화연구원)=권상로로 한용운 이영재를 중심으로한 불교개혁과 러다임의 공통적인 의의는 첫째 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불교인의 정신적 자각, 둘째 통일적인 교단의 건설, 셋째 포교와 교육 중시, 넷째 불교의 평등주의 강조 등이다. 이들의 불교개혁론 한계는 개혁 모델 설정 과정에서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경계가 너무 지나쳐 모방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명상문화사업 육성 '들뜬 사회' 진정
"불교인 철저한 역사인식 필요하다"

한국 불교사상 최대의 법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억불책과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 정법 수호를 위한 조직적인 반발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국가 권력과 밀착된 한국 불교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해방이후 최근의 정화개혁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불교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인들이 철저한 역사 인식과 종교문화적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불교학의 진흥이 필요하다. 학문을 통한 비판적인 자기 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일제의 사찰령이 남긴 조직의 관료성을 청산하는 것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불교 종단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교불련은 5월31일 봉축기념세미나를 열었다.

교수불자련

▲기조발제-고준환 교수(경기대)=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수련 과정으로 조심(調心), 조식(調息), 조신(調身)의 조삼법(調三法)이 있다. 조심은 마음공부이며, 조식은 호흡공부, 조신은 조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삼법이 있다. 인간의 자기 전개법칙으로서 자치법(自治法), 자타공존법칙으로서 공평법(公平法), 사회유지발전 법칙으로 신의법(信義法)과 평화변경법을 합친 평화법이다. 이 사회삼법과 불피해행, 인격예우, 약속준수의 사회삼륜을 현대사회의 기본윤리로 삼자.

세계의 경제체제는 하나의 통화체제를 전제로 불교적 경제체제인 화합중(和合衆) 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심익섭 교수(동국대)=미래 한국불교가 정치경제적 역할과 관련해 고려해야할 점은 첫째 정치와의 관계나 자본주의 논리로부터의 자주성 확보, 둘째 불교 내부적 정치 매커니즘의 합리화, 셋째 불교의 대외적인 정치경제 역할 재정립, 넷째 종단정치의 교차원 지혜 필요, 다섯째 21세기 불국토 건설을 위한 불자 원력의 총체적 규합, 여섯째 투명한 종무행정 재정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열린자세 견지, 일곱째 재가불자들의 역량 강화 등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불교는 인간과 인간의 화합과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선업을 행하게 한다. 그렇기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현대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교가 21세기 복지사회의 건설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의 현대화와 사회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불교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사회구조적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토사상적 측면-지광스님(능인선원)=현대의 물질적 세계관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은 부처님 말씀에 있다. 〈대방등 대집경〉에서 부처님은 대지정기(大地精氣)라 하여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 중생정기(衆生精氣)라 하여 욕망과 탐욕에 오염된 마음의 정화를, 정법정기(正法精氣)라 하여 깨달음과 자비실현의 수행 정진을 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불교교육 이상으로 인류를 변모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 알아야 수행을 하고 가르쳐야 수행을 하고 배워야 수행을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교육 이상의 교육은 없다"
불교적 和合衆 경제체제 수립해야

"종교 배타성 구조조정 1순위"

최준식 교수 '한국의 종교 존재당위성' 발표



우리나라 종교계야말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이다. 20세기말 21세기초에 인간 그것도 한국인으로 산다는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종교기관이 극히 드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조조정에 외부세력은 어느 누구도 관계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종교가 국민들에게 영혼의 사회적 및 초월적 안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종교 역시 어떤 식으로든 내적인 조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각각의 종교들이 철옹성을 싸고 다른 종교가 어떻든 사회가 어찌되든 상관않고 배타적인 자세로 그 안에 안주하면서 종교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인데 불교는 전근대성, 기독교는 토착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 주말 절을 찾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포교에 따로 신경 쓸 필요없이 불교신도의 증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는 겉모습은 기독교일지 몰라도 그 내부는 유교식의 가부장제 문화와 배타성으로 똘똘 뭉친 편협성,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광기만이 넘칠 뿐 한국적인 기독교문화는 아직 태동되지 못했다. 스스로가 한국적인 기독교인이 되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異敎)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믿는 전도된 세계관을 버려야 한국적인 기독교문화를 태동시킬 수 있다.

"경허의 정신 새 시대의 좌표"

불교선학硏 학술회의서 최동호교수 주장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은 그 이전의 세기적 전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21세기에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불사나 벌이고 스스로는 명리 추구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경허와 같이 대발원을 세우고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교적 깨달음을 증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할 것이가."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이 경허대선사 열반 87주년을 맞아 5월28일 개최한 제1회 한국불교선학학술회의에서 '경허의 선적 계보와 화두의 시적 해석'을 발표한 최동호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경허의 선사상, 선정관, 결사운동, 불교사적 위치 등이 발표됐다.

〈논문은 부다피아에 수록〉

"근본불교와 대승 다르지 않다"

한국불교학회 세미나서 조용길교수 주장

"불타의 근본사상에는 대승도 소승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의 파악과 규명에 그 이론적인 측면이 불교철학적이론 전개였고, 그 심성적 수도, 수행, 심성계발이 불교의 종교적 측면이며, 그 불교의 실천적 측면이 불교의 윤리적 측면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사무량심(四無量心) 실천이 있다. 사법인 사섭법 사성제에 나타나는 무아사상의 연기적 중도관은 공 반야로 이어지는 대승의 근본이 되어 있음을 간파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불타의 진리성을 알아야 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가 5월28일 개최한 제31차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 조용길 교수는 '근본불교와 대승정신의 본질'에서 불타의 진리는 근본불교와 대승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목정배 교수(동국대) 등이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비판불교는 경전이해 선행돼야"

고려대장경硏 '비판불교' 세미나서 제기

"마츠모토 박사, 다카사키 박사 등 비판불교학자들은 경전의 해석에 있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비판불교가 비판하고 있는 이론들 자체가 경전에 대한 비뚤어진 이해에서 오는 것이다. 비판불교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5월29일 개최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에서 안승준 박사(동국대)는 '불교에 있어서 비판적 방법론의 전통과 비판불교자들의 비판적 방법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 사회윤리적 관심으로서의 비판과 장소론'(심재관 박사)도 발표됐다.

6차까지 열리는 세미나에서 비판불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술단신

진각논문 작성자 선정

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은 5월 25일 제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전 논문계획서 심사를 실시, 남희숙씨 등 6명의 논문작성자를 선정 발표했다. 6명은 4개월간의 논문작성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회를 개최하며 12월중 시상식을 갖는다. 논문계획서 당선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남희숙=조선후기에 간행된 다라니경과 진언집에 대한 연구 △김성관=적호의 진실강요에 나타난 세계기원론 비판 △임승택=초기불교와 요가수트라의 선정관에 대한 비교연구 △강종원=나가르주나의 논리에 있어서 성언량의 필연성 여부에 대한 고찰 △권기현=인도불탑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 △강명희=아비달마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태-성종시대 미술발표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태 성종시대의 미술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창균 위원(문화재관리국)이 태·성종시대의 공예를, 이원복 미술부장(국립중앙박물관)이 태·성종시대의 회화를 각각 발표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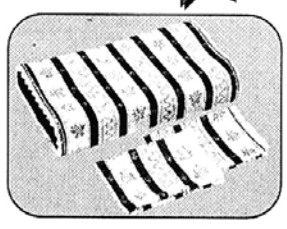
가야 피라미드 황토방

고대 이집트의 신비 피라밋과 황토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피라미드 황토방에서
"생동하는 기를 느껴보십시오."

혈액흐름을 촉잔한다.
통증을 완화한다.
공기를 청정하게 해준다.
물을 연수(軟水)화 시킨다.
진정, 안면효과가 있다.
+
신선도 향상
원적외선 생성
집중력 향상
싸앗의 발아생장촉진
탈수현상에 의한 미라효과
=

사무실 : 경남 창원시 대원동 94-8
T. (0551)276-7686
H.P (011)840-3016

디론 한방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의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런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짧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 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세광산업(주) 주문처: 02)766-8273~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용린佛字체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와 그림, 觀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觀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마음작용 소멸되면 '무여열반'

경전 속의 禪 사상 21

진여성 증득위한 17가지공관 안내

아뢰야식·중도·해탈얻는 길 설명

해심밀경 ㊦

글쓴이



묘 주

〈동국대, 강사〉

사마다(止)와 위빠사나(觀)는 함께 닦아야 한다. 사마타만 있고 위빠사나가 없으면 그 사마타는 영상의 포로가 되고, 위빠사나만 있고 사마타가 없으면 그 위빠사나는 사실 그대로의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둘을 함께 행하여 사마타의 상태 위에 나타난 영상이 위빠사나의 인식대상이어야 한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른 수행법의 차이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법에 차이가 있다. 총명한 근기의 수행자는 법에 의지하는 지관을 행하고, 둔한 근기의 수행자는 남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므로 믿음에 의지하는 지관행을 닦는다. 또한 총명한 근기의 수행에도 별법(別法:한 경전의 교설·불교 各論)보다 총법(總法:일체경의 교설·진여)을 반연하는 지관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일대교설의 핵심·취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연기·무아·공·중도 등의 진리를 관통하여 사유함으로써 진여·보리·열반에 수순하고 나아가며 증득하도록 해야 한다.

▲고법과 관찰 대상자인 영상의 현현과 제거의 필요성

인도불교에서는 교와 선이 둘이 아니었다. 늦다의 교설(敎)을 사유 관찰하는 것이 선(禪)이었다. 그러므로 지관 수행에 들어가서 위빠사나의 대상, 즉 관조(觀照)의 대상의 곧 경전에 설해진 교법과 그 이치이다. 〈해심밀경〉에서는 알아야 할 교법(法)과 관찰 대상(義)에 대한 영상을 현현하고, 그 현현된 영상은 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설한다. 지관을 행할 때는 관조의 대상에 대한 영상이 현현해야 한다. 십지 이전에서는 영상이 현현될 정도로 사마타의 몰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현현된 영상을 제거해야 한다. 지관 수행중에 현현된 영상을 제거해야 한다. 지관 수행중에 현현된 영상을 없애지 않으면 무루(無漏)의 무분별지혜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전에서는 현현된 영상을 없애고 진여성을 증득하기 위한 17가지 공관(空觀)을 설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교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해밀심경〉의 제목이 '심오하고 비밀스런 진리를 해석함'이란 뜻인데, 그 심오한 진리를 이론문인 제2 승의 제상품·제3 심의식상품·제4 일체법상품·제5 무자성상품에서 밝힌다. 제2품에서 승의(勝義) 즉 일체법의 참다운 성품인 진여의 양상에 대하여 밝힌다. 진여는 현상계이니 본체계이니 하는 2가지 차별된 모습이 아니고, 사려 분별이 작용하는 경계를 초월한 것이고, 모든 것에 두루하고 한 맛으로 평등한 양상임을 말한다. 제3품에서는 공성(空性)이 성립하는 장(場)으로서 식(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범부의 정신세계, 특히 삼층식인 아뢰야식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다. 우리들의 모든 인식과 행동의 결과가 종자로 아뢰야식에 저장되고, 이 식이 윤회의 주체임을 밝힌다. 제4·5품에서 삼성 중도의 이치를 밝힌다. 현상과 본질의 세계를 변계소집성(집착과 미망의 세계)·의타기성(연기의 세계)·원성실성(깨달음의 세계)으로 나누고 그 유(有)와 무(無)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중도의 이치를 설한다.

▲지관 수행의 장애와 다스리는 방법

사마타의 장애는 들뜸·후회·신체와 재물에 집착함이다. 위빠사나의 장애는 혼침·수면·의심, 그리고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교의를 판별할 수 없어서 궁극적인 경지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장애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할 때는 싫어할만한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사유하면 들뜨는 것이 저절로 가라앉아 고요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침체·혼침될 때 기뻐할만한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사유하면 혼침에서 벗어난다.

▲지관의 기능과 증과

지관의 기능은 인식적 속박과 존재적 속박에서 하는 것이다. 즉 청정한 계율, 들어서 이루는 청정한 지혜·사유해서 이루는 청정한 지혜로 지관을 수행함으로써 형상에 의한 인식적 속박과 번뇌종자에 의한 존재적 속박에서 해탈하게 한다.

끝으로 지관행이 이끌어내는 6가지 광대한 위덕으로써 마음이 일어나는 것·마음이 머무는 것·마음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속박을 다스리는 마음이 증장하는 것·속박에 잡염된 마음이 감소하는 것·마음 작용의 범주를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을 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느낌의 작용이 소멸되면서 무여의열반에 들어감을 밝힌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②

무지에서 공까지 ㊦

해탈로 가는 데는 세 개의 출입구가 있다. 차별상이 사라진 해탈, 원하는 바가 없어진 해탈, 그리고 비어있음을 깨닫는 해탈이다. 덧없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를 차별상이 사라진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괴로움을 온전히 깨달으면 원하는 바가 없어진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내가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비었음을 안 데 기인한 해탈이라 한다. 각기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셋 모두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탈한다는 것은 또한 불행한 순간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또 우리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한다.

완전히 해탈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행동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온갖 의도나 목적에 유의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겐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한다'는 관념이 없다. 나를 여의고 난 뒤의 생각 그 자체, 말 그 자체, 행동 그 자체가 있을 따름이어서 업이 되지를 않는다. 체험은 있으되 체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다. 그것은 무지에서 공을 얻은 즉, 완전한 깨달음인 것이다.

상좌부불교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깨달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해탈로 가는 세 출입구

분별·욕망·자아 없어야

첫째 단계는 '흐름에 들어선 단계'인데 수행자가 열반을 한 번 보았고 성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실제인 것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이제는 도를 나아감에 있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좌절당하는 일이 없다. 일단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앞으로 구경 해탈을 이루기까지 아무리 많아야 일곱 생 이상은 더 몸을 받지 않는다. 그가 몇 번이나 더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통찰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을 한 번 보았기에 이전에 겪어 오던 곤란 가운데 몇 가지를 이미 극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소득이라면 소위 '나'라고 부르는 따로 독립해 있는 인격체가 실재한다고 보던 견해를 버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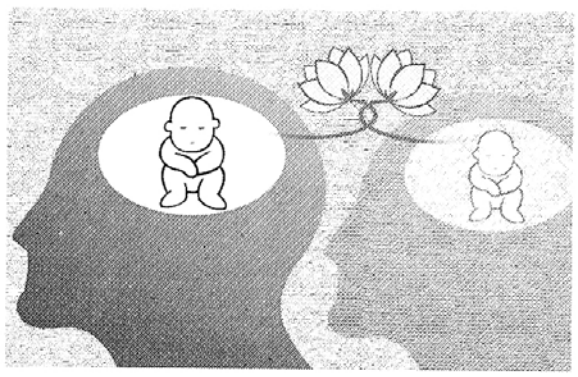
즉 자아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고 '흐름에 들어선 사람'이 무아를 언제나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릇된 견해가 사라진 것 뿐이다. 아직 올바른 견해가 확고부동해지려면 거듭거듭 올바른 견해를 되새겨 자리잡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보강과정을 통해 거듭거듭 올바른 견해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법은 어떤 특별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납득을 그 기초로 삼고 있음에 틀림없다. 연속성은 존재하되 연속하고 있는 특별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속성에 잘못 속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이 몸뚱이 안에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믿어 왔던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가 그처럼 어려웠던 것이다. 알고 보면 일은 제 나름대로 벌어지고 있을 뿐이데, 하여튼 자유를 한번 스쳐본 것만으로도, 즉 흐름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욕심과 성냄이 깡그리 없어진 것은 아니며, 아직 그것을 말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그가 겪는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욕심과 성냄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미 그것은 이전처럼 강하지도 못하며 거친 방식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단지 미세한 형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보편문법



인간의 언어에는 인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명백히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적, 성격적, 육체적 차이와도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법이 존재한다. 이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은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언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단어나 절의 이동이 포함된 모든 문장의 변형은 문장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The Self is boundless.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Is the Self boundless?가 된다. 이 경우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간단히 문장의 3번째에 있는 단어 is를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We are no longer upset by the play of opposites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3번째의 단어가 아닌 두 번째의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ople who are aware of the state of emptiness are free from sorrow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종속절의 동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동사를 옮겨야 한다.

또 한번 더 문장 구조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같은 문장 의존성 이외에도 전치사구와 같은 구를 형성할 때 핵심단어가 앞 혹은 뒤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도서관에서" 라는 구에서는 핵심어인 도서관이 앞에 오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다른 모든 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서는 "in the library"에서 처럼 핵심어가 뒤어 온다. 같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특정 위치의 선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이와 같은 보편문법의 특성들이 모든 인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보편문법의 핵심이다. 인간의 언어들에 공통적 요소가 많다면 언어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보편문법에 의하면 각각의 언어들은 그들 언어를 특정 방향으로 고정하는 변수들에 의해 특정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특정 변수들과 보편문법을 알게되면 그 언어의 문법을 알게 된다.

모든 언어 공통점 지녀
인종·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습득능력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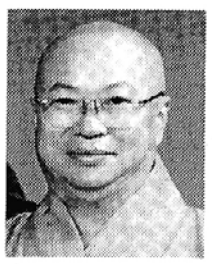
보편문법은 유전적 유산의 일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신 속에 타고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주장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에 의하면, 이민간 아이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특정한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특정한 자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인종과 탄생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언어습득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한다거나 블린 문장에 대한 교정 없이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몇 안되는 문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특정 언어에 맞는 변수를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능력 타고 남기 때문에 몇 개의 예만 들어도 예를 들어 핵심이 맨 앞이냐 맨 뒤냐는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결코 들어보지 않은 형태의 상당히 복잡한 구들을 문법적으로 옳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편문법에서는 언어능력은 정신 혹은 뇌안에 타고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정신과 육체의 절대적 분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션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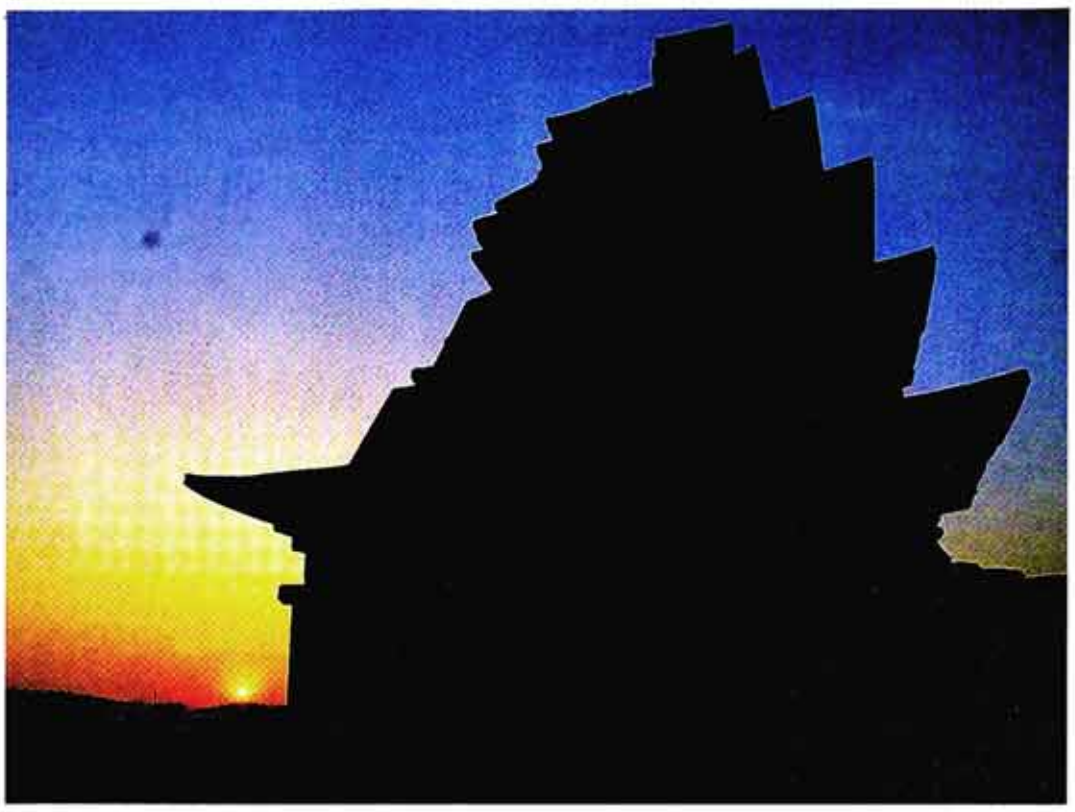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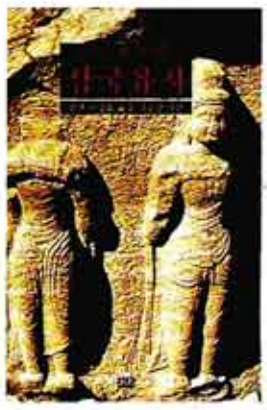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현몽한 신모(神母)에 의해 조성됐다는 경주 선도산 마애삼존불. 파손이 심각하지만 따뜻한 신라인의 신앙심이 넘아있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익산 미륵사자석탑. 석양에 의해 드러낸 웅장한 모습이 동방최고의 석탑임을 입증한다.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우리민족의 가장 위대한 고전. 13세기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다.

해방이후 출간된 10여권의 번역본 가운데 국내 번역본보다 수준이 썩 나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읽기 쉽다는 리상호(북한과학연구원 고전연구실)씨의 역주본이 강운구씨의 사진을 결들여 국내에서 출간됐다.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는 북한과학연구원 고전연구실이 지난 1350년대에 번역, 1960년에 펴낸 책이다. 여기에 사진작가 강운구씨가 4년동안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며 찍은 94장의 컬러사진이 수록됐다. 또 생소한 북한말과 고어를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北 리상호씨 역주본
강운구씨 사진 결들여

조운찬씨(성균관대학원 한문학과)의 꼼꼼한 교열을 통해 읽기 쉽게 편집됐다. 북한의 번역과 남한의 사진이 〈삼국유사〉를 통해 만난 것이다.

5권 9편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신화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양의 역사서지만 〈삼국유사〉가 전하는 신화, 전설, 설화 등의 무대를 지금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며 스님이 필자인 만큼 불교적인 내용이 풍부하다. 이 역사적 사실을 사진으로 함께 읽는 〈삼국유사〉가 확인하고 있다.

일연스님은 민중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설화를 수십년간 수집한 뒤, 만년에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까치 刊, 값 2만원〉

역사의 '속내찍기' 4년
"셔터 누를때 기다림은 수행"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펴낸 강운구씨



"어떤 일을 할 때 알맞은 때가 있다. 그것은 그 일의 때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서로 벌어져 있지만 본성을 알면 하나다. 마치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것처럼…."

사진작가 강운구(58)씨가 사진으로 읽는 〈삼국유사〉를 펴냈다.

경주 황룡사지, 감포 감은사지, 익산 미륵사지, 선도산 마애삼존불 등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2백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앵글에 담은 것.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30년 넘게 활동해 온 그는 이번에 수없는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했다고 토로한다.

당대 선조들의 갈망했던 서원과 그 속에 스며있는 희·노·애·락, 그리고 그 대안으로 표출된 산물들을 한 컷의 사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흘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 것처럼 편안했다는 강씨는 "역사의 현장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본래의 모습을 연상하며 주변을 공공하게 바라보았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와 현장,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작업과정을 소개했다.

〈삼국유사〉의 역사적 현장을 사진으로 읽을 수 있는 순간과 방향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림'을 '수행'으로 여기면서 마음의 초점을 수없이 맞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직관될 때 여지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인지 부너진 탑과 폐사지를 담은 사진 한장 한장마다 우리 역사와 설화가 향아름 담겨있다. 사진을 유심히 살피며 읽으면 빽빽한 정사가 아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꼽꼽한 재미를 느낀다.

강운구씨는 95년 여름부터 4년여동안 〈삼국유사〉에 나오는 2백여 곳을 찾았다. 1곳을 촬영하는데 적게는 1백번에서 5백여번의 셔터를 눌렀지만 단 한 컷도, 허투루 찍은 것이 없다. 250분의 1초를 위해 하루종일 마애불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기록따라 200여 현장순례
때맞추려 수십번 찾은곳도
"허구같은 이야기
실제로 만날때 기쁨 만끽"

1년 사계절동안 똑같은 곳을 찾기도 했다. 이는 그 상징물이 자연과 빛 그리고 작가의 마음이 일치할 때 신화와 설화의 분위기를 최대한 발현한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신라 시조 박혁거세왕의 알이 놓여 있던 나정은 해질무렵 멀리서 포착했고, 분황사 모전석탑은 벽돌색깔에 맞춰 초가을분위기를 연출해 촬영했다. 문경 사불산 정상에 있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바위의 동쪽면 불상을 찍기 위해 수십번 찾아갔다. 특히 사불산 불상은 희미하게 남아 있어 빛의 농도와 방향, 그리고 그 뒤에 걸쳐지는 산자락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의 현장에 접근하는 데에는 문학이 가장 알맞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감동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은 다르다. 보기에 아름답게까지는 아니라도 그 글에서 받은 좋은 느낌을 깨지 않을 만큼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동적인 장면을 억지로 꾸며 만들어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약력

- 1941년 경북 문경 생
- 경북대 영문과 졸
-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 뿌리깊은 나무 편집위원 등 역임
- 현재 프리랜서 활동중
- 저서 〈경주 남산〉 〈내설악 너와집〉 〈우연 또는 필연〉 〈모든 앙금〉 등

현장을 일일이 다니며 하는 사진의 특수성 때문에 강운구씨가 나름대로 체득한 진리가 있다. 대웅전에 모셔진 금불상보다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마애불이 더 거룩하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조차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나 국·보물급만 신비하고 거룩하게 여긴다. 그러나 내 눈에는 예술적 기교가 다소 떨어지지만 석공과 그 시대 민초들의 원력과 사상, 신앙심이 함축돼 있는 마애불이 더 거룩하게 보이고 애착이 간다. 마애불을 제대로 보기위해서는 불상을 보는 시각과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사진 90여장으로 〈삼국유사〉의 현장을 기록한 그의 사진은 현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화를 사진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즉 '2천년전에는 어떠했을까'라는 그만의 화두로 역사의 현장을 담았던 것이다.

천년 세월 이전의 현장을 담아낸 강씨는 "삼국유사의 허구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을 묻고 물어서 찾아가보면 그곳은 실제로 있었다"며 "그 신화의 현장에서 파괴된 구조물이나 알아볼 수 없도록 뒤죽박죽이 된 지형들은 거의가 자연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못난 사람들에 의해 변형됐다"고 아쉬워했다.

현장을 찾기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그의 마음에 '작은 앙금'이 있다. 불상, 탑 등에 근접한 울타리와 보호각 등 과잉보호,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 때문인지 천년역사를 머금고 있는 경주의 눈덮힌 풍경을 앵글에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강운구씨는 무엇보다 단군·고구려·신라 등이 전해오는 북한을 갈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는 "북한의 유사현장까지 사진에 담아 북한의 글과 남한의 사진이 어우러지는 〈삼국유사〉를 독자들 곁에 내놓는 것이 저자의 뜻을 잇는 후손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의 부도인 정조탑과 비각.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옆의 절터.



◇완도 장좌리에 있는 장도(장군섬)를 감싸고 있는 청해진.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㉒

若眞心者 無知而知 平懷圓照故
약진심자 무지이지 평회원조고
異於草木
이어초목
不生憎愛故 異於妄心 卽對境虛明
불생증애고 이어망심 즉대경허명
不憎不愛 無知而知者眞心
부증불애 무지이지자진심
부증불애 무지이지자진심

만약 진심이라면 안다는 생각이 없이 알아서 생각이 공평하여 원만하게 비춤으로 초목과는 다르며, 또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므로 망심과도 다르다. 말하자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비고 밝아서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안다는 생각이 없이 아는 것이 진심이다.

故肇論云 夫聖心者 微妙無相
고조론운 부성심자 미묘무상
不可爲有 用之彌勤 不可爲無
불가위유 용지미근 불가위무
乃至非有故 知而無知
내지비유고 지이무지
非無故無知而知
비무고무지이지
是以無知卽知 無以言異於聖人心也
시이무지즉지 무이언이어성인심야
又妄心 在有着有 在無着無 常在二邊
영가스님이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고자 하면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교묘한 속임수를 이루게 되니,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할 줄을 알지못하면 도적을 자식으로 삼게 된다' 했던 것이다. 만일 그것이 진심이라면 유무(有無)에 있어도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중도에 있게 되는 것이다.

故祖師云 不逐有緣 勿住空認
고조사운 불축유연 물주공인
一種平懷 泯然自盡 肇論云 是以聖人
일종평회 민연자진 조론운 시이성인
處有不有 居無不無 雖不取於有
처유불유 거무불무 수불취어유
無 然不捨於有無 所以和光塵勞
무 연불사어유무 소이화광진로
周旋五趣 寂然而往 忽爾而來
주선오취 적연이왕 홀이이래
恬淡無爲 而無不爲 此說聖人
염담무위 이무불이 차설성인
垂手爲人 周旋五趣 接化衆生
수수위인 주선오취 접화중생
雖往來而無往來相 妄心不爾故
수왕래이무왕래상 망심불이고
眞心妄心不同也 又眞心
眞心妄心不同也 又眞心
진심망심부동야 우진심
乃平常心也 妄心
乃平常心也 妄心
내평상심야 망심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비고 밝아 안다는 생각없이 아는 것이 진실

우망심 재유착유 재무착무 상재이변
不知中道 永嘉云 捨妄心取眞理
부지중도 영가운 사망심취진리
取捨之心成巧僞
취사지심성교위
學人不了用修行 深成認賊將爲子
학인불요용수행 심성인적장위자
若是眞心 居有無而不落有無
약시진심 거유무이불락유무
常處中道
상처중도

그러므로 〈조론〉에 '대개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상(相)이 없으므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쓸수록 더욱 부지런하니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만 아는 것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앎이 없이 아는 것이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또 당심은 유(有)에서는 유에 집착하고, 무(無)에서는 무에 집착하여, 항상 두 극단에 치우치니 중도를 알지 못한다.

乃不平常心也
내불평상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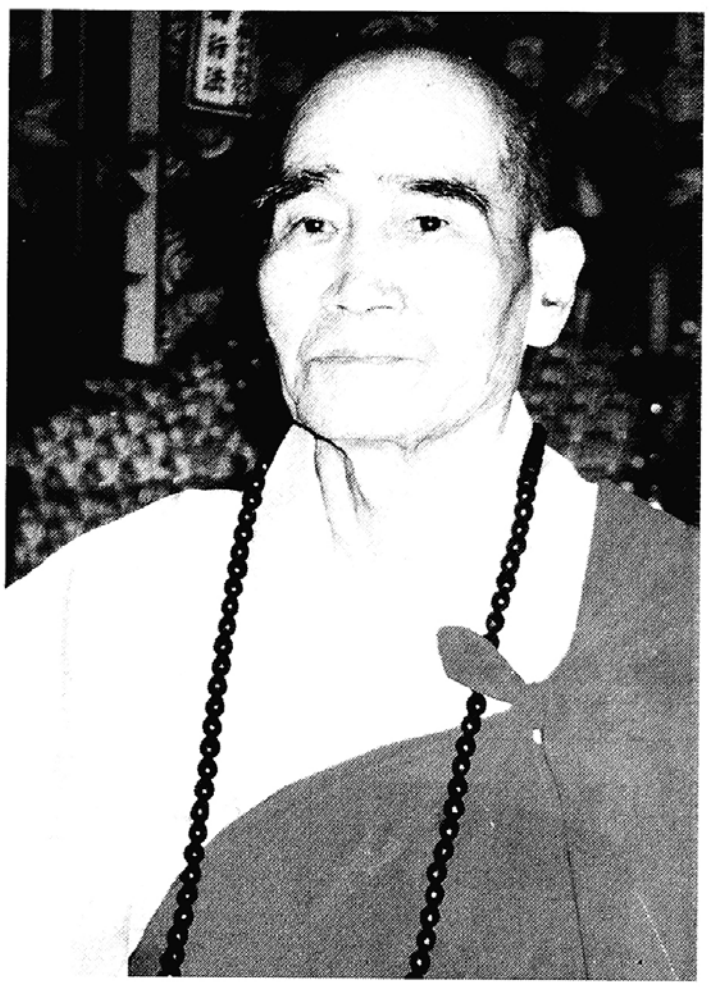
그러므로 조사께서 '인연을 따라 좇아가지도 말고 공(空)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한결같이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면 망심은 절로 사라진다' 하였고 〈조론〉에는 '성인은 유(有)에 머물러도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無)에 있으면서도 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유무를 취하지 않지만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런 때문에 세속에 어울려 다섯 가지 나쁜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고요히 갔다가 홀연히 오며, 담담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하지않는 일이 없다' 하였다. 이것은 성인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어 다섯 가지 세계를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비록 가고 옴이 있을지라도 가고 오는 상(相)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망심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진심과 망심은 다르다. 그리고 진심은 곧 평상(平常)의 마음이고 망심은 평상의 마음이 아닌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참다운 공양이란

행법스님 〈월현사포교원 주지〉



약 · 1923년 충남 연기 출생
· 1954년 상일스님을 은사로 득도
력 · 1955년 충남 연기 월현사 창건
· 1965년 연기군 연수회(練修會) 회장
· 1985년 조치원에 월현사 포교원 개설

"복 주세요 축원 잘해 주세요" 불교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지켜야 참불자

대전 보문고 교장이셨던 전상일스님이 나의 은사스님이신데, 나는 출가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왜정 때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거리에 걸인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얻어먹었어요. 그런 걸인들을 혹 보게되면 불러서 먹던 밥상일망정 같이 먹었습니다. 내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남과 나눠 먹은 날은 하루종일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였어요.

불교는 곧 자비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의 자비는 자아완성의 실현에서 오는 수행의 단계로 절대 사랑이며 평등의 사랑입니다. 만유(萬有)가 동체(同體)임을 깨닫고 자기몸을 코살피듯 하는 사랑입니다. 출가 전에는 자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것 아깝다는 생각않고 내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했으니 부처님제자가 될 종자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서인지 불자들까지도 조금치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자기것을 나눠줄 생각은 커녕 마음에서도 여유가 없어 딱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자기 수행을 위한 진실적 마음의 표출인 것입니다. 남에게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자(慈)요, 일체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참사랑의 마음,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아파하고 그것을 없애주려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이 비(悲)입니다. 대상이나 경계가 없는 참된 사랑이 자비요, 절대평등한 것이 자비입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의원 노릇을 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침을 잘 놓았어요. 곧 죽을 듯한 환자들도 침 몇 대 맞고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표정이 밝게 개어요. 용하다는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 자주 불려다녔지요. 밤낮 가리지 않고 먼 길 마다않고 다녔지요. 그러다 갑자기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병 고치러 절에 들어갔지요. 매일 냉수 목욕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밭 꿈에 부처님을 뵈었지요. 부처님 두 분이 먹장삼에 가사를 두르고 서쪽에서 오시는 겁니다. 미간에서는 백호광명이 햇빛보다 눈부신 빛으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나니 그때부터 몸이 날아갈 것같이 개운했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묘락(上妙樂)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출가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어요.

범부중생은 탐 진 치 삼독으로 속이 꽉 차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복을 짓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복을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들의 몸은 삼독의 가시가 꽉 박혀서 썩어들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 본래의 평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요즘처럼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탐욕심은 인간성 상실이란 무서운 결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탐욕이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들어부어도 들어부어도 채워지지 않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치 잘난 일을 해야 해요. 자기가 못나서 남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자기 꾀를 믿고 쉽게 살려는 생각을 부리다 그 결과 처자와 부모, 친척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침에 수제비 한 그릇을 먹고 다른 끼니는 거릅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년 됐어요. 일종식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요새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먹는 일에 집착합니다. 먹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지나치게 맛있는 것, 좋은 음식에 탐착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먹는 맛을 알면 도를 닦지 못합니다. 보는 맛, 듣는 맛을 알면 도(道)의 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소리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배고픔을 몰라야 합니다. 음식 맛을 몰라야 합니다. 의사들이 나를 보고 "스님, 큰 일 났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겠어요" 그래요. 내 대답은 간단하지. "살찌면 뭐해요. 가지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짐승들도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데,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해요. 사람이 짐승보다 무엇이 잘났습니까? 세상은 눈만 뜨면 전부 물욕 탐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악업만 높이 쌓입니다. 자비심으로 일체중생, 딱정벌레 하나라도 즐겁게 해주겠다는 마음, 이것이 도의 길이고, 부처의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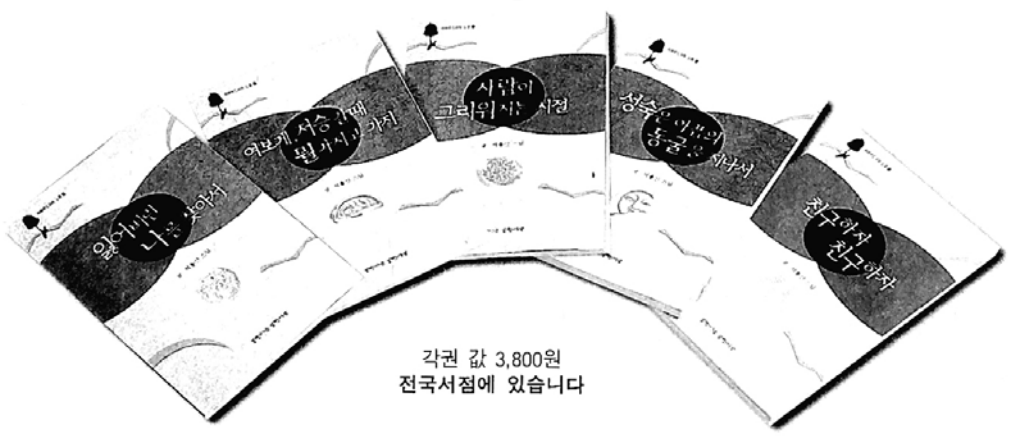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 것, 네 것 하며 싸움하고, 쫓겨다니고 모두들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벗고 앉았으면 어때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르기를, "너에게는 내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오늘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복을 주세요, 축원 잘해주세요" 이런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일생동안 부처님 앞에 돈 한푼, 쌀 한톨 갖다놓지 않더라도 부처님가르침 하나라도 지키려 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예요.

불교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고 또 그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고 즐겁느니라, 부처님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5계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술먹고 취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랬는데 승속을 막론하고 온전히 지키는 사

도서 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스님이 법열속에 부르신 환희의 노래들이다. 참을 수 없는 마장속에 몸부림하며 안으로 안으로 울어 흘린 신음의 소리들이 사리보다 영롱하고 핏물보다 진한 노래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적셔 줄 것이다.
-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계속 출간됩니다 -



지장불교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을 정립하는 글들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나게 독송할 수 있는 의식집

문의처 법우당(02)994-4437~8

큰스님 수행한담

옳은일 실천하는 것”



◇65년 법주사 성지순례에서 신도들과 함께 기념촬영

부처님 가르침 담긴 책 읽으면
선근종자 심는 기회가 돼요
45년간 불서보시한 까닭입니다

탐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지만 물질에 끌려다니고, 말초적인 향락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마하승기율〉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계는 위대한 뱃사공으로서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준다. 계는 시원한 연못과 같아서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편이니 그릇된 마음에서 생기는 재앙을 제거한다. 계는 최고의 반려이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므로 계는 감로의 문이고 성자들의 처소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그 괴로움을 잊고 도리어 즐겁게 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처럼 세상을 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범위가 커져서 일체 중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 육신을 끊어놓더라도 대항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네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니 달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달게 받으라는 것이 불법이예요. 인과법을 아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 어디 묘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미가 절에 가서 "제가 중노릇 잘 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한 노스님이 "한 10년 해 봐라"고 말했지요. 10년이 되는 날 이 사미가 하직인사를 올렸어요. "공부도 되진 않고,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왜 왔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텐가? 불교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사미가 다시 물었어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다."

"아니,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를 하십니까?"

"백살 먹은 노인네라도 착한 일을 하기 쉽지 않네."

이 말 한마디에 사미승이 깨달았어요.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게 불교지, 절에 열심히 다녔다고, 또 큰스님들 찾아다니며 법문 많이 들었다고 불교하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저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 것을 가져가는구나"고 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나무래야지, 남을 원망하거나 대응하면 업만 쌓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배고픔도 몰라야지, 배고픔을 알면 즐거움이 아닙니다. 80이 다 되도록 불교를 해보니,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 출출하고 시장할 때예요.

45년간 불서 수백만권을 대한민국의 사찰마다 보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외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한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불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가르침이 들어있는 소중한 책이지요. 그러나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됩니다. 소장하고만 있다고 해서 복이 들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예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으라는 가르침이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다 깨닫기 위한 방편입니다. 록짓고 기도한다고 해서 박힌 가시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책을 인쇄하고 보내는데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돈을 장만해놓고 법보시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돈이 떨어지면 법보시하겠다는 분이 꼭 나와요. "책에 쓰인 통장번호로 돈을 넣었으니 보태세요" 하는 전갈이 오는 겁니다. 부처님 일은 마음 깨끗이 먹고 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보시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내가 보낸 책을 누구라도 읽고 그 마음속에 선근종자를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부처님과 대화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이라도 깨우침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불교니 절을 관둘 아라존자가 여쭈었지요. "그러면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공양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불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공양물만 덮어놓고 많이 마련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은 아니다."

법회를 잘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의 불국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정신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느냐,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비심을 일으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주고, 죽게 된 중생을 살려주고, 공포심 가진 중생에게 의지할 곳을 일러주며, 약한 중생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중생에게 재물을 주며, 무식하고 무능한 중생에게 지혜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병든 중생에게는 약을 주며, 갈 곳이 없는 중생에게는 거처를 주고 보살펴 주는 것들이 모두 다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더라도 상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어도 베푼데 대한 집착이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오히려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날이 갈수록 물욕과 향락에 집착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 보시정신을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하는 일 또한 불자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보시는 모든 부처님이 처음 수행하실 때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세우신 원력이며, 실천하셨던 행입니다. 모든 선과 모든 공덕은 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 모두입니다. 베품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불자의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수행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참선 염불 간경 주문 기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알맞는 방법을 택하여 공부하되, 반드시 육바라밀을 닦아야 합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모든 선과 공덕 보시로부터 시작돼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세상 보세요”

나의 수행일기



장영동 〈울산다도교육원장〉

‘한눈 팔지말고 천지를 관통시켜라’
불법인연 20년동안 매일 새벽 참선

나는 항상 새벽에 눈을 뜨자 마자 빠져 나가려는 화두를 물고 정좌를 한다. 우물쭈물할 여지 없이 밀릴 만큼 밀려 나버린 난간에서 붙잡고 가야할 자리는 바로 자신이다. 염치 불구하고 재촉을 한다.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그 누구의 흉내도 내지 말라.” “오직 당신의 문제는 당신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방망이질하며 하루를 대기시켜 놓는다. 차 솥을 바로 놓고 찻종을 곱게 닦으며 “한잔의 차로써 영혼을 맑게 하시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옵시고 영영세세토록 생사열반을 훨훨 벗어나 천지도리 하나되어 터득아닌 터득으로 대 자유인을 만드소서”라고 자신을 돌이켜 본다. 나에게는 정혜(定慧)로 가려는 지계(指戒)의 실천이다.

그리고는 공부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자신과의 씨름을 시작한다.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당신은 한 눈 팔지 말고 천지를 관통시켜라. 그래야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왜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나에게만 이 억울한 세상이 왜 찾아오는지를 알 것이 아닌가. 묵은 업장의 과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그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다. 그 길이 쉽든 험하든 외통수다. 마음이고 부처고 조사고 다 군더더기다. 자신을 관통하고 봐라. 당신의 할 일은 오직 하나 천지관통이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빚지지 않고 당신의 값을 치를 수 있다. 부모에게의 불효도 자식에게의 못남도 부부간의 섭섭함도 한 방에 갚을 수 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공부하소 하고 안하고는 당신 사정이오, 금생에서 끝장보고 안보고도 당신 사정이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이것은 불교와 인연을 맺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 온 나의 일과며 수행생활이다. 지고한 불법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고 이같은 수행생활을 시작한 것은 20여년전. 당시 친구의 소개로 구도회에 가입, 〈법성게〉등 경전공부를 하면서 사찰답사를 통해 신심증장과 불교문화에 대한 눈을 떴다. 그리고 다도를 공부한 나만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KBS 울산방송국에서 첫 법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울산다도교육원을 설립, 매주 사찰의 불교교양대학과 신행단체에서 다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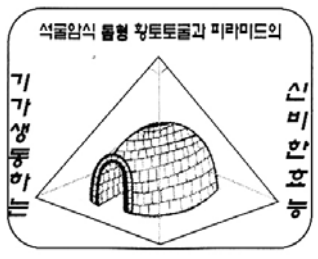
이왕지사 비빈 언덕이라 아무래도 이곳이 좀 수월치 아니할까 하고 위안을 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다. 마조 어록의 경책에 공감을 느낀다. “내 전생이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 했던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 했던 이젠 난 내 길을 간다” 하고 말 엉덩이를 쳤던 것에 이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잘 잘못을 살펴본다. 사랑하던 사람과는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만났으니 억울하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짓을 할 때 얻은 지식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부부가 뭔지 모르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집사람에게 죄스럽고, 공부가 뭔지 모르고 훈장 짓을 했으니 아이들이 바로 배우기나 했겠으며 우정이 뭔지 모르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내 자신 하나 똑 바로 세우지 못한 주제에 벽돌이 되어 남의 집 담벼락이 되었으니 그 집이 온전했겠나. 이 모든 큰 죄를 누구에게 빌고 갚을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 이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음을 나는 이제 알았다. 당신이 배고프고 똥 마려울 때 누구에게 맡기어 해결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도 차 한잔을 입에 물고 관세음보살을 만번 부르며 자성불에게 경책을 가한다.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滴天髓闡微
식 전 수 천 미
上下 (卷)완결판 芮光海 譯



명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버무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의 辯에서-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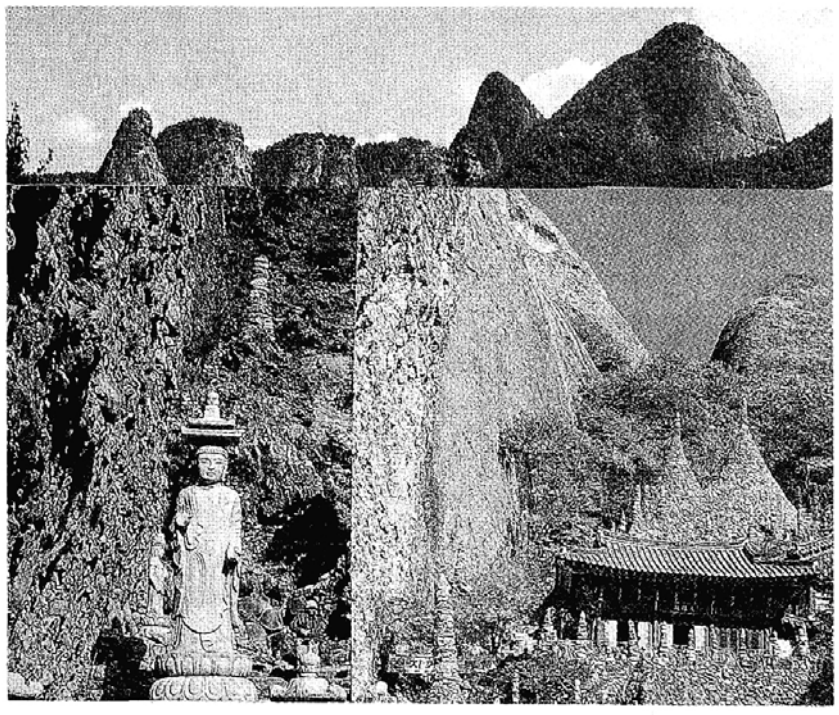
上 · 下각권 20,000원

통신판매 예금주 서 찬 배
• 조흥은행 436-04-054683 • 국민은행 833-24-0147-067
• 서울은행 39807-0602412 • 축 협 047-11-12095-316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02) 387-8429, 2264-5139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日 최대규모 한국사찰 '관음사 문화회관' 건립…12월 5일 낙성

다목적 문화포교 공간…교민사회의 자랑

"불사(佛事)는 절로 되어야 한다"는 불교집안의 속담같은 말이 있다. 바로 그런 불사가 일본에서 민족·종파·종단을 초월해 추진돼 한·일 양국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 불교문화회관으로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안 타운 한 가운데 건립되는 한국사찰 관음사 문화회관(주지 원연)이 그것.

이 불사는 규모도 방대하지만, 길본인 스님이 보은의 마음으로 한국교민을 위한 사찰과 문화공간 건립을 발원하고 화주까지 나선데다 在일본 대한민국 민단이 적극 후원하는 가운데 한국교민·일인 불자 등이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

부침의 역사 천년을 접고 새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멀고도 가까운' 한·일 관계가 불교정신으로 새 전기를 마련하게되는 역할로도 기대된다.

이 불사는 5년전 일본인 사업가 출신의 조동종 소속 요시무라스님(吉村大徹)이 원연스님을 찾아와 뜻을 밝히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요시무라스님은 십여년전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교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재기하게됐고, 5년전 출가하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교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장의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한국사찰을 세워 시주해야 겠다는 원을 세웠던 것. 미참내 시주를 할 한국인 스님을 물색했고 여론을 수렴해 적임자로 생면부지의 원연스님과 인연이 닿았고, 97년 8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요시무라스님은 올 1월 간암으로 입적했고 그 뜻을 용곡 대 불교학과를 마치고 스님자격을 취득한 이들과 일본인 친구 등이 나서서 돕고 있다.

이 불사에 불철주야 뛰고 있는 관음사 신도회장 갑인자씨(63)는 "관음사 창건부터 인연을 맺어 번듯한 불교문화회관을 신축해서 가게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민단 오사카본부 홍성인 단장(65)은 관음사 문화회관 상량식장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불사 기획단계에서 원연스님과 요시무라스님 관음사신도회장이 찾아왔을 때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해 민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목적의 사업에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홍단장은 또한 "한국교민들에게 장의예식장 문제는 가장 절박한 심정"이라며 "사설 장의식장은 비용이 세고, 일본 절에서 하자니 마음이 또한 묘한 것이 교민들의 심정이라 관음사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이나미건축주식회사 사장 이나미씨(稲垣靖博)는 "절 불사 과정을 처음부터 소상히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찰 공사를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량식에 참석한 원주불교회관 리선행법사는 "이 불사는 수좌자세를 흔뜨리지 않고 교포나 일본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온 원연스님의 수행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상 9층…장의예식장·납골당등 시설
민족·종파초월 日人불자도 후원 나서

오는 12월5일 대대적인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될 관음사 문화회관은 대지 360평에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연건평 1080평 규모의 초현대식 건축물이다. 토지매입 건축비 불구장업 등 총 예산 3백억원이 투여되는 관음사 문화회관은 지상 1층에 전통 한국건축 양식의 법당이 조성되고, 2층은 장의예식장·5층에 문화 전시를 위한 공간이 자리잡으며, 3층부터 9층까지는 불교의식을 완비한 납골당이 들어선다. 9층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모셔지고, 지하 1~3층 전체는 주차시설로 활용된다.

납골단에는 영가가 안치되면 관리비 없이 100년을 사용할 수 있고, 대·중·소형 크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용규모는 소형기준 10,000기이다.

오사카 이쿠노구는 14만 구민 가운데 4만여명이 한국교민으로 4명당 1명이 교민인 셈. 더구나 이 지역 코리아타운과 바로 이어진 중심가에 위치한 관음사 문화회관이 완공 되면 명실상부한 한국교민사회의 상징적인 문화포교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5일 낙성법회를 가질 관음사 문화회관 조감도.



◇강도 7이의 지진에도 견딜수 있도록 지하 30m를 파고, 특별한 공법으로 골조공사가 완성된 웅장한 모습의 관음사 문화회관 전경.



◇5월13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상량식에서 이 불사 화주인 요시무라스님의 영정도 함께 했다.



◇불교장의문화와 교민들의 포교공간이 될 각 층의 납골당 모습. 3층부터 9층까지 각 층마다 지장보살님이 조성되고 최대 1만여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전통불교의식의 납골함이 들어선다.



◇ 상량식후 스님들과 대중들이 추진위원회 사무실과 납골당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12월 5일 관음사 문화회관 낙성법회 문의

▲임조선사 임조스님 (0344)903-9121 ▲원주 불교회관 리선행법사 (0371)764-9888 ▲광주 연화회 이장국거사 (062)226-4729 ▲부산 반야포교원 김종호법사(051)761-1908 ▲제주 김매강보살 (064)57-1622

인·터·뷰



◇5월13일 상량식에서 법어를 마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휘호 "자비무궁(慈悲無窮)"을 쓰는 서옹스님.

"재일동포 신행귀의처 기대"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관음사 문화회관이 대단히 잘 지어지고 있어.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곳에 신앙의 귀의처가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진실된 행복추구를 위한 수행 도량이 될 것 같아. 더구나 선조 영가까지 죄다 봉안해서 잘됐고, 동포들에게 편안한 곳이 되겠어."

지난 5월13일 일본 오사카 관음사 문화회관 상량식장에서 만난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前 조계종 종정)은 기대감을 표했다.

일제때 일본 경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 입제종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유나소임을 보기도 한 스님은 해방이후 해연 원연 소연스님 등 상좌들을 통해 일본포교를 이끈 선구자.

"사실 그동안 동포들의 신앙 귀의처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 앞으로 관음사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훌륭한 공간으로 포교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거야."

스님은 인류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서로 돕고 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가 민족주의 인종차이 등을 떠나 이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량식 법어

"불법은 21세기 인류의 희망"

축하합니다. 원연스님이 지금까지 동포 사부대중의 포교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관음사 중창 대불사를 여러 신도 유지분들의 위대한 원력과 협조로 훌륭하게 하는 것을 치하하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적 현실은 르네상스이후 인간주의로 인간이 주인이돼 역사를 참조해왔고 인류가 해방되면서 과학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주의는 오늘날 욕망에 끌려 인간성이 파탄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21세기를 창조하는 이때 인류는 혼미에 빠져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타락해 세계 역사는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오염 투쟁이 만연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인류는 21세기 새로운 정신 원력을 바탕으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구제는 인간을 초월한 참다운 본성으로 근원력을 살린 부처님법 밖에 길이 없습니다. 서양의 철학도 어렵습니다. 동양의 불법으로 구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동양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제 인간을 초월한 진실하고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근원적 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비한 마음 광화스런 형상으로 세계 역사를 참조해야 하는 이 시기에 관음사가 중창불사를 통해 부처님법을 중흥하는 것은 중대한 불사이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다고 봅니다.

관음사 문화회관이 장엄하게 건설돼 여러분이 훌륭하게 수행해서 인류평화 행복의 도량이 되기를 확신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불조 명맥의 그 자리에서 무한히 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뷰



"민중들 인생苦 해결 힘쓰겠습니다"

주지 원연스님

"부처님께서 깨달아 중생에게 회향하신 근본적인 의미를 생활화 사회화해야 한다는 원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는 12월5일 낙성될 관음사 문화회관은 이곳 코리아 타운을 중심으로 동포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노병사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상담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활동을 폭넓게 벌일 것입니다."

일본 최대규모의 다목적 한국사찰을 세우는 오사카 관음사 주지 원연스님은 불사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포부를 밝혔다.

민중불교를 주창하고 있는 스님은 88년 관음사 개원이후 매달 〈민중불교(民衆佛敎)〉지를 발행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유일하게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어왔다. '바른 종교 바른 생활'을 편집방향으로 람플렛 판형 8쪽의 〈민중불교〉지는 한 호도 걸름없이 100세대 일본인 신도를 포함한 1천500세대 신도 가정에 일일이 우편발송되고 있다.

"일본 경제 원동력은 생활불교 정신"

"지금까지 절대로 신도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승복이 작업복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장스님의 청규정신을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밥을 가는 대신 그저 조용히 일하며 수행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관음사 운영방향도 민중들의 진실된 생활속의 위안처로 역할하는데 맞췄습니다. 더구나 문화회관이 완성되면 '관음사 것'이라고 고집 않습니다. 교민 전체의 신행 문화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하심(下心)제일'의 스님으로 지역에서도 정평이나 있는 스님은 일본경제와 불교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관(觀)을 지니고 있다.

"일본경제의 부흥은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연·일연스님들의 생활불교 민중불교 정신을 토대로 선불교가 대중속에서 살아나면서 경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물질세계는 정신적인 문제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옹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82년 도일해 불교대학에서 수학했고, 88년 오사카 이쿠노구에 개인 집을 임대해 관음사를 개원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함이 없이 할줄 알아야 보살입니다

보살은 실존인물인지요

문 (1)불교에는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법장보살 등많은 보살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존인물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경전에 나오는 전설적, 또는 이상적 인물입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보살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 철학적인 종교라고 들었는데그 실상은 많이 다른 것 같군요.

그리고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면 그것으로 되었지 굳이 소원을 들어 달라고 기원을 할

> 가만히 있으면 부처
> 생각하면 문수법신
> 몸 움직이면 보현보살
> 이름찾아 헤매지 마세요

필요가 있을까요

(2)또 하나 열반에 드는 것 즉 해탈하는 것과 극락왕생하는 것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만일 다르다면 이 두가지에는 우열이 있는가요

그리고 내생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들기를 바래야 하는 수행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말해 열반에 들기를 바라기보다는 내세에 계속 태어날 것을 바라는 것 내지는 해탈하기를 체념한 소극적인 자세 아닌지요

(3)또 하나 극락왕생한다 할때 극락이란 삼계오도중의 천도와 같은 의미인가요

답 (1)우리가 말입니다. 아내와 같이 있을 때는 남편 노릇을 하다가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 하죠. 그렇게 아버지가 금방 되듯이.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 노릇을 할려면 남편으로 금방 화하고 금방 아들로 화하고 이러듯이 그 보살이라는 평등한 이름 속에서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고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름으로써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실천은 함이 없이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할 줄 아니깐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보면 부처님 문수 보현 이렇게 세 분을 모셔 놨는데 가만이 있으면 저 가운데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 법신이고, 몸을 움쭉거렸다 하면 보현보살이고, 이렇게 모두 한생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각각 찾고만 있으니 언제까지 그렇게 찾아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하면 문수 법신이고 몸을 움쭉거렸다 하면 보현보살이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나가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각각 이름으로 찾아서 헤매고 그러니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2)극락·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독사같이 악하게 살면은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듯이 자기가 지은데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극락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 하는 문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 라는 게 공해 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 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쳐야 될텐데, 살면서 그랬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라는 것을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밝혀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으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고, 불에 타 죽을까봐 못 가서 자기의 갈 길을 못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아야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열반이란 말을 할 것도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었다고 해도 살던 업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발 자체를 거머쥐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뛰어 놓고, 또 하나 놓고 하나 뛰어 놓으면서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음 걷듯이 일체만법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간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 가는 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공한 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실감이 안날 겁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고에 들어서 봐야 '정말이지 이렇게 하면 아니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3)그리고 천도와 윤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론으로 불법을 말한다면은 한계가 있고 걸림이 있고 또는, 이건 못된 법 저건 좋은 법하고 나눔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대승의 도리는 즉 공법의 도리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물고기 한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살생이라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모습을 진화시켜서 달리 형성시켰으니까 건진 것이고 또, 그 물고기는 그대로 약으로 쓰니깐 보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도리를, 즉 말하자면 보이는 자기가 안보이는 자기를 믿지 않고 모른다면은 살생이 되고, 그 도리를 안다면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름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림 · 최주현

살아서 마음도리 깨달아야 그게 곧 열반
진실하고 간절하게 놓아야 녹일 수 있어

놓아도 녹지않고 올라옵니다

문 아무리 돌려놓아도 녹여지지 않는 것은 평생 놓기만 하다가 가야합니까? 나름대로는 놓았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끝없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녹여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답 말 그대로 나름대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욱 진실하고 간절하게 놓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생각, 올라온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생각도 놓고 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소식해야 수행 잘 되는지요

문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적당한 음식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음식을 보면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 양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열심히 음식에 대해서 마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소식을 해야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바른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왜 소식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시길 배가 고파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셨듯이 배가 부르면 정신이 맑지 못해서 늘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몸을 잘 다스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음식을 탐한다기 보다 습이겠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절하게 관하면 자기 양만큼 조절이 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주인공 자리 찾고 싶습니다

문 아직은 어떤 질문을 여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를 혼돈 상태입니다.

저는 원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무종교이신 부모님밑에 자라난, 34세 주부입니다.

특별히 한 종교를 믿어 본 적도 없고, 언젠가부터 '자신' 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어느 종교 단체에도 참가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3~4개월전부터 우연한 깨달음으로 많은 심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선과 악' '이기와 이타' 의 사이를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한 주부요, 두 아이의 엄마요,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존재에게 이러한 혼돈이 왔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무엇이 사는 것인지, 또 죽는 것인지,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없는 것인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울이라는 큰 전제 하에서 나름대로 주인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선원에 다니시는 분께 스님 말씀을 들은지는 오래이나, 저 자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을 찾아 뵈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한 선한 '진아' 를 찾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답 심적으로 방황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한 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던,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하세요. 사량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말고, 그 자리에 일임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세요. 그도리를 알면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을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게 됩니다.

마음은 지울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간 데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자리를 찾으려고 공부하고 있다하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로 모으는 수행, 즉 주인공자리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고 지켜보며 관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꼭 벗어날 겁니다.

인연의 이치 알고 싶어요

문 많은 망설임 끝에 큰스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사님께서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니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연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요새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으려고 애썼지만, 다시 무기력해지기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님의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이 세상 만물 만생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는 겁니다. 우연히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인연이던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생각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블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8)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참사랑이 바로 자비

진실이 담기지 않은 겉치레 말은 그럴듯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볶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말이 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일단 입을 열어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참 수행자가 되라.

말 한번 잘못하고 행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의 누(累)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그것은 참으로 광대 무변한 불성, 그 능력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도둑질한 자기 자식을 말없는 슬픔으로 감싸듯이 다른 사람의 행업을 마음으로 감싸면서 자비심을 내도록 하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가리느라 신구의로 업을 짓지 말고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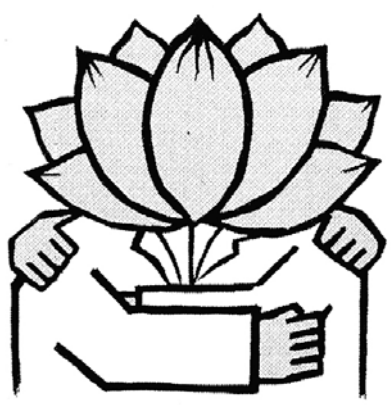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행자는 모름지기 풀 한 포기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마음의 길, 마음법의 다음 차원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다양한 방편을 얻게 되고 나·너를 떠난 경지에서 크나큰 마음을 지니게 된다.

희로애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자비심 하나가 불법을 살린다. 높다랗게 앉아 있는 부처님과, 위엄을 갖춘 큰스님네에게서가 아니라 하찮고 비루한 속에서 실로 고상함이 나온다. 모든 생명이 그렇고 정법이 그러하다.

상대방에게 해롭거나, 상대가 역정을 낼 기세가 보일 것 같으면 말로 하지 말고 주인공에 일임하여 안에다 놓으면 자석과 자석이 감응하듯 그쪽으로 염파가 통하게 된다. 이 우주간 법계는 허공에 거미줄을 쳐놓은 듯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도 그렇고 제 보기에 잘못하면 밉고 잘하면 이쁘다고 한다. 또 듣기 좋은 말 속삭여 주면 좋다 하고 진실로써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이뻐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자기를 깎아 먹는 것이니 모두들 주인공에 놓고 항시 좋은 말,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참 나 자성불이 무전 통신으로 모두의 마음을 조절해서 화합하게 한다.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모두가 한 마음이다. 남을 원망치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며 아집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면서 뜻 보시와 법 보시, 부드러운 말 보시를 하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항시 자비롭고 인의롭게 남을 대하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상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회사로 치면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장이 있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 폭 넓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대하라. 그리고 놓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야단들이지만, 큰 사랑은 죽여도 사랑이요 살려도 사랑이다. 그것이 자비다. 죽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자비심이다.

자비란, 죄가 있든 없든, 거지든 부자든, 벌레이든 짐승이든 따지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갈 수 있는 두터운 한마음, 그것이 자비다.

협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공했는데 무슨 업이 붙습니까

☞ 15면에서 계속

맡기고 마음나는 대로 행하면서 열심히 관하세요.

습과 아상 녹이고 싶습니다

문 전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주인공에 믿고, 놓고 그렇게 하루 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또는 찰나에 저의 습관, 남에게 의지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의 의견만이 최고인 듯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떠드는 아집의 버릇이 있습니다.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순간 지혜도 없으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 세우는 버릇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행하고 나서 뒤에는 나는 왜?… 행하지 못했나… 가슴 치면서, 괴로와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큰스님가르침에… "해버릴 말을 하지 말고, 입에 자갈을 물려라…" "내세우지 말라…" 하심에 제가 너무나 행함이 없어서 순간순간 그러한 저의 습관과 버릇 에 이끌려 가는 저의 거짓된 자아를 완전히 녹일수 있는지요…

그러나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저 자신의 마음속에 불심을 키우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큰스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로서 큰스님께 계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그 인연으로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없애고, 저 자신의 불심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전 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불손한 편지를 한통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리석었고 불손했던것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의 배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없이 깊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 물론 받을 수 있죠.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은, 먼저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속에서 마음을 잘 쓴다면 생사에 관한 건을 다 쥐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오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를 지켜야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계를 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를 지키려고 할 때 진정으로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궁금합니다

문 저는 불자나 교인도 아닌 아무 종교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인가 선원의 가족중 한 분을 알게 되었고, 스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스님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빌려 보기도 했었구요. 유년기의 환경이 저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릴적 고민거리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의문 같았지만.. 어머니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보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가 정말 궁금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에 머언 우리의 조상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황당한 눈으로 저를 바라 보지만, 게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키려고도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싶습니다.

답 존재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먼저 자기의 근본, 뿌리인 본성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마음을 낼수가 없고, 마음을 낼 수가 없다면 육신이 움죽거리지 못합니다.

누가 있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겁니까? 바로 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사량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주인공 자리에 모조리 다 놔 버리세요. 그런 대의정을 몰록 놓고 공한 도리를 알았을 때 발없는 말로 걷고 손아닌 손으로 집어 먹고 눈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식으로 의정을 내서는 천날 백날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사량으로 무엇을 얻으려 말고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하여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세요"

아직 주인공에다 믿고 맡긴다 할지라도.... 크나큰 큰스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부족한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거 보세요. 우리들의 몸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는 것은, 거기에 과거로부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괴로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다 다시 맡겨 놔야, 입력을 시켜야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맡겨 놓고 거기서 하게끔 맨들어야죠. 그렇게 항상 나오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맡입니다. 그게 관하는 거니깐요.

지금 우리들은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리가 터지지 않고 자꾸 관습에 얽매이게 되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살고 하는 착이 붙어서 영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다 떼어 갖더래도 착을 두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공해서 너는 없다,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주인한테 맡겨라.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없는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내가.... 무의식중에 '내가 벌어야 살지 또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하고 '내가 뭐 어쩌구하면서 나, 나, 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반면에 업이 붙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이 업이 붙습니까? 내가 공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하고, 찰나에 벗어나게도 되고 곤경에 빠지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습과 버릇이 녹을 겁니다. 괴로워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관하는 노력을 하세요.

큰스님께 계받고 싶어요

문 어릴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는 불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자라 오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지고 대학을 들어오면서 저 자신의 집착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배척하였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저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되고, 다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불경책을 사서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야 참 의정이 나오는 겁니다.

무한한 에너지 얻고 싶은데…

문 어떤 책에 보면 업장을 완전히 녹여 영이 순수해지면 무한한 능력의 에너지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본성자리의 무한한 에너지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데도 어리석고 욕심내고 집착하는 무명에 덮혀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광대무변한 에너지의 맛을 보기 바랍니다.

나와 남이 하나인 까닭

문 언제나 합께 계시기에 안녕하시냐는 말도 묻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문뜩 나 아닌 것은 모두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행동하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모두를 나와 같이만 보라 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런데 전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남이 어떻게 보면 어떤가, 주인공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가를 지켜보라는 답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와 남은 따로라고 들리기도 하구요...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나와 남은 엄연히 따로 있으나 서로 함께 돌아간다고 생각되기도 하구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남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니 그 사람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와 남은 따로라고 하니 생활하기가 편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고... 또 이렇게 묻는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니 대답을 듣던 안 듣던 그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지요.

답 요즈음 청소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못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데도 50%의 물질계만 알고 50% 정신계를 빼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이든지, 자식과 부모지간이든지 간에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 될텐데 남의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아휴!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저런 자식을 뒀는지..." 하고, 부부지간에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싸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가보면은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걸 생략하고 그걸로 비유하는 겁니다. 배는 배끼리 놓여있어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모여 있듯이 일체가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차원 따라서 만나기 때문에 우연히도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거를 녹일려면 대처해서 없앨려면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만이 업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렸다 하면은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유전이 되고, 그것이 인과가 되고, 그것이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저질러 놓은 것이니 모든 걸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알고 말로만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 됐다'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해도 내가 실천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다보면 나와 남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도 둘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더구나 나와 남이 둘이라고 생각하니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다시 만납시다.

담아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문 이 공부는 재미있고 신통방통하네요. 되는 것도 재미요, 안 되는 것은 알고 보니 더 재미있는 그 자비였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큰 사랑, 즉 근본의 마음뿌리를 세세생생 완전히 고쳐서 다시금 미혹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완전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세생생히 그 어느 미물에게라도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라도 빈틈없이 완전히 그 깨끗 아닌 깨끗한 길로 이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신이 어느 것 하나라도 오면 다 담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나이기에 마음내지만 조금만 방심했다면 연방 되돌아오니 너무 많고해서 언제까지 마음을 내야할지 자신에게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 아니, 잘 나가시다 왜 옆으로 빠집니까?

그래 무엇이 되겠다고 하니까 안되질 않습니까?

내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부는 놓는 공부요 맡기는 공부요 그런 가운데 지켜보는 공부요 그래서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공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다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죽고 또 죽고 거듭거듭 죽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터득하고 더불어 죽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겠다고 해서 되는 도리이기 이전에 죽어야 보는 도리지요.

헌쇠 잡쇠 무쇠 찌꺼기… 다 닥치는대로 용광로에 쓸어 넣으세요. '넣다보면…' 이지 '나올거다' 도 아닙니다.

스님이 남녀 구분해 속상해요

문 동국대 불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는 불법에는 남녀노소 승속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끔 학교에 다니는 스님들이 비구 비구니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겉껍데기 몸뚱이로야 남녀가 있고 잘난사람 못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에야 어디 남녀 구별이 있고 잘나고 못나고 구분이 있겠습니까.

불법공부엔 성별도 없고 학력도 연령도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따로 없구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불법 아닙니까? 평발 평손이지요. 그러니 속상해 할것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때마다 말로해서 될 것 같으면 말로 일러주고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면 속으로 한생각 좋게돌려 지혜로와 질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몫이다 하고 마음을 내주세요.

또 그렇게 높다 낮다를 따져 보았자 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볼 때면 '아하, 저분이 지금 내게 하심하라고 가르치는구나, 고마운 일이다' 하고 돌려놓고 가세요.

탐진치 삼독심 없애려면…

문 나도 모르는 내마음 깊은 곳의 욕심과 어리석음, 진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엊그제 녹음테이프에 뭘 입력해두었는데 오늘은 그걸 지우고 새것을 입력하고 싶다면 어쩌시렵니까.

입력된 위에 되입력을 하면 되겠지요. 과거에 먹었던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거기엔 온갖 것이 다 있지요. 좋아하는거, 싫어하는거, 욕심 분노 어리석은 생각 슬픈생각…,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말입니다.

그걸 다 뿌리뽑자면 나오는 족족 되입력해야 합니다. 그 길밖엔 없습니다. 그동안 여기 질의 응답난에 비슷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입력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문 옳지 못한 인연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인한 과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인연을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다지도 돌아서만 가게되는 것인지, 제 속의 주인공이 하는 일임에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답 전쟁을 하는데 전진하는 것만 법이고 후퇴하는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되어야 한다' 는 생각까지도 놓고 말기면 그것조차도 이러니 저러니 할게 없지요. 놓고 말기는데는 뭔가 바라는 게 불질 않습니까. 붙는다면 놓았다고해도 고작 또다른 욕심일 뿐이겠지요.

"남의 탓하면 업보 쌓여서 유전이 되고 인과가 돼서 고가 따르죠"

감기에 몸과 마음이 아파요

문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때는 주변주변에 아픔을 보고 온마음으로 슬퍼하고, 늦게나마 큰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큰 기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수행이 되어야 그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 한몸과도 함께되지 못한 제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송함과 야속함과 못난생각 속에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이끌어 주십시오.

답 조바심 낼게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경험을 했다는데…,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부는 그 어떤것, 어떤 상태가 되고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나를 죽이는 공부요 비우고 버리는 공부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하고 안팎으로 닥치는 모든 경계를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리석다는 둥 못났다는 둥 하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공부이어야 하겠지요.

나쁜 습관 끊고 싶어요

문 여러번 말씀 여쭈고도 제 손에 남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도 과거의 좋지않은 습관을 계속하고 있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는 한약으로 제 몸을 고치려고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절의 공양주나 일꾼으로라도 들어가야겠습니까?

답 무얼 얻고 무얼 남기려고 하십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버리고 또 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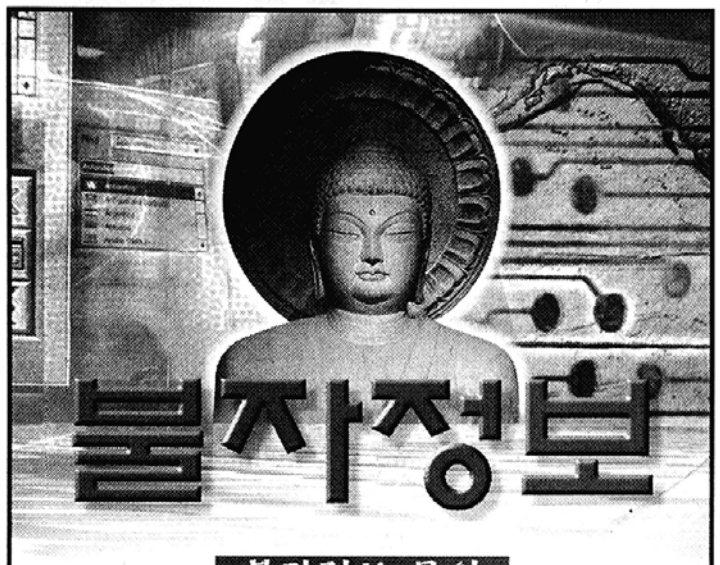
자신이 붙잡고 놓질 않으면서 놓아지질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딱하십니다.

원숭이란 놈이 병속에 든 먹이를 움켜쥐고선 손이 빠지질 않아 그만 잡혀 죽었다는 셈으로 주먹에 쥔걸 놓으면 손이 쑥 빠져서 목숨을 건질건데 놓질 않으니 손이 빠져 나오겠습니까? 알아서 잘 참작하세요.

"남의 탓하면 업보 쌓여서 유전이 되고 인과가 돼서 고가 따르죠"

매사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다 놓으세요
모든 걸 내탓으로 돌려야 업보 녹아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인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강좌

통지표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100% 간편 적중 **용신** 公式集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 511-0108

수맥파(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 (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좋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촬똥 공간의 기운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교육기간 : 3개월 ◆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견성(?)개인지도
- 죽음, 질병, 불안, 외로움, 괴로움이 없는 세계는?
- 번뇌는? 망상은? 무기는?
-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는?
- 해오, 증오는?
의리선, 여래선, 조사선은?
박민수 참선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귀 알 림 귀
철학관 수강생 모집 남녀 나이 제한 없음.
과목:육효점·평생사주·일년신수·궁합·기타
직중100%간편 출장상담도 합니다.
전과목 3주완성 후 직접 손님상담 합니다.
선착순 5명만 특별 비법전수함
※사주능통한 탁발승입니다.
빈절 임대로 구합니다.
경기 부천 남영정사 석산
032)657-7574

구인

구 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행정사무능력 있는 남자불자
인천 피안 사회복지관
032)881-8226

비구니스님 한분
공양주보살 한분
평생 가족처럼
인연맺으실 분 연락바람.
0346)557-2266
동 국 사

모십니다
평생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약간의 물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0434)
534-4070

불교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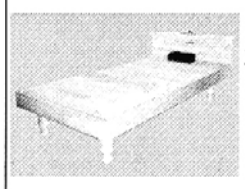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첨단 미끄럼 방지제
(화장실, 욕실타일바닥 :KAIST 발명)
◇물기있는 바닥 미끄럼 완전방지
뇌진탕, 골절상등 사고예방
◇부모님, 가족들의 안전필수품-
◇가격 : 화장실 1개용 - 16,000원
2개용 - 26,000원
(우송료 본사부담)
◇대리점, 취급점(퇴직자등)모집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보장
(아파트, 주택등 수요업청)
※신도환영·전국 어디나 친절상담
대우통상 (053)567-4034-5

◇ 건강 (숯) 침대 ◇

●여름철 습기제거와 노화방지 및 숙면유도
●숯+오동나무+백송 (100%원목)
●숯(40kg)+오동나무 목침(1개)무료
02)935-3585/936-4383 해원공예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637-2345/02)677-4265

보이차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里
02)911-6798
017)406-6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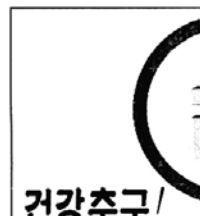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등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한말순
▶나이 : 69세
▶키:1m 50m
052)282-1490
0653)832-5769
017)546-1490
박차남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현대으뜸타워 104동 1004호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자석+금침+은의 3가지 복합효과
동광자기금침
실용신안특허 제118585호 보건복지부허가제조허가 131호 제품허가 31호
근육경직, 무릎, 어깨, 통증은 이제 그만!
동광자기금침은 이제 가정상비 필수의료품 입니다.
동양의 신비가닥긴 금침과 인체에 좋은 자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동광자기금침은 한방의학의 경락과 생체 에너지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순환, 요통, 관절염, 류머티스, 근육경직, 부시고 결리는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CATV 및 통신판매 중! 적은 투자! 고수익! 확신!
※ 지역총판 및 사찰판매점주를 모십니다. ※
제조원 **동양전자의료기기 (주)판매원 東廣通商**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11
대표전화 (0344)938-6292 FAX(0344)973-3505



건강추구! 자연치유
(스트레스 해소) (氣 기운 보강) 춘천 玉山家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 (02)777-0105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달마사

벽지
바탁재
해인 인테리어
019)
369-8000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8평
◇실사용평수 : 120평
◇법당 : 20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7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절터 안내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질골)무주 구천동인근
◆부지 : 약30평
◆가액 : 평당 6천원
◆특징 : 덕유산 줄기 석수,
경관수려 이조초기 절터임.
천연고로쇠나무, 자작나무,잣나무등
현재 사슴농장으로 운영중
(주)0598)942-2400/(아)0598)944-2467

사찰안내
◆위치 : 전라북도 남원근교
◆법당1,산신각 1,종각,석탑,요사채2동
◆특징 : 대숲과 노송 사시사철
변함없는 자연수
◆좌향 동남향
◆가액 : 2천2백만원(가격조정 안됨)
◆당장이라도 사찰재건립시 시주자 있음
◆단, 사찰부지는 아님
0673)642-2965(저녁 8시이후부터)

포교당 안내
◆위치 : 나로도 성은암
◆부지 : 2,500평(법당1, 요사채 2동, 풍부한 자연석간수)
명당터의 조건을 두루 갖춤 절앞산 연꽃봉우리 형상 절뒷산에 자연탑비위 절앞바다에 거북섬(하루2회씩 육지로 변함). 기도영험 도량으로 전국각처에서 오기 시작함. 연육교 가설로 광주에서 절까지 2회. 고흥에서 21호 버스 있음
◆가격 :2억 5천
0666)834-4538/016)247-5363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강원
◇법당및 요사 : 35평
◇부지 : 2,080평
◇가액 : 7천만원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위치 : 울산시 중구 우정동
◆평수 : 전체50평, 방 4개
◆본존불, 지장보살, 천불용 201불, 철성산신 옹왕불, 후불탱화, 신장후불탱화, 영가단, 신식건물, 시설일체 완비
◆가액 : 전세 일천만원에
월 45만원(권리비 2천만원)
052)245-3840,212-0691
011)557-3840

암자(급) 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대지 : 120평
◆가액 : 4,900만원
011) 582-1736

사찰 안내
◆위치:경기도 이천 소재(서울 약1시간 거리)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방11 식당 화장실독립)
◆가액 : 3억 5천
◆특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연산9동
◆평수 : 35평
◆법당, 공양칸, 욕실, 방3
◆주전 2,300세대 아파트 입주중
011)851-0115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시내
◆부지 : 700평
◆법당 25평, 요사채 200평, 주지실 20평
◆특징 : 산세좋음. 지하철역
10분거리, 전통 대형사찰임
◆가액 : 10억
한 국 불 사
02)561-7020/018)273-9390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토굴암자) 안내
◆위치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일리 지량산 입구
◆가격 : 1천만원
0357)534-7902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송현동 앞산 청소년 수련원 앞
(송현 주공 및 상인동 아파트 인접)
◆43평,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일체무상증여-타지역 이전 관계로 급히 양도합니다.
053)621-2626/0561)744-1689
011)763-1690

사찰 안내
◆위치 : 과천 대공원 청계산 뒷편
◆법당 : 30평 ◆반지하 : 40평
◆1층 : 요사채 3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02)502-2932

대지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금정산아래 동신대학 뒷편
◇ 대지 : 250평
◇ 평당매매가 : 135만원 (가격 조정가능)
※사찰부지 입지좋음
※기초공사완료, 지하수개발완료
011)607-3155/012)601-4041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시 동구 초량6동 754-904 자비사, 지산스님 주지 삼중스님(초량6동사무소뒤)
◆부지 : 184평 ◆법당 : 3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방7칸(욕실) 35평, 종각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051)467-7643/011)580-1407
참고사항:도로변에서 50m위치, 도시계획 확인원에 차도로 되어있음(현재)

사찰·수행처 가능
◆위치 : 산청군 신덕면 법서리 (황매산줄기)
※진주시내 30분거리 2차선 도로옆
◆대지 : 142평 ◆건평 : 29평
◆가액 : 9,500만원
※순수 한국노송 통나무와 황토로 건축
0596)973-1586

사찰·토굴 구하시는 스님
◆위치 : 덕유산 앞 삼봉산 구천동, 거창군 30km, 무주군 30km, 경계선
◆대지 : 215평 ◆건평 : 25평
◆신축 벽돌 스라브, 현대식 건물
0657)322-1240
053)473-8952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시내
◆부지 : 700평
◆법당 25평, 요사채 200평, 주지실 20평
◆특징 : 산세좋음. 지하철역
10분거리, 전통 대형사찰임
◆가액 : 10억
한 국 불 사
02)561-7020/018)273-9390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 : 등기필
◆법당·요사 37평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591)745-8339/011)488-3339

포교원 안내
※ 아미타도량 급매 ※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지하철역앞 최요지
◆법당 : 40평 (시설최상급)
◆큰방4(주방,화장실,목욕탕)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철학원도 가능 (아주생활편리)
02)2212-125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영동군 4차선 국도서150m 거리
◆법당 15평, 요사20평, 창고 18, 대지 150평
◆가액 : 3,500만원
0414)742-6772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2,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1,500 월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017)339-0566

사찰 안내
◆위치 : 군산 월명공원 내 소재
◆요사채 : 40평
◆법당 : 20평
◆대 지 : 300평
◆급한 사정으로 전세 가능함
0613)337-4020
011)579-9865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농촌체험도 하고 관광도

(생활) 농협중앙회가 도시민들이 농가에서 직접 농촌체험을 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팜 스테이(Farm Stay)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나물캐기와 벼베기 등의 계절별 프로그램과 메주담그기 등 지역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중앙회 및 각 도 지역본부에서 참가접수를 받으며, 가족당 하루 숙박비는 3만원 정도. (02)397-5625

경차 현금으로도 통행료 할인

(교통) 이달부터 배기량 8백cc 이하의 경차는 고속도로카드뿐 아니라 현금을 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통행료 징수체계상 경차와 일반 승용차의 구분이 안돼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경차용 고속도로 카드를 사용해야 했었다.

하루 생마늘 반쪽 항암 효과

(건강) 뉴질랜드의 렉스와 크리스틴 먼데이 부부는 하루에 생마늘 반쪽을 먹으면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마늘을 먹으면 발암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효소가 분비돼 장 계통의 암발생을 억제시켜 준다고.

각종 민원처리기간 단축

(행정) 7월부터 건축관련 각종 지방행정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교통행정 민원처리는 7~10일에서 2~3일로 크게 단축된다. 여권은 신청후 3일내 받게 되며, 창구에서의 민원인 대기시간도 10분을 넘기지 못한다. 기획예산처는 교통 도로 건축 세무 종합민원 등 10개 민원분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및 보상기준을 정한 '고객헌장'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무료 시내전화 '땡큐폰 서비스'

(통신) 집이나 회사에서 시내전화를 공짜로 걸 수 있는 방법. 한통정보시스템이 광고안내를 듣는 조건으로 시내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땡큐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땡큐폰'을 이용하려면 전국 50여곳에 있는 지사를 방문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02)3452-3232

'뉴 밀레니엄이 온다'

(방송) EBS는 지난 6일부터 4회에 걸쳐 방영되는 새 천년의 변화상을 살피는 '뉴 밀레니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일요초청특강'(오후 1시) 방송을 시작했다. ▲6일 '21세기에 현실로 나타날 새 천년의 4가지 시나리오' ▲13일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0일 '21세기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 27일 '인류의 희망 과학신기술'

"相生으로 새 천년 맞는다"

정부, '매향찾기운동' 등 밀레니엄 사업 발표

'두 손 원리'는 화엄사상…"불교가 이끌자"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상징 조형물인 '새 천년을 움겨쥐는 손'. 이 조형물을 조각한 여주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은 "지혜와 행(行)의 화합으로 2천년을 맞이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상생(相生)과 화해의 정신으로 즈믄해(새 천년)를 맞이한다'

4월12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 천년 맞이 사업의 개념과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어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천년은 대립·갈등의 개념인 '한 손 원리' 대신 융합·조화의 개념인 '두 손 원리'에 의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손의 원리'에 상생과 화해의 정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상징 조형물인 '새 천년을 움켜쥐는 손'은 이같은 철학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생과 화해의 '두 손 원리'에는 바로 불교의 화엄 연기사상이 기초가 되고 있다. 새 천년을 여는 열쇠가 불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교의 핵심사상이기 때문이다.

20세기는 극단주의와 양극화의 시대였다. 이같은 갈등과 배제의 '한 손' 시대를 청산하고 시간과 공간,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공, 문명과 자연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相生) '두 손' 시대가 되도록 하자는 청사진이 기념 사업의 바탕철학을 이루고 있다.

새 천년 사업내용은 ▲2000년부터 매 10년마다 1개의 문을 준공해 22세기까지 모두 12개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열두 대문'을 세워 회랑을 완성하고 ▲열두 대문 앞에는 지구본 형상의 평화기상대를 건립하며 ▲지난 천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향나무를 찾아 선조들의 '내리사랑'을 되새기자는 매향(埋香)찾기 운동을 펼치고 ▲새 천년을 동해안에서 맞는 국가적 이벤트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같은 세계화·천년화 사업에는 56억7천만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하강해 미륵정토를 구현할 것이라는 불교의 미래관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 천년 정신'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새 천년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천년 후 우리 문화발전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륵불의 가르침을 받는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마을단위로 땅에 향나무를 묻었던(埋香)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위원장은 이를 '천년 의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세계화'(공간) '천년화'(시간)를 함께 추구하는 상생적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대반열반경〉에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새 천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준비위원회의 큰 틀은 바로 경전말씀과 다름없다. 미륵부처님을 기다리며 용화세계를 열어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새 천년을 여는 지혜이며 불자들이 앞장서 새 천년을 이끌어 가야 한다.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2001년 1월까지 활동하며, 준비위원회 계획에 대한 이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02)732-2000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 잇달아

"전향적 검토 이뤄져야"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창립 10돌 기념식과 함께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데 이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31일 삼종스님 등 각계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전세계가 사형을 일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은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이 논란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옷로비 의혹사건 PC통신 비난 '봇물'

최근 터진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비난을 넘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PC통신 천리안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ID KYM5611씨는 "연-연지찍고 분바르고, 정-정신없이 치장하니, 희-희희낙낙 세상살이 개망신 바로여기"라는 삼행시를 올렸고, ID TILY씨는 연정희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엘리트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믿을 정도로 창조적이고 열린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심지어는 "이 기회에 시민계엄령을 선포해 악질 기득권자들의 행태를 심판하자"는 의견(KSSCOM)도 있었다.

국민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난 여론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금동이의 술은/일만 백성의 피요/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는 춘향전의 시구를 올렸으며, "권력의 단맛을 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비관도 제기됐다.

건강 해치는 세계1위 고교생 흡연율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 그러나 최근 실시된 고교생 흡연율이 세계 최고라는 조사결과는 이 날을 비웃고도 남았다. 남자 성인 흡연율도 72%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YMCA에서 실시한 고교생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은 절반 이상이, 여학생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제 성인들은 물론 학교에서의 금연교육도 더욱 절실해진 형편이다.

시론

민심의 분노



심성구
〈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대표〉

요 며칠 새 어디를 가나 재벌 회장 부인과 장관부인들이 관련된 고가옷 뇌물수수 사건이 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검찰 발표와 당사자의 해명으로는 장관부인이 스스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로비에 말려들어 오해를 받게 됐을 뿐이라고 하나 그럴수록 시중의 민심은 더욱 더 험악하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를 야기한 원인은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고관 부인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수백 수천 만원대의 고가옷을 쇼핑하러 다녔고 또 결국 실패하기는 했지만 뇌물로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들이 있었다는데 있는 것 같다. 몰론 수천 만원의 돈이 없어서 부도를 낸 중소기업주나 다니던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IMF 사태의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 더욱 분노를 촉발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호화 사치생활과 부패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까이는 최근 있었던 고관집 절도범의 다분히 과장된 폭로극에서부터 멀리는 5공시절의 대도 조세형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도층의 도덕적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 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든다, 등의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 "옷 로비 의혹 도덕적 위기 해법 숙고 계기 삼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중의 여론과 언론이 그토록 분노하고 때로는 사건 관련자를 엄중 문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나는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조건에서 장관을 교체하고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만으로, 또 법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부패가 청산되고 사회의 도덕성이 확립될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사안의 본질을 단순하게 보는 생각이다. 고위층 인사들의 도덕성은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성의 표출이 바로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의 수준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연고주의, 부패의 유착관계, 법치의식 박약, 물질만능주의 등이 집약적으로 응축되어 표출된 사건이다. 이런 사안이 어떻게 단순한 사건일 수 있겠는가?

설령 이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사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이라고 과시적 소비와 부패의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패의 유착관계와 과시적 소비의 압박이 너무나 강해 아마 웬만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말은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는 말이다. 한 사회의 생활방식의 건전성과 도덕성은 결코 짧은 기간에 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관의 교체나 심지어는 정권의 교체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뒤늦게 냄비와 같이 끓어올랐다 곧 식어버리는 감정적 흥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낡은 의식과 관행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끈질기게 사회 전반을 옭아매고 있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위기의 본질과 해법이 무엇인지를 좀더 냉정하게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大韓佛教總和宗

아기부처님의 誕辰을 온누리에 慶祝 드립니다.

宗正 李東光
副宗正 朱寅鉉·崔慧山

總務院長 全南亭
宗會議長 李萬悟
教育院長 金華潭
布教院長 朴青海
監察院長 白東悟
文化院長 崔海正
護戒院長 趙古潭

總務部長 朴賢悟 財務部長 李錦悟
教務部長 尹大岩 規正部長 鄭無碍
社會部長 黃慧光 組織部長 朴大現

各教區宗務院長 諸位

병원부설 빛고을 장례 예식장
(장례문화의 혁신)

회 장 : 회 정
대 표 : 이장국

임직원 일동

♣ 병원부설 장례예식장 층별안내
- 지하 : 영안실 장례용품실
- 1층 : 꽃집, 약국, 청과, 매점, 떡집, 식당, 생선
- 2층 : 201호, 202호, 분향소
- 3층 : 301호 302호, 303호 분향소
- 4층 : 401호, 405호, 분향소, 안내사무실
- 5층 : 501호, 502호 분향소
- 6층 :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안내 사무실
- 7층 : 호스피스, 치매병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7
(계림 동광고 앞 우성병원 옆 건물)
전화: 062-225-2444/ 팩스: 062-226-4729

禪學, 太極禪院

太極禪無道
참선·기공교정

院長 姜法醒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81-16
TEL : 051)552-7972

대한불교조계종
금하선원

주 지 석청암

신도회 일동

금하선원신도회
불교교양대학각기동문·거사림회

■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6
장승빌딩 403,404호
TEL : 02)823-9135~6
FAX : 02)823-9134

"생명과 사랑의 性 일깨워야"

인천청교련·총리실 '청소년 성문화…' 의견나눔회

불교·천주교·기독교 현황 소개
성캠프·참선프로그램등 활용 제시



◇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 의견나눔회에서는 성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의 문을 열어주자는 종교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성을 이야기 하자!"

무분별한 성문화와 유해환경에 노출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종교단체지도자들이 앞장서 지도하자는 '청소년 성문화 바로잡기' 의견나눔회가 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펼쳐졌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문화대책분과 주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등 2백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음지에 가려졌던 청소년의 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성에 대한 각 종교의 접근방법과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각 종교집단의 현황 등을 소개한 이날 의견나눔회에서 선일스님(청교련 인천지부장)은 "그릇된 청소년성문화를 바로잡기위한 캠페인과 성캠프, 세미나, 실태조사, 쉼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각종 성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바로 선도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참선과 명상 등 불교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찰의 재교육장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열섭신부(천주교회 청주교구 사무처장)는 "청소년 성문화 바로세우기는 어른들의 성문화를 바로세우는 데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성은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것임을 종교지도자 뿐 아니라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신부는 천주교가 90년대 들어 참생명학교, 미혼모의 집, 순결교육, 교구내 가정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성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현미실장(기독교 가족상담소 실장)은 "상품화된 우리사회의 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화를 위한 총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훈련, 부모교실 등 종교단체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문제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청소년과 성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이지현사무국장(한국JTS), 가섭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학인대표), 이미경사무국장(청교련 인천지부) 등이 참여한 이날 의견나눔회는 청소년 성문제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종교계 스스로는 청소년 성문화에 새롭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주부신행담 진흙속에 피는 연꽃 ② · 〈끝〉

가게일 하랴, 남편일 도우랴, 아이들 돌보랴 시간에 쫓겨 절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의 시달림에 지쳐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아이들도 어린데 라는 생각을 하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라며 스스로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 불법을 좀더 알고 있었다면 한 생각 돌려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었을테지만 당시 나에겐 역부족이었다.

시련은 있었지만 남편 사업이 잘 돼 2년 후엔 전세로 살고있던 잠실 아파트를 샀다. 절에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나에게 주신 부처님의 선물 같았다.

그 후 남편 가게를 옮겨 사무실을 마련했고, 나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며 간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깜깜한 지하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나를 누군가 환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꿈이었다. 그 꿈 후 나는 더 자주 절에 나갔고 다니던 절에서 교육도 받았다. 큰 스님들의 법문과 법사들의 강의가 열리는 다른 절과 단체에도 찾아다니며 열심히 들었다. 또 참선이란 것도 경험해 보았다. 열심히 다니며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지만 내 공부는 깊어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공장을 차려 납품까지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갔다. 남편과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공장 일을 도왔는데 일이 어찌나 고되던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을 때가 많았다. 남편은 내게 쉬어가며 요령껏 하라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공장 직원들도 요령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대충 할 수도 없었다.

힘이 들면 들수록 나는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고 다라니를 염했다.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칫 불법 인연이 시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틈틈히 절에도 가고 법화경 모임에도 다니고 인연 지어지는대로 보시나 봉사활동에도 동참을 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다라니를 염송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스님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수술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나는 병실에 옮겨져 마취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복도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누군가 발하는 빛이 내 침대옆에 멈추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마치 부처님이 화현하신 듯 눈부셨다.

손가락 절단으로 실망하고 있던 나에게 부처님이 나투셔서 용기를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 나는 새벽이면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수술 후 남편은 그동안 자주 화를 내고 짜증스러워 하던 옛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 생전 할 줄 모르던 "힘들지, 고마워"라는 말도 자주 하며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해 주었다. 아이들도 잘 커 주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였다. 남편도 크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와 남편은 매일 새벽예불과 저녁기도, 〈법화경〉 독송, 사경을 일과로 삼으며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올 신정때 남편은 친구와 함께 머리를 식힌다면서 거조암에 가 2박3일 동안 삼천배 정진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3천배를 하느라 힘이 들었을텐데도 남편은 오히려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정신적으로 여유롭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젠 내가 일을 할테니 좀 쉬어요. 앞으론 내가 더 열심히 할께"라며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림 · 문병성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절한다
남편과 나 아이들이 3배씩
사랑과 존경이 더욱 우러났다

요새 매일아침 남편은 가족사진을 앞에 놓고 108배와 〈지장경〉 독송을 하고 출근을 한다. 왜 가족사진을 보고 절을 하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건 "내가 만약 기도를 하게되면 우리 가족에게 절을 올릴거야"라고 말했던 남편 스스로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요즘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이색신행을 하고 있다. 남편이 나에게, 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서로서로 3배씩 올린다. 처음엔 우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 서로에게 존경심과 사랑이 한층 우러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강한 신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간다.

오늘도 가족 사진 앞에서 기도하는 남편 옆에서 나도 함께 기도를 한다.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거침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에겐 희망만이 있을뿐 절망은 없다. 부처님 법대로 슬기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강경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여불련 광복기념 자선음악회

14일 세종회관서 '한떨기 봉선화로…'

일제치하 36년의 고단한 삶을 살아 온 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어 내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복 53주년 맞이 자선음악회 '한떨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 를 공연한다.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중앙대 정부기 교수가 작곡한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창작곡 '한떨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 가 연주되며, 청주대 강혜숙교수의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영가천도재 춤 '구천의 영가들이여, 극락왕생하오서' 도 선보인다.

한국여성불교연합 합창단, 자민련 여성합창단, 천태종 금강합창단, 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나의 서원' '지장보살의 공덕' '반야심경' '석가세존' 등의 불교 합창곡과 민요를 노래한다.

이은자 기자

동두천여상·수원 소화초등 대상

12회 청소년 예술경연…사경공모전도 성황



◇청교련 주최 청소년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동두천여상고의 풍물 공연.

청소년의 달 5월을 회향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가 전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5월 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2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를 열었다. 청교련 부여지회도 5월 30일 계룡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졌으며, 아산지부에서는 5월 22일 '아산 청소년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를 옥련암에서 개최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5월 29일 제2회 전국청소년 사경 공모전 회향식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고, 전국에서 응모한 1,973편의 응모작 가운데 101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파라미타 대구지부가 5월 30일 연합 청소년 체육대회를, 전북지부도 제3회 파라미타 모악축제를 열었다.

이은자 기자

■ 정희천교수 인터넷방송국 뮤직코리아 운영

불교음악 세계에 알린다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컴퓨터만 있으면 국악이나 불교음악을 세계 어느곳에서나 감상할 수 있다.

국악전문 인터넷방송국 뮤직코리아(http://www.music-corea.com)가 바로 그것. 전북대 정희천교수가 지난해 12월25일 문을 연 뮤직코리아는 라디오방송과 국악1·2 채널, 국악라이브공연 등을 포함해 현재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관소리를 주로 들려주는 국악1채널과는 달리 국악2채널은 기악과 전통무용을 소개해 준다.

불교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정교수는 "인터넷을 접속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영산재 등 불교음악을 비롯한 문화 행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종단이나 불교 단체 등의 후원이 이뤄진다면 불교문화 채널을 개설해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정교수는 "빠르면 올해 안에 교성곡과 불교 합창곡, 불음가요 등 대중적인 불교 음악들부터 모아 각 장르별로 채널을 세분화시켜 방송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여성 생활정보

홈뱅킹 · 홈쇼핑 강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컴맹주부를 위한 홈뱅킹 홈쇼핑실습' 무료강좌를 연다. 홈쇼핑, 홈뱅킹, 인터넷 쇼핑몰검색 등. 14일~7월 2일 실습. (02)794-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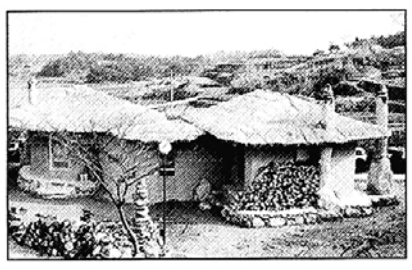
문화활동 감시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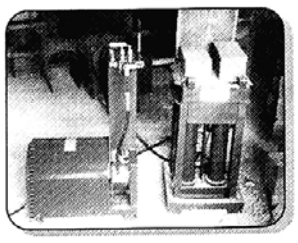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은 역사왜곡 문화파괴 잘못된 대중문화 문화행정 등을 감시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02)508-37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길흉 · 방위 · 진로 · 선택등을 기초부터 완전한 단명에 이르기까지 특별강의하오니 개업 · 부업을 희망하시는 수강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시간 : 매주(화.목.토) 2시간씩 3개월
◐ 오전반 : 10시 ~ 12시
◐ 오후반 : 2시 ~ 4시
◐ 저녁반 : 6시 ~ 8시
(각 2시간씩)
◐ 개강일 : 1999년 6월 10일부터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3 FAX. 02)713-4853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몰.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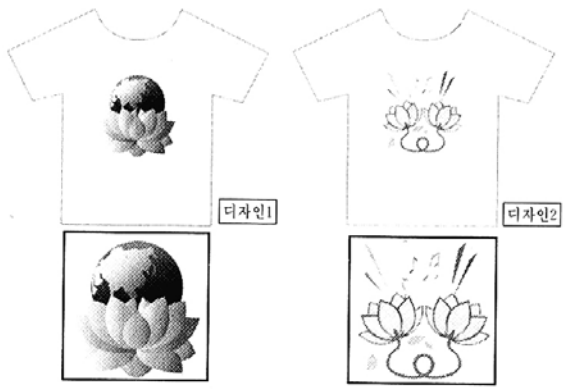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부다피아 면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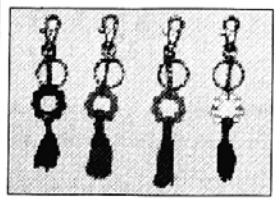


■ 재질 : 순면 100%(20수)
■ 색상 : 흰색
■ 인쇄 : 나염인쇄(칼라)
■ Size : 대(XXL,XL),중(L),소(M,S)
■ 가격 : ₩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사찰명·단체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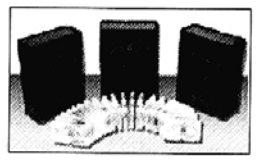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빔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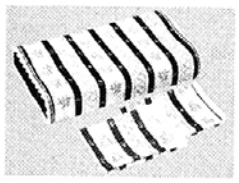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방 옥베개



가격 : ₩ 30,000(1개), 1세트(2개) ₩ 56,000
크기 : 50×28×80cm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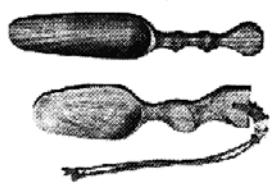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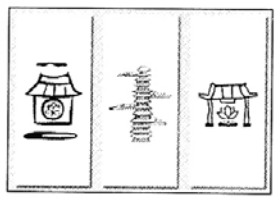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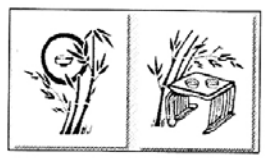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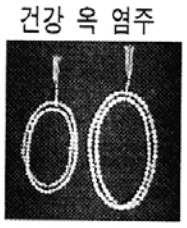
가격 ₩ 1,600 / 기장 6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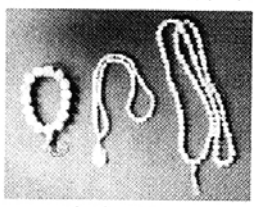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건강 옥 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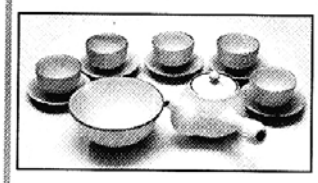
종 류 청옥·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압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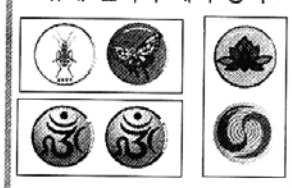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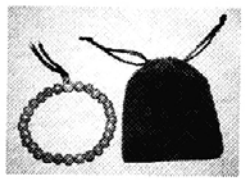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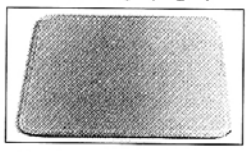
가격 ₩ 10,000

석풍 건강옥 카페트



크기 170㎝×240㎝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1kg
룻선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 (우레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석풍 건강옥 방석



크기 44㎝×44㎝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가격 ₩ 9000
룻선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우레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거산 죽염



원산지 국신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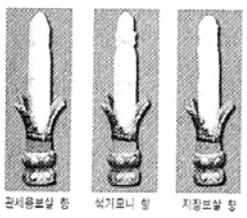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8㎝×4㎝) 2개
양초 청 각 한질 촛대 비람막이2개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기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8,0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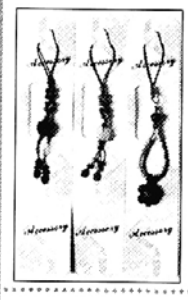
재질 등
특징 수공에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에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쑥 액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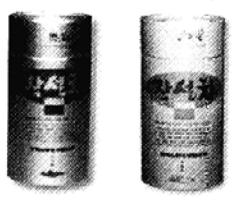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전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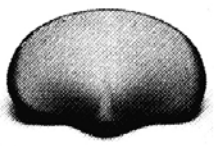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 (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 고추장 1kg기준	12,000원	· 무 장아찌1kg	12,000원
· 된장 1kg기준	7,000원	· 마늘쫑 장아찌1kg	12,000원
· 쌈장 1kg기준	7,000원	· 된장 콩잎 1kg	12,000원
· 간장 1.8L	8,000원	· 된장 깻잎 1kg	12,000원
· 디덕 장아찌1kg	30,000원	· 된장 고추 1kg	12,000원
· 오이 장아찌1kg	12,000원	· 산초 장아찌 1kg	30,000원
· 감 장아찌1kg	12,000원	· 을외 장아찌(나니스키)1kg	12,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름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신흥사 극락보전

은해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봉은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안동출생
1923년 선학원에 출가
1928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3년 범어사 김천 대고파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 덕숭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선원서 안거
1953-84년 은하사 불국사 · 봉은사 은해사 · 관음사 주지
1959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선학원 이사장
1965년 월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7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송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성행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외 일본, 대만의 각종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이분청자기를 이법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진정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점의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시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정토회서 '깨달음' 법문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13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특별법회 '서구적 가치의 질곡과 불교적 깨달음' 주제 법문. (02)587-8993

서울 보리사서 설법



정락스님(용주사 주지)15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보리사 화요법회. (02)562-9939

매주 일요일 일요법회



남전스님(정혜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정기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경전법회 (02)903-8019

'서양스님이 본 불교' 법문

현각스님(화계사 국제선원) 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서양스님의 눈으로 보는 불교' 법문. (02)703-0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6월9일 (수)

■ **법계사 순례기도**=무진법장사는 10일까지 지리산 및 법계사 순례기도를 떠난다. 오전 8시 30분 무진법장사앞에서 출발한다. (02)932-2333

■ **금산사 학술회의**=오전 9시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불사 추진위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이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다. (02)921-5825

6월10일 (목)



◇지난해 불국사서 열린 연수회에서 불교문화 강좌에 열중한 관광가이드들.

■ **제1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조계종 포교원은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11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연다. (02)720-7060

6월12일 (토)

■ **미륵산 용화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13일까지 무박 2일간 미륵산 용화사와 한산섬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 (02)725-1284

■ **한국종교학회 월례발표**=오후 2시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건물 합동강의실에서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발표회 '원효의 중관철학' '원효의 장애론' 등이 진행된다. (02)2260-3128

6월13일 (일)

■ **재가연대 등산모임**=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오전 10시 북한산 등산모임을 갖는다.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집결해 도선사, 백운대, 원효암 등지를 돌아온다. (02)725-6321

6월14일 (월)

■ **봉은사 화엄특강**=오후 7시 30분 봉은사 봉은학림의 화엄특강 첫강좌가 시작된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강독하는 이 강좌는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목요일 봉은사 법왕루서 열린다. (02)516-5652

■ **여불련 자선음악회**=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복 53주년 맞이 자선음악회 '한떨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를 연다. (02)738-5586

■ **참선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초심자들을 위한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051)466-4080

6월15일 (화)



◇변산반도의 수려한 경치속에 자리잡은 내소사.

■ **부안 내소사·개암사 답사**=국토문화연구회는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가 있는 변산반도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오전 7시 30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앞에서 출발한다. (02)2261-1313

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여름수련회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7월 30일부터 3차에 걸쳐 낙산사 해변 특설수련장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1~2차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어린이 1백50명과 중고생 1백5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열리며 3차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반인 2백여명을 받는다. (0392)636-7044

직지사 천불선원 개원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5월 29일 40년만에 천불선원을 재개원하고 30여명의 수좌들이 입방한 가운데 하안거를 입재했다. 천불선원은 40년전 화재로 소실됐었다.

법주사 단오절 체육대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18일 법주사운동장에서 단오절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관내 기관 및 주민들도 참가하는 이날 행사는 사중스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마련된다.

태고종

충담대종사 열반 1주기

지난해 6월 27일 청평 감로암에서 불교중흥, 남북통일과 중생구제를 서원하며 소신공양한 이충담 대종사의 소신열반 1주기 추모재가 17일 오후 2시 호명산 감로암에서 봉행된다. 추모재는 1부 추모법회와 2부 사리탑 기공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천태종

관문사 불화·도예전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종단 스님들과 유명작가들의 불화, 서예, 도자기 전시회가 이달말까지 서울 관문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운덕 총무원장스님의 친필 서예, 중국 봉우문화백의 서예 등 좀처럼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02)3460-5300

진각종

창교 52주년 기념불사

창교 52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전국 각 심인당에서 창교절 기념불사를 봉행한다.

종단발전기획위원회는 제4차 운영회의를 열고 기획위원회 사무처를 신설, 신임 사무처장에 무외 문화사회부장을 내정했다.

총지종

진호국가 49일 대불공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는 '진호국가 하반기 49일 대불공'을 5월 28일부터 전국 각 사원에서 일제히 시작, 7월 15일까지 봉행하고 있다. 이번 불공은 회향일인 7월 15일이 우란분절로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망조상을 위한 49일불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론종

22~24일 도제양성 교육

5월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부종정 석봉스님 총무원장 혜공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갖고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동안 충주 우암정사에서 도제양성을 위한 종단차원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화엄종

능해대종사 조사전 기공



창건주이자 초대 종정을 지낸 능해 대종사(1892~1969)를 기념하기 위한 조사전 건립기공식 법회〈사진〉가 5월 25일 인천 약사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구하스님, 정희수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지역 기관장과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사전은 오는 7월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불광도서실 자료수집**=불광도서실에서는 다양한 자료구비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받는다. (02)414-4408

▲**안치환 공연**=12일 오후 3시 정토회에서 가수 안치환씨의 문화열림 자유, 용솟음, 터짐의 소리 공연이 열린다. (02)587-8993

▲**무료합동결혼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제2회 자비의 무료합동결혼식을 6월 말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관에서는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합동결혼식 참가 접수를 받는다. (02)2282-1100

▲**저소득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제적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내 장애인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참가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결혼식은 10월 9일 실시할 예정. (0443)652-0900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의 명칭**이 5월6일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좋은벗들**로 변경됐다. (02)587-8996

♣ 강좌

▲**불광 제17기 입문과정**=불광사는 불광 제17기 입문과정을 개설했다. 22일~7월 1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에 불교예절과 의식, 삼보론, 기초교리 등을 지도한다. (02)413-6060

▲**민요·요가·단전호흡**=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 상락노인학교를 연다.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포크댄스, 요가, 민요교실, 단전호흡 등을 지도한다. (02)852-0525

▲**초등생 꾸러기영어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꾸러기영어교실을 연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 발음과 회화위주로 지도한다. (02)852-0525

▲**간병인교육**=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제19기 간병인교육을 실시한다. 간병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02)734-0611

▲**한지공예**=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지공예강좌를 연다. 바구니, 상, 장식함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든다. (02)2282-1100

▲**텔레마케팅전문가 과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월 과정의 텔레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지도한다. (02)852-0525

▲**반야심경 사경·달마 선**=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매주 화, 금요일 반야심경 사경, 달마대사 선화, 서예, 사군자 등을 지도한다. (02)2242-0331

▲**한국불교문화**=한국불교문화대학은 23~26일 3박4일간 제1기 한국불교문화강좌를 연다. 김태영법사가 금강산 신앙, 한국불교의 원형 등에 대해 지도한다. (02)766-1156

♣ 모집

▲**주민선방 이용자**=무진법장사는 선, 명상, 단전호흡 등 주민선방 이용자를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에 운영되며 3개월에 3만원이다. (02)932-2333

▲**이미용자원봉사자**=맑고향기를게 무료급식소에서는 이미용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741-4697

▲**학습지도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결손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아동, 청소년을 위해 학습지도를 해 줄 봉사자를 찾는다. 주 2회 학습봉사가 가능한이면 된다. (02)852-0525

▲**탁아방물품후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탁아방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동요테이프, 아동용탁자, 의자, 카페트 등을 후원을 기다린다. (02)571-2988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특수교사·운전기사**=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운전기사를 모집한다. 1차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032)6670-108

▲**청소년자원봉사단**=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제2기 청소년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7월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자원봉사교육, 장애체험, 장애인편의시설조사활동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한다. (02)571-2988

▲**이동목욕 봉사·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중풍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봉사에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 중 가능한 때에 봉사하면 된다. (02)852-0525

▲**탁아방물품후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탁아방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동요테이프, 아동용탁자, 의자, 카페트 등을 후원을 기다린다. (02)571-2988

▲**자격증반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자격증반, 양식한식 조리사자격증반, 컴퓨터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31-9792

▲**노인나들이 후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의 나들이 후원을 기다린다. 빵, 음료수, 과자, 생활필수품, 내의 등을 후원받는다. (02)2203-3677

♣ 부음

▲대한불교신문 대구주재 **이철순기자의 부친 이중호옹**(82)이 5월 30일 경북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생활체육 포교시대 열렸다"

조계종 복지재단 전주·부천 '스포피아' 수탁
지역주민 건강다지고 부처님 가르침 전달

조계종이 생활·사회체육 활성화를 통한 복지활동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포교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5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한 전주 스포피아와 부천 스포피아 2개 스포츠센터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불교 취약지인 전주 지역에 불교계가 이 지역 유일의 종합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호남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됐다.

스포츠를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스포츠(Sports)와 유토피아(Utopia)를 합성해 만든 스포피아(Spopia)는 체력증진을 통한 근로자 복지를 목표로 한 종합체육시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체육시설은 기존의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으며, 서울에만 이뤄졌던 체육시설을 통한 포교가 지방으로 확대되게 됐다.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 스포피아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1504평으로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장, 탁구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실외 조깅트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인원 1만5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여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포교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관장은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설웅스님이 맡았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부천과 전주에서 2곳의 스포피아를 위탁운영하여 지역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사진은 전주스포피아 전경.

특히 전주 스포피아는 이 지역 불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무종교인들에 대한 포교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강한 이곳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웅스님은 "전북지역에서 포교를 할 수 있는 이같은 위탁기관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포교의 전진기지를 가꾸겠다는 자세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 스포피아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1511평으로 수영장, 볼링장, 체력측정실, 미용체조실, 옥외 조깅트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7월부터 취미강좌, 여성부업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명실상부한 체육·문화센터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덕유사회복지관과 원종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담스님(석왕사 주지)이 관장을 맡음으로써 이 지역은 가장 활발한 불교복지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주지 원혜스님이 어린이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서원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모습.

봉은사 '서원의 사탕 나누기' 눈길

스님에게 서원받아 실천…2만여명 동참

"〈육조단경〉을 공부하세요" "스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어렵지요. 하지만 혜능조사스님의 설법을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신심이 나고 불법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2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 '서원의 사탕 나누기' 행사에 참석한 한 불자가 스님께 사탕을 받고 서원이 적힌 쪽지를 뽑자 스님이 그 문구를 읽고 내용을 자상히 설명해 준다. '하루 한가지 착한 일 하기' '하루 한 가지 엄마 도와주기' 등의 서원문구도 마련,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것도 독특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점찰법회를 현대화한 이번 봉은사 봉축행사는 관욕을 마친 불자에게 사탕을 나누어주고 서원대에 꽂힌 서원문구(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매일 108배를 하겠다 등등)를 뽑은 불자에게 스님이 그 서원을 다음해 초파일까지 행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만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아이 둘과 함께 온 상명화보살(36)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제 자신도 이런 행사에 참가하게돼 무척 기쁘다"며 "아이들과 함께 서원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영호남 불자 6천명 '화합' 법회

14일 금산사서…십선운동·연예공연 등 다채

영·호남불자 6천여명이 금산사에서 지역감정 해소와 화합을 다짐하는 화합기원법회를 갖는다.

신라 혜공왕2년(766년) 진표율사가 금산사에 금당을 지어 최초로 미륵불을 봉안한 날인 14일 영·호남불자 6천여명은 1부 미륵불 최초 봉안일 기념법회를 갖고 미륵신앙의 근본취지인 민중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미륵십선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2부 국운융창 영·호남 화합기원법회에서는 김대중대통령 축하메시지, 우의근 경북지사와 유종근전북지사의 축사, 경북 전북대표 2인의 선언문 낭독, 화합의 기 오픈식, 전북과 경북의 물과 흙을 합수및 합토,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된다.

김병조씨의 사회로 열리는 3부 영호남 화합의 한마당에는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김성녀씨의 찬불가공연 전숙희씨의 국악대향연, 가수 김태곤 변해림 김해인씨가 가요와 찬불가 나옹화상의 게송등의 공연이 차례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 부석사신도 2천명, 대구 동화사신도 1천명등 경북지역 불자 3천5백명과 금산사 본말사 신도 2천명, 전북지역 기관장 유명인사및 불교지도자 5백여명 등 총 6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불교계 주축 '한몽협' 창립

오현스님·정몽구 회장등 참여 "민간교류"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몽협회'가 불교계의 주도로 5월30일 울란바트라호텔에서 창립됐다.

김대중대통령은 창립행사에서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몽골 양국이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몽협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몽협회는 양국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맞춰 창립된 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과 낙산사 지홍스님, YTN 장명국사장, 동국대 연기영교수 등 불교계 인사와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창립위원으로 추대됐다.

특히 지난 97년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와 국립 몽골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올 2학기부터 몽골 대학생이 동국대에 유학하게 될 예정이다.

몽골은 전체 국민의 90%가 밀교계 서장불교의 교파인 라마교를 믿고 있다. '라마(Blama)'는 덕이 높은 스승(上人)을 의미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구화산 김지장상 건립

中 인덕스님 추진…높이 99M

신라 김교각스님이 중생을 제도하던 성지인 중국 구화산에 높이 99m의 대형 지장보살청동입상이 들어선다.

중국 구화산불교협회(회장 인덕)는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오는 9월9일 9시(김지장보살 탄생일) 구화산에서 '김지장정동입상정초식(定礎式)'을 거행한다. 약 4억 인민 폐(幣)의 거금이 소요되는 이 불사는 중국 4대 불교성지의 하나인 구화산의 중흥은 물론 중국불교의 부흥을 기약하는 대작불사.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은 본사로 보내 온 모연문을 통해 "김지장보살의 은혜를 입은 소납은 이 불사를 죽기전에 원만성취 하고저 하니, 시방의 인연있는 신도들과 불교단체들의 정성을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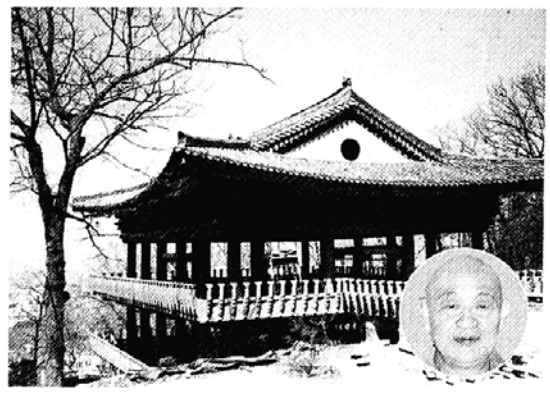
주소=中國 安徽省 大九華山佛教協會(우편번호 242811), 전화=0566-5011326. 김재경 기자

익산사암련 장학금 전달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는 6일 관음사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장학금 및 합창단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중·고·대학생불자 1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익산 가릉빈가합창단에도 지원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우리절 불사 청주 관음사


◇청주 관음사는 지역포교를 위해 천불보전을 건립하고 있다. 원내는 주지 이두스님.

지역불심 북돋울 천불보전 건립

전통양식건물…공정 50%
어린이집·유치원도 계획

청주 우암산 관음사(주지 이두)가 수행과 포교를 일궈낼 천불보전을 건립하고 도심포교 중심사찰로 거듭난다.

지상 3층 총 2백70평 규모로 건립중인 천불보전은 1층에 대중공양간과 어린이 법당이 들어서고 2층에는 종무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대불련등 일반 신행단체 사무실이 마련된다. 3층 법당은 기도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재 전통양식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천불보전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관음사 중창불사 원력을 세우고 있는 이두스님은 그동안 도량의 면모를 일신하고 신행생활의 체계화를 위해 12개의 신도조직을 만들고 교육에 많은 역점을 둬왔다.

천불보전은 이를 대표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 첫걸음이다. 천불보전을 통해 관음사는 청주지역 불심을 한데 어우르는 대표적 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단체와 청년단체를 비롯한 사무실을 갖지 못한 신행단체들에도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의 관심이 높다.

기도공간과 문화공간이 될 3층 법당에는 천분의 원불을 모시기 위해 '한가정 한부처님 모시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문의 0431) 256-6254.

청주 관음사는 앞으로 시내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세우기로 하고 1차로 어린이집을 신청한 상태이며 포교당 건립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두스님은 "관음사 중창불사와 수행과 포교의 원을 세우고 천불보전을 건립하게 됐다"며 "천사람의 인연과 신심을 모아 한 보전 이루기 발원에 불자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화엄종 구하종정 입적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해원당 구하스님이 2일 오후 4시 인천 약사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2세, 법납 64세. 1935년 금강산 표훈사에서 능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구하스님은 61년 화엄종 총무원 교무부장을 역임하고 지난 71년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에 추대됐다. 6일 인천 약사사에서 종단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됐다.

월명암 월인스님 입적



평생등한 선수행에단 전념해온 부안 월명암 월인스님이 1일 새벽 입적했다. 세수 90세, 법납 54세. 스님의 영결식및 다비식은 3일 경남사천 구룡선원에서 열렸다. 스님은 45년 전북 보석사에서 정선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화엄사, 달마산 토굴, 월명암에서 선수행하며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수행을 펼쳐왔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이보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 이보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사항 우로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여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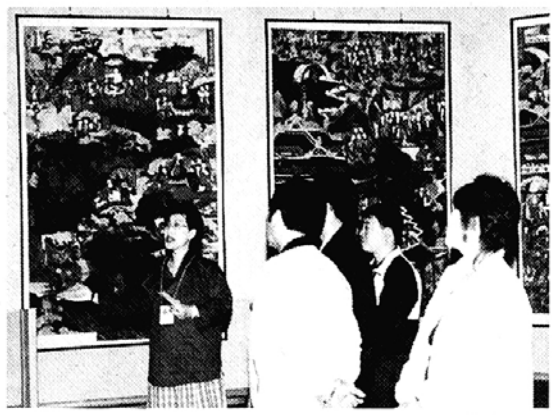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통도사 성보지키는 문화봉사단 5백명

부산 · 울산 · 양산 주민들로 구성
6개월간 문화재 전문교육 이수
전시실 안내 - 유물관리 도맡아



◇자원봉사자 김춘자씨가 통도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전시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 고장 성보는 내가 알리자." 500명의 지역주민이 성보문화재를 지키고 또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관리 · 안내 업무를 도맡고 있는 '박물관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부산 · 울산 · 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총 26개조로 편성, 4월부터 매월 1회 조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려복식을 개량한 단복에 하얀색 명찰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통도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성보문화재를 안내하고, 관람객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함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활동에 앞서 박물관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6개월간의 문화강좌를 이수케 하였다. 이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김유식(국립경주박물관 연구관), 정영호(교원대 교수), 권영숙(부산대 교수) 등 문화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불교미술개론, 불화, 복식, 불교공예 등 19개 과목을 교육 받았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유적현장답사도 실시했다. 봉사단은 '준비된 성보지킴이'인 셈.

자원봉사자 김춘자(43 · 주부)씨는 "6개월간 힘들여 배운 성보에 대한 지식을 관람객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보시공덕 그 자체"라며 "성보문화재를 아끼는 도반들과 신심을 다지고, 취미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또한 '합창반' '다도반' '꽃꽂이반' 등의 동아리 활동이다.

봉사단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 재정이 열악하듯 통도사박물관도 개관 전부터 학예연구원은 제쳐두고 관리요원 확보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500여평이 넘는 전시 공간과 이곳에 걸릴 불화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명의 경비 및 관리 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박물관의 '재정적 고민'을 일소시킨 것이다.

통도사박물관장 범하스님은 "자원봉사자들은 성보를 지키는 일선에서 활동한다는 자부심에 차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박물관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박물관 활동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유대감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김태복소장 징역 2년6월 '선고'

추징금 5천3백만원 … 교계 "불공정 재판" 강력 항의

군법당 건립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 · 현진) 등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5월26일 오후 대전 계룡대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김 소장이 법당 건립자금으로 받은 불사 시주금을 뇌물로 보고 재판부가 판결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는 한편 조계종 집행부와 종회 사회분과위원회와 협의해 확대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5월27일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명정대한 재판진행을 호소한 것을 왜곡해 재판부가 선고당시 공식적으로 '불교계의 부당한 압력행사' 운운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암사 성보박물관 착공

지난 2월 잇따라 탱화를 도난당한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가 숙원사업이었던 성보박물관을 착공했다. 5월초 터 다지기에 들어간 성보박물관은 연건평 120평 규모로 2층 전통목조 양식으로 건립된다. 성보박물관 1층은 수장고, 2층은 전시실로 쓰여지며 완공되면 선암사 소장 문화재 1천2백여점이 보관될 예정이다. 2000년 5월 완공예정인 박물관의 건립예산은 16억원이 책정됐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지방승가대 인가요건 완화

조계종 교육원, 최소인원 30명서 10명으로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현재 30명이 하한선으로 되어 있는 지방승가대학 인가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교육원은 5월26일 제41차 교육원회의에서 지방승가대학 인가요건을 낮춰달라는 지난 4월 본사 주지회의 결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의하고 다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원은 사미니의 기본교육기관 입학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동화사 산내암자인 부도암과 양진암을 사미니 기초선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군법사의 4년이상 재직기간을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외국인을 위한 기초선원을 개설해 8안거를 성만하면 기본교육기관 이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밖에 종단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교육기관 종합평가를 다음달 10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국내최대 납골당 영각사 영묘전 일부 준공 유골 안장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5월 30일 국내 최대 납골당인 '사원극락 영묘전'의 일부를 준공하고 3백여기의 유골을 안장하는 봉안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사원극락 영묘전은 연건평 2천108평 규모로 지상에는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지장전과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관음전, 대웅전인 무량수전이, 지하에는 유골 2만5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일반 납골당이 들어선다.

이날 준공한 곳은 지하 납골당 중 유골 3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특별단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아미타대(부부단)와 지장대(가족단), 그리고 무량수대(개인단)는 내년 5월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맑고…' 하이텔 모임방 개설

맑고향기룹게(회주 법정)가 최근 PC통신 하이텔에 모임방을 개설했다.

회원 유승호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설된 하이텔 맑고향기룹게에는 앞으로 소식지 〈맑고향기룹게〉의 모든 내용이 제공된다. 또 회원가입과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사진으로도 접할 수 있다. 맑고향기룹게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통신인들이 맑고향기룹게의 자원봉사, 환경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맑고향기룹게는 하이텔에서 go lotus로 들어가면 된다. 이은자 기자

'아침을 여는 집' 급식 중단

서울 서소문공원에서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오던 경불련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 부설 '아침을 여는 집'이 철거된다.

아침을 여는 집은 종구청의 철거조치로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급식을 중단했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아침을 여는 집은 줄곧 미관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오고 정부의 노숙자 보호시설입소정책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철거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장소를 물색해 급식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후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3147-2600 한명우 기자

정우스님, 멸빈징계 무효소송

조계종사태와 관련되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정우스님(서울포이동 구룡사 주지)이 5월 24일 법규위원회(위원장 공석)에 호계원 관결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정우스님은 청구서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136회 종회(98년 12월)에서 호계위원을 선출한 것은 종헌 · 종법 위배이며 △호계위원 중 종단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월주전 총무원장의 직계권속 및 당사자들이 있어 심판의 공정을 해한다고 판단되며 △왜곡된 사실로 멸빈 관결을 했으므로 새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운 기자

찬불가 내장 휴대폰 개발

삼성전자가 불경과 찬불가가 내장된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을 개발해 화제다.

이달 말 시판 예정인 스마트폰은 동국대에서 출간된 법요집의 불경과 찬불가를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절에 갈 때 따로 법요집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3년간의 연구기간과 55억원의 개발비, 1백10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 이외에도 최대 2천명분의 주소록, 스케줄 1년치, 메모 1백건 등을 저장할 수 있고 8만단어의 영한사전, 5만단어의 한영사전, 공학용 계산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지연 기자

불교소재 만화 국제만화페스티벌 우수상 받았다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한 만화가 국제만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다.

99동아 · LG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류단희씨(중앙대 산업디자인4)가 출품한 노스님과 고아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크리스마스'가 바로 화제의 작품이다.

엄마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고아소년인 정음과 그런 소년을 보살피는 노스님이 예수의 탄생일인 눈내리는 크리스마스날, 소년이 평소 갖고 싶어했던 자신의 염주를 선물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를 넘어선 따뜻한 인간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종교를 초월한 대자대비한 사랑이 이 작품의 모티브다"라고 설명하는 류씨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창작동기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자비의 죽비보내기운동

조계종 전국신도회, 7월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

"매질할 때에도 사제간의 예의(상호간의 합장)가 있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어깨에 내리쳐도 안 아파서 좋다."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사회적으로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는 스승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바람직한 스승상을 확립하자는 취지아래 7월부터 전국의 초 · 중 · 고교에 (가칭)'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신회는 각 종단의 종립학교부터 '자비의 죽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교육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하 지회 및 지부, 교계 단체 및 개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마다 자비의 죽비 갖추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신회는 부회장단 50명에게 1백개씩의 죽비(개당 5천~1만원 예정)를 후원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5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진규 회장은 "이 운동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추락과 연관되어 스승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이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아름다운 불교의 사제지정(師弟之情)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교헌사 납골당 건축허가 받아

자치단체와 납골당 건축허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경기도 광주 교헌사(주지 혜가)가 사업추진 9개월여만에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광주군은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온 납골당 5m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5월 18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헌사는 당초 계획대로 1만5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혜가스님은 "진입도로는 사실상 이미 확보한 상태며, 땅값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착공시기는 건설회사와 절충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543 禪의 향연 1999

-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안내 -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삐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운 추위가 뼈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 코를 찌르랴.」 -황벽선사

일정

찻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12일(월) - 16일(금)	남자 30명 여자 30명	19세 - 55세 경험자 우선
2차	7월 19일(월) - 23일(금)	남자 30명 여자 30명	19세 - 55세 경험자 우선
3차	7월 26일(월) - 28일(수)	남녀학생 200명	초등학생
4차	8월 2일(월) - 4일(수)	남녀학생 100명	중 · 고등부 학생
자원봉사자 - 수련경험자로 매 찻수마다 5명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대둔사 참선 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___한자___불명___성별: 남 · 여
주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 및 팩스:_____
직업: (구체적으로)_____종교:_____
수련회 경험 無( ) 有:___ 회___년도 제 차
망찻수: 제 차(월 일부터 - 일까지)
참가조건(자세하게)

년 월 일
신청인_____

⊙ 모 집 요 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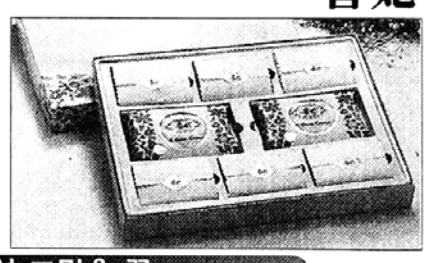
1. A4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7월1일(목) 우체국 소인분까지입니다. (1, 2차에 한함)
5. 7월 5일(월)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1, 2차에 한함)
6. 동참금은 1, 2차는 7만원이고 3, 4차는 2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면제)
7. 수련기간중 조석 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대흥사)수련원**
9. 문의처 : **종무소 전화 : 0634-534-5502,5503**
팩스 : 0634-535-5357
온라인 : 농 협 631039-51-013891 (예금주 : 대흥사)
우체국 502716-0019095-11 (예금주 : 대흥사)

※ 3, 4차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하십시오.(선착순마감) ※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둔사(대흥사)** 주 지 보 선 합장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괴론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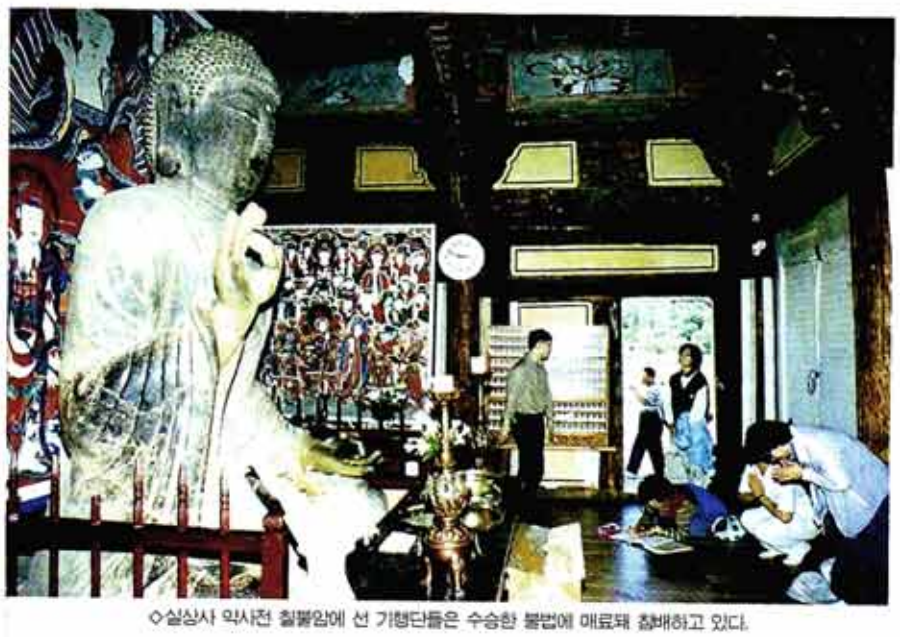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최초의 선문…개산정신 맥잇기 '새기운'



◇실상사 약사전 칠불암에 선 기행단들은 수승한 불법에 매료돼 참배하고 있다.



◇하안거 결제일 서울을 출발한 참선기행단은 5월30일 동국제일선원 칠불암에 도착, 참선으로 속진의 번뇌를 씻고 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 5월-실상산문

828년 창건…부패된 사회에 이상적 삶 제시
선우도량 · 귀농학교 개설등 '선의 생활화'

화두, 선문답, 선식, 선체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선불교용어다. 이처럼 선(禪)은 우리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선을 올곧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선'을 건강요법이나 신비술 등으로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반사다. 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 선불교가 전래된 최초 가람인 남원 실상산문을 찾아가는 참배객들 가슴이 설레인다.

하안거 결제일(5월 29일) 밤 11시 서울을 출발한 40여명의 참선기행단은 동국제일선원 지리산 칠불암(주지 통광)에 도착, 가부좌를 틀었다. 기행단들의 참선 실수는 어제 결제에 들어간 납자들 못지 않게 진지하다. 이어 쌍계사를 참배한 구산선문 참선기행단은 5월 30일 정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 도착했다. 지리산 주능선에서 뻗어 내려온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실상사는 웅대한 산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참선기행단은 화엄학림 강당에 모여 주지 도법스님으로부터 실상산문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선종의 등장은 단순히 중국 선불교를 옮긴 차원이 아니라 신라말 고려초의 사회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한국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실상산문은 혼란스런 사회에 이상적인 삶과 장삼을 제시하고 광등이란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불교를 전래한 구법승들은 이론보다 마음의 직관과 일상성을 중시하는 대중적인 수행체계인 선에서 새로운 불교의 생명력을 보았던 것이다.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에 홍척(洪陟)국사가 무수무증심인법(無修無證心印法)을 종지로 개창한 최초의 선종 가람이다. 창건 초에는 지실사였으나 산문의 개산조 홍척국사의 존칭인 '실상선정국사'의 알머리를 따서 고려 초부터 실상사라고 부르게 됐다. 홍척국사 당시 실상사는 자금의 백장암 터에서 시작됐다. 그후 대중들이 많아지자 제2조사인 수철화상(817~893)이 지금의 실상사 자리로 옮겼다는 설이 전해 온다. 실상사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백장암은 창건연대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삼층석탑(국보 10호)과 석등(보물 40호), 청동은입사향로(보물 420호) 등의 유물만이 역사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실상사의 산내암자로는 17여곳의 암자가 있었으나, 백장암 약수암 서진암이 현존하고 있다.

실상사는 대표적 평지가람이다. 사천왕문을 통해 아트막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내로 들어서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1천여년이 지난 현재 실상사는 "석조물을 제외하고는 제 위치에 건립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지스님의 말처럼 단출하다. 하지만 숙종 26년(1700) 참허조사에 의해 중창된 기록을 보면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수십동이나 즐비하게 자리잡았던 큰 절이었다. 이러한 많은 전각들은 고종 20년(1883) 화재로 요사채와 전각 3동만 남았다. 웅장했던 실상사 규모를 보여주는 한 예로 발굴결과 드러난 황룡사 목탑과 비슷한 규모의 목탑지와 100여평이 넘는 강당지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송광사(26점) 다음으로 많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당대 최고의 걸작품(14점)들을 보면 실상산문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원주 지산스님은 보광전 극락전 약사전 등의 각 전각들을 소개했다. 지불(紙佛)이 모셔진 보광전을 지나 약사전 철조여래부처님 앞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머리 숙여지는 오랜 신앙의 뿌리를 경험하게 된다. 개산당시 조성된 철제여래좌상(보물 41호)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한동안 두손이 훼손된 채로 봉안돼 왔다. 그러나 87년 복원불사하는 과정에서 철제 손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90년대 복원했다.

석조유물이 많은 실상사에는 보광전 앞에 위치한 삼층석탑(보물 37호)과 석등(보물 35호)을 비롯 창건주 증각대사 응료탑(보물 38호)과 탑비(보물 39호), 그의 제자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보물 33호)과 탑비(보물 34호) 등이 잘 보존돼 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유물속에서 선의 진미를 맛보게 한다. 마치 선승들의 확고부동한 공안처럼.

실상사는 1천여년전 실상산문을 연 선승들의 선향을 머금고 넓은 마당 곳곳에 있는 전각들, 그리고 복원불사로 인해 드러난 속살은 옛 역사를 더듬어 보기 충분하다.

한국선종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상사는 요즘 개산정신을 잇는 불사로 새로운 중흥을 맞고 있다. 백장선원이 선맥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과 승풍진작을 위한 출범한 선우도량, 승가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 개설, 불교생명구원사상 회복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등이 바로 그것.

실상산문의 과거와 현재의 새로운 중흥이라는 역사적 마당에서 함께 한 기행단들은 구산선문이 복원돼 선이 생활화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발길을 옮겼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성보보물이 즐비한 실상사 경내 모습. 개창정신으로 21세기 새 불교를 준비하는 복원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상산문의 개산정신을 잇기위해 정진하고 있는 실상사 스님들.

개산조 홍척국사는

당 서당문하서 득도



신라후기의 스님으로 실상산문 개창주. 헌덕왕 때(809~825) 당나라로 건너가 혜능선맥 마조의 고제자였던 서당지장(西堂智藏)의 문하에서 선종의 진리와 법을 전해받고 깨달아 흥덕왕 1년(826년)에 귀국했다. 최치원이 지은 문경 봉암사의 지증대사탑의 비문에서 "북악에는 도의(道義)요, 남악에는 홍척(洪陟)"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홍척보다 5년 앞서 821년(헌덕왕 13년)에 귀국한 도의는 설악산을 근거로 하여 신라의 북방에서 선법을 펴고 있었고, 홍척은 남쪽인 지리산에 자리잡고 활동하였다. 도의와 더불어 당시 남북을 대표하는 고승이었으며 우리나라 선불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828년 지리산 실상사를 창건하였는데, 구산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경덕전등록〉 권 11에 의하면 그의 법통을 이은 이로 흥덕대왕과 선강태자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왕족의 귀의를 받아 선풍을 크게 날렸음을 알 수 있다.

문하에는 편운(片雲)·수철(秀徹)스님 등 제자가 1천여명이나 있다.

쌍계사

불교음악 범패 본산지

하동 쌍계사는 불교음악 범패의 본산지. 진감국사가 중국에서 불교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명인들을 배출했다. 쌍계사는 범패교육장 팔영주를 비롯 진감선사 대공탑비, 육조정상탑, 고색창연한 대웅전(보물 500호), 쌍계사 부도(보물 380호), 명부전 염의 마애석불 등이 있다.

칠불암

구들시초 아자방 유명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칠불암은 동국제일선원, 남방불교전래설의 시원지 등 따라붙는 이름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칠불암은 '아(亞)자' 방으로 유명하다. 한번 불을 넣으면 안거기간동안(1백일)동안 식지 않는다는 아자방. 그래서 세인들은 칠불암 아자방을 구들문화의 출발지로 일컫는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